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서점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2-152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1월 1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46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총무원의 역할

조계종의 경우, 언제부터인지 총무원을 종단의 권력기관으로 보기 시작했다.

총무원은 사찰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직영사찰의 경우 재정의 수입 및 지출, 불사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토지의 처분도 총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재의 효율적인 운영과 낭비, 유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권력이라 본다면 권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조차 없다면 종단의 유지와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문제는 일처리를 하며 절차와 법에 의거했느냐 하는 것이며, 행정만능주의로 일을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절차를 정한 내규가 적합하지 않다면 고치고, 필요하면 내규를 제정해 일처리의 개념도를 만들어야 한다. 자의적인 일처리는 사사로운 마음이 끼어들 여지를 만든다.

군림보다 서비스우선
행정절차 정비해야

마침 15일 치러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총무원 운영에 대해 거론하고 나섰다.

한 후보는 "종도를 받드는 종단이 되어야 한다"며 "종무행정은 서비스 정신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며, 위에 군림하는 총무원이 아니라 아래서 심부름하는 총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는 "총무원에 집중되어 있는 종무행정의 권한을 교구본사에 이관하겠으며, 각종 민원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공문에 의한 종무행정 처리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총무원은 더이상 권력기관이 아니다. 차제에 총무원이 서비스 실현의 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총무원을 권력기관으로 보고 있는 오해를 푸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공모주 청약대출 환영
불교신협 051)633-9120~3
불자님들의 법회실 무료 이용 환영

조계종 30대 총무원장 정대스님

307표중 166표 얻어…지선스님 134표 "결과 승복"

15일 선거 투표율 96.5%

전 종회의장 정대스님이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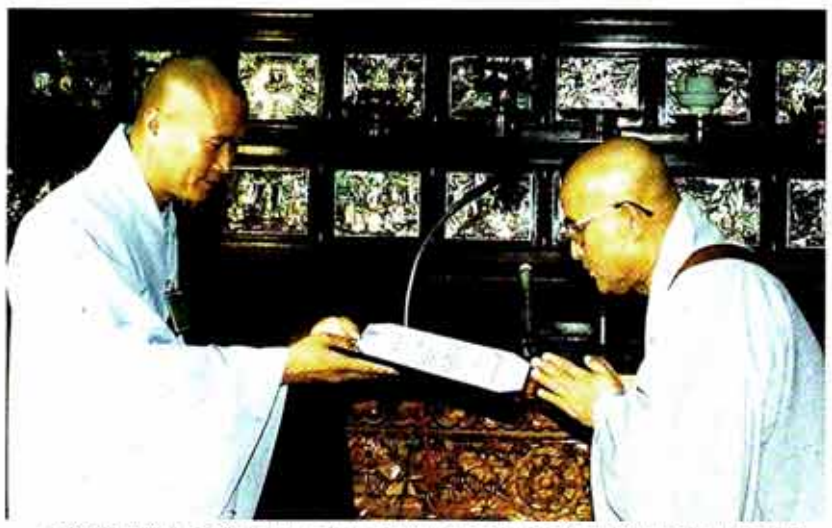
정대스님은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거인단 318명(교구 선거인단 240, 중앙종회의원 78) 가운데 307명이 참석해 실시한 제30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166표(52.2%)를 얻어 새 총무원장으로 뽑혔다. 〈관련기사 3면〉

정대스님과 경쟁에 나선 전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은 134표, 장주스님은 2표를 얻었다. 무효는 4표, 유실 1표.

선거는 오후 1시 투표가 개시돼 3시40분 종료됐으며, 투표에는 종회의원 77명, 교구선거인단 240명 가운데 230명등 307명이 참석해 9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선거는 세 후보와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종회의장 법등스님, 종회의원, 교구선거인단의 순서로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곧바로 개표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후 5시 개표를 마쳤다. 개표를 마친 후 중앙선관위원장 덕운스님은 "정대스님이 총무원장선거법 22조 및 26조에 의거 과반수의 득표를 했으므로 당선인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하고 당선증을 수여했다.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정대스님(오른쪽)이 중앙선관위원장 덕운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새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정대스님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종도들의 큰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종단 발전을 위해 정진을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총무원의 주인은 총무원장이 아니라 종도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인된 자세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1937년 전북 전주에서 출생한 정대스님은 1961년 전강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용주사 신륵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 4~5대 7~11대 중앙종회의원과 종회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종회의원과 동국학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대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종지·종풍 진작 △화합 종단 △종도를 받드는 종단 △포교와 승가·신도교육 매진 △미래사회를 향도하는 종단 등 5대 종책의 실현을 공약했다.

궐위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에 의한 총무원장의 임기는 중앙선관위의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종무원장선거법에 따라 30대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임기는 이날부터 2003년 11월 14일까지이다.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20일 오전10시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정대스님의 30대 총무원장 당선을 인준할 예정이다. 원로회의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전계대화상 추대안을 논의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선거 중지할 수 없다" 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0일 정화회의측 정영스님 등이 낸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과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총무원장 직무대행 임시대행자 선임신청, 임시총무원장 선임신청을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총무원장선거법을 개정한 144회(10월 2일) 임시종회의 절차 및 결의내용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중앙선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선거절차를 중지할 수도 없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이로써 총무원과 중앙종회 중앙선관위 모두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30대 총무원장선거 실시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마무리됐다.

정성운 기자

월동용품 25일쯤 북한행
종단협, 18일 새회장 추대

종단협의회는 9일 조선불교도연맹이 요청한 월동용품 지원과 관련 실무자회의를 열어 5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빠르면 이달 25일 선박편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다. 종단협은 2차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종단협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새 회장을 추대할 예정이다. 종단협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종단협의회는 또 30일 관문절시찰 및 장병위문 행사를 갖는다.

정성운 기자

상임이사에 혜월스님
본사 임시이사회서 선임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김광삼)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혜월스님(박귀늠·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또 조직개편에 따라 이날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뉴미디어부장 위영란 〈겸직〉 출판부장겸 취재2부장 윤제학, 광고영업부장겸 특활영업부장 박장훈, 관리부차장겸 고객부차장 선정호, 편집부차장겸 뉴미디어부차장 박래철.

구산선문 참선 기행

12월 : 사자산문(법흥사)·보덕사

12월에는 자장율사가 문수보살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강원도 세곳을 들며 사리를 봉안하고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적멸보궁을 건립했다는 사자산문 법흥사를 찾아갑니다. 구산선문의 하나로 전국의 수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을 정도로 선풍을 크게 떨쳤던 법흥사는 최근 선문종찰로서의 옛 자취를 되찾기 위한 중흥불사가 한창입니다.

법흥사 인근 요선정에서는 마애여래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 74호)도 친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단종의 애사가 어려있는 보덕사도 참배합니다.

◇출발 : 12월 5일(일) 오전 7시 · 조계사앞
◇회비 : 3만5천원(중식 포함)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전통사찰 농지취득 불허

농림부, 시행규칙 개정해 놓고 '딴청'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을 가능케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음에도 농림부에서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개정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실상사와 위봉사 정계사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신청했으나, 농지취득인정 발급을 거부했다. 실상사는 지난 7월 귀농학교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의 명의를 실상사로 변경해 줄것을 신청했으나, 농업 계획서 보완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받았다. 이에 대해 실상사의 중묵스님은 "귀농학교 운영은 실업자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정부에서 적극 협조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계사(주지 지명)의 경우 사찰진입로 확보를 위해 주지스님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9월 사찰명의로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영농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하라"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총무원은 지난 6일 농림부를 방문, "영농법인 설립은 개별사찰이 일일이 법인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치 않을 경우 농지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농림부는 '시험·연구·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전통사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가능케 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지명의로 등기된 농지도 증여와 취득 절차를 거쳐 전통사찰 명의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행규칙은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성운 기자

11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관계로 신문 제작·발송이 늦어졌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원로 대덕스님과 종도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원로 대덕 큰스님, 그리고 종도 여러분!

저는 그동안 종지 종풍을 진작하는 수행종단(修行宗團), 화합종단(和合宗團), 종도에게 봉사하는 하심종단(下心宗團), 포교와 교육에 매진하는 전법종단(傳法宗團) 사회를 구제하고 미래 사회를 향도하는 구세종단(救世宗團)의 다섯가지를 종단 운영 목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단의 본분을 되찾아 화합 교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의 사표이며 중생의 복전이어야 할 우리 교단이 많은 혼란과 분열상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세간의 우려를 자아내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많이 아프고 고뇌했습니다. 불조를 우러러 보기 부끄러웠으며 사부대중 앞에 서기도 민망했습니다. 더구나 올해에 들어 법원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인하여 종단의 법통이 부인되고, 종도 대중의 합의로 선출된 총무원장 스님이 자리를 떠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 종단의 본래 모습을 견지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잿빛 납의 하나만 걸쳐도 세상 모두를 얻은 양 당당했던 초발심의 기개를 되살려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납자의 본분으로 돌아갈 때 종단도 본래 면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종도 대중이 부족한 저를 기꺼이 선택해 주신 것은 종단의 법통을 바로 세우고 화합종단을 구현하라는 지엄한 언명이라 여깁니다. 저는 이 지엄한 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천길 절벽을 둥진 사람처럼 물러섬 없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종도 여러분!

저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대사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과거에 무거운 징계를 받았더라도 과오를 참회하고 납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종정 예하와 원로 대덕 스님들의 뜻을 항상 여쭈고, 그 뜻을 받들어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본사 주지와 중진들과 수시로 종단 운영을 협의하여 사실상의 공동운영, 참여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류 문명사를 열어가는 시대의 총무원장 소임을 종도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소명에 부합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종무기관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시하고 감독하는 총무원이 아니라 말사의 주지 스님을 시봉하는 총무원이 되겠습니다. 스님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총무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종도 대중 곁에 있는 열린 종단, 종도 대중이 참여하여 함께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종단, 그리하여 참으로 밝고 젊은 종단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종도 여러분들도 총무원의 주인이 총무원장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시어 주인된 자세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천만 불자 여러분, 사천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불교에 대한 심심한 애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종단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단은 각고의 참회와 각성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인간의 본분사를 해결하여 해탈을 이루고자 일체의 속박을 벗어던진 초심 납자의 정신을 회복하여 종지 종풍을 선양하는 청정 수행 가풍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황벽 선사께서는 엄동설한의 매서움이 없고서야 어찌 매화 향기가 코를 찌르겠는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사부대중의 화합과 정진으로 원만히 극복할 때 우리 불교의 내일이 밝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1600년 역사 속에서 숱한 어려움을 사부대중의 하나된 노력으로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불자 여러분과 국민의 뜻을 항상 높이 받들어 이사원융의 화합교단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을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종단의 바람직한 내일의 모습을 설계하고 소납에게 그 짐을 안기느라 불철주야 애쓰신 선거대책본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와 더불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신 지선스님과 장주스님께서는 이대로 초야에 묻히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제30대 총무원을 운영하는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사천만 국민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 당선자 서 정 대 합 장

사 설

새 총무원장에 거는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무사히 치러져 정대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우선은 선거가 정말 문자 그대로 무사히 치러진 것에 대하여 안도하면서, 총무원장에 선출된 정대 스님에게 경하를 보내는 바이다. 그리고 아울러 총무원장 선거가 큰 잡음없이 치러지기만을 바랄 정도로 불안하고 침체된 이 시점에 총무원장의 중임을 맡게 된 정대 스님에게, 이 상황을 일신하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불교계를 다시 떨치고 일어서게 만들 대 화합 차원에서의 개혁적 행정을 기대한다.

신임 총무원장인 정대 스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간 불교계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여 화합 종단을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혹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작용하였음직한 문중과 계파를 초월하는 공정한 행정을 통해 내부를 다져야 할 것이다. 다져진 그 힘을 바탕으로 정화회의측과의 보다 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그간 불교계에 벌어졌던 수많은 다툼들이 앞에 내세웠던 큰 명분 못지않게 문벌과 계파간의 갈등에 그 뿌리가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화합 종단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바로 이 고질적인 뿌리를 잘라내는 일부터 실천되어야 하며, 그것은 총무원장으로서 행정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천만 불자들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여져야만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다툼으로 실추된 승단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천만 불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이 첫 걸음을 올바로 떼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화합이 단지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타협의 산물이 되지 않고, 우리 불교계가 지향해야 할 큰 목표를 뚜렷이 하고 그것에 승단을 비롯한 모든 불자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불교가 오늘에, 또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뚜렷이 제시하고, 그에 비추어 과거와 오늘의 잘못된 모습들을 과감히 고쳐나가는 개혁적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불교계를 병들게 했던 소모적인 갈등들은 불교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과감히 개혁하려 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거기에 계파와 문벌의 이해관계가 얽혀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제 부처님 지혜와 자비 광명을 누리에 펴는 구심점으로서 청정 화합승단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승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신임총무원장이 우선 계파와 문벌을 초월한 공정한 행정으로 자신의 청정성을 보이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불교계의 화합을 이끌어내며, 다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으로 불교계를 떨쳐 일어서게 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당연하면서도 너무나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위상이 이제 더는 떨어질 수도 없을 만큼 추락해 있기 때문이다.

급한 상황이라고 한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조급함 없이 새 총무원장이 경륜을 펼 만한 안정적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승단 구성원과 모든 불자들의 자세이겠으나, 그러한 안심의 여지 또한 새 총무원장의 참신한 출발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자지휘관 수난…군승지원자 부족…예산난…

비틀거리는 군포교

23일 '군승의 날'

최근 잇달아 벌어진 종단 사태의 여파로 군법당을 찾는 신도들의 발길이 뜸해진 가운데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나섰던 불자 지휘관들이 모함성 제보로 인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에 휘말리는 등 군포교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군 포교 예산의 절대 부족, 군종법사 충원난에다 물론 군포교의 최대 지원단체인 군불교진흥회마저 10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어 군 불교가 전방위에 걸쳐 난국에 처해 있다. 23일 제31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군포교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한다.

불자 지휘관들의 수난:전 101여단장 김태복 소장이 군법당 호국백일사 건립과 관련 뇌물수수 및 금품요구 등의 혐의로 2심 선거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 연천군 제28사단 소속 00부대 전 연대장 H대령이 '군법당 석립사 증축 및 일주문 건립에 따른 시주금 횡령 및 사창가 외도'라는 혐의로 군 수사당국의 조사(1차 조사 무혐의)를 받는 등 타종교 군인들의 불교 지휘관 모함이 잇따르고 있어 군 포교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한 군법사는 "종교인 장성의 60~70%를 개신교인들이 점유해 불자 지휘관들의 몸사리기는 물론 개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상명하복의 군 특성상 군 불교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군승 지원자 부족:조계종 포교원과 군승단이 실시한 군종요원 선발시험(10월29일)에 응시자가 부족해 26일 추가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등 스님 및 청년 불자들의 군승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재학중인 학인들의 군승사관후보생 지원율이 저조해 매년 일반대학에 재학중인 스님들을 군승요원(8명정도)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해마다 군승 T.O. 18명 중 5명 가량의 결원이 발생(군승사관후보생은 5명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 국방부는 2002년까지 180명(현재 120명)으로 전체군승 T.O.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군불교진흥회의 표류:군포교 일선의 최대 지원조직인 군불교진흥회가 지난 2월 박상길회장의 사임이후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10개월 이상 표류해, 부처님오신날 위문품 보내기 행사 등이 어려움을 겪는 등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어 활성화가 시급하다. 12일 총회에서 정각스님(목포 보현정사 주지)을 뒤늦게나마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지만 예산확보와 조직재건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군포교 예산난:불자들의 위문품과 성금이 줄어들고 있어 군법회에 사용될 초코파이, 음료수 등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초임 군법사들은 마이너스 통장(500만원 상당)을 사용할 정도로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신교 군복음화후원회 등의 1년 예산이 20~30억원에 달하는 반면 종단 지원금(5천여만원)을 포함한 군승단의 올해 1년 예산은 1억2천여만원에 불과해 군법당 건축비 등에 사용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군승제도 미비:천주교의 군종교구청 등과 같은 군불교위원회(가칭, 기존의 군종특별교구의 새 명칭)등의 설치가 시급히 요망된다. 군법사의 종법적 지위 향상 및 예비역군법사의 활용, 타종교 군종교구에 필적하는 종단 공식 군포교 기구로서 군 불교의 각종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열악한 군포교의 현실을 잘 아는 불자들은 포교원과 군승단이 추진하고 있는 군승제도 개혁안을 계기로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군포교 현황을 전면적으로 점검, 역량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태고종은 6일 선암사에서 새 스님 199명을 배출했다.

태고종 새스님 199명 탄생

선암사서 23기 수계식

태고종은 6일 순천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23기 합동득도수계식을 봉행, 199명의 새 스님을 배출했다. 인곡 총무원장이 전계아사리, 동호 호계위원장이 교수아사리, 일우 중앙종회의장이 갈마아사리로 주석한 가운데 봉행된 합동수계식에서 사미 156명과 사미니 43명이 계를 받았다. 전계사 인곡스님은 사미 10계를 수계자들에게 전하고 "계를 받고 가사를 수했으니 세속을 향한 애착을 버리고 자기를 계도함은 물론 하화중생에 힘쓸 것이며 청정한 신심을 발해 수행정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합동득도수계산림에 동참한 199명은 3일 출가의지를 다지고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으로써 단체헌혈과 사후 장기기증및 화장서약을 했다. 이경숙 기자

사미니 승가대학장 회의

조계종 사미니 승가대학장회의가 오는 19일 오후2시 교육원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동학사 봉녕사 운문사 청암사 삼선승가대학 학장 등이 참석, 사미니 승가대학 입학 모집 공고 시기 조정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전국 강원교직자 회의

전국강원교직자회의가 17일 오후 2시 해인사에서 열린다. 이날 지방승가대학의 졸업고사 시행 문제와 4급 승가고시제도를 대폭 개선해 기본교육기관 졸업고사와 연계, 강원 교과목 통일등에 대한 논의가 있게된다. 정성운 기자

포교사단 전국조직화

조계종, 83개 포교팀 직능·계층별 1125명 활동

20일 대전서 전국 운영위원회의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정련·포교원장)은 20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11시까지 대전 경원호텔에서 제 1차 전국 운영위원(팀장) 회의를 소집, 전국 단위의 조직을 구성한다.

지역 운영위원(포교팀장) 및 상임위원, 운영위 간사 등 포교사단 간부 1백여명이 참석할 이날 회의에서는 △포교사단 전국운영위원회 구성 △포교사단 정관 및 규정 심의 및 제정 △임원 선출 △2000년도 사업심의 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포교사단의 전국 조직화는 포교사들이 직능·계층별로 전문포교팀을 자발적으로 구성, 조직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나홀로' 포교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포교로 포교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포교사들이 서울경기지역 운영위원회 등 6개 지역 운영위를 구성하는 등 지역별·포교분야별 운영위를 구성, 자치적인 포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달라진 점이다.

한편 포교사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경기, 부산·경남지역 등 전국 5개 단위 지역 포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군, 경찰, 교도소 △장의봉사, 복지시설, 자원봉사, 상담 △사찰안내, 신행단체, 직장포교등 4개분야로 나누어 제1차 전문화교육을 실시한 결과 총 2127명의 포교사 중 1125명이 참석(52%), 전국적으로 83개의 전문 포교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포교사단의 '99년도 포교사 전문화교육 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역운영위 구성, 포교활동 자료의 축적, 연도별 포교활동 사례집 발간, 전문교육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포교사고시 704명 응시

28일 전국 8곳서 시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실시하는 제5회 포교사고시에 전국 31개 불교교양대학에서 704명(98년 674명)이 응시, 종단 혼란의 와중에서도 높은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부산 불교교육대학이 109명으로 가장 많은 불자들이 응시했다.

28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간 실시되는 시험은 서울 동국대, 부산 금정중, 대구 능인고, 광주 향림사, 전주 화엄불교대학, 대전 보문고에서 각각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22일 경이며 1차 합격자는 내년 1월과 3월 1박2일간의 연수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김재경 기자

'원불교와 불교'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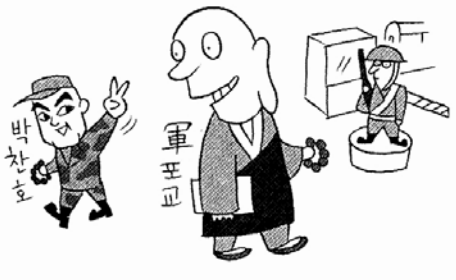
19일 원불교사상硏 주최

원광대 부설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송천은 원광대 총장)은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를 주제로 19일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종만 원광대 명예교수, 노권용 원광대 교수등이 발표에 나서고 홍윤식 동국대 교수, 박성기 원광대 주임교무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는 원불교의 종단협 가입 문제와 관련, 원불교 내의 의견조정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사인 많이 받으세요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奉 제5대 총무원장 지천당 법선종사 취임대법회 祝

제수 합장 하옵고, 무한광명이 걸림없이 법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불과 빛이 둘이 아니요,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니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였듯이 가고옴도 본래 없지만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려는 이때 본종 제5대 총무원장 지천당 법선종사 취임법회를 교계 원로큰스님을 모신 가운데 사부대중이 뜻을 모아 봉행하고져 하오니
대작불사에 바쁘시더라도 부디 법연의 자리에 동참하시어 혜광이 함께 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일시: 불기 2543년 11월 26일 금요일(음력 10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 문의 (02)733-

■ 증 명 : 일화 대종사 금암 대종사 환묵 대종사

■ 고 문 : 혜정 혜안 혜우 정각 효성 무주 월산 탄공 승덕 법성 호암 혜봉 가행 벽송

■ 자문위원 : 필종 만수 명진 승도 근원 도승 혜도 법천 성학 용락 창교 운산 상묵

■ 봉행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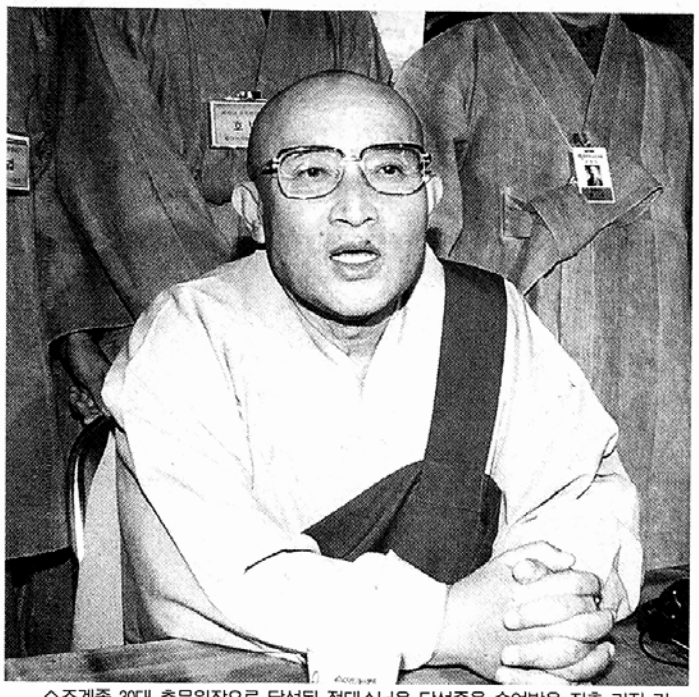
송정 지월 원봉 도명 영산 타공 능허 석호 혜청 백운 성초 혜천 성진 만성 일정 해덕 해월 법성
혜명 지오 성오 자오 연오 오현 고산 선종 봉안 혜월 법상 혜수 수덕 명관 무학 혜월 도성 성수
의정 성우 법홍 도신 도인 성신 홍인 해송 도광 삼혜 원정 대연 무애 경업 보명 성각 도행 도안
린각 지현 진허 법전 도선 도봉 도명 고원 혜성 법우 법정 진원 청호 자운 법광 도진 상원 보은
법성 광명 월산 명오 수법 지법 법현 도혜 도담 혜천 보성 명안 보덕 현장 대홍 동훈 월파 향덕
도암 만련 정원 혜일 지담 지윤 혜진 덕명 형관 진오 법륜 성원 수현 법해 법성 정현 정오 보륜
도은 수정 해천 명호 법정 영봉 선견 수월 동간 선광 혜명 혜성 광운 지견 법선 지원 선태 청곡
지엄 심진 혜성 의선 여산 정덕 만종 혜진 지광 법명 법장 지각 도원 도광 진월 우호 보현 혜능
무등 지각 혜명 마성 자명 광운 무공 수령 현설 정일 진오 혜명 일법 법인 지명 법정 지만 자성
혜산 성후 자명 명성 도백 진성 덕운 혜인 자성 자명 대원 무애 성원 보련 성인 도원 원각 각원
혜인 혜송 진홍 도현 혜륜 용각 유각 청혜 청안 지원 지명 근봉 종익 혜정 우산 혜덕 대광 보련
관음행 자비행 선심 광명화 혜련 진여심 보현 진원 계월순 보현행 보화 보광심 세안심 묘화
석암 묘법 원진 문수행 무아심 공덕행 심봉화 무량화 양영옥 대지화 목화 무상주 대덕화 보덕화 대덕화
보현행 보광월 관음행 선수행 영산 월아심 연화 영림 연화심 보광심 미타원 자비심 보광심 (무순)

■ 집행위원장 : 홍구

■ 집 행 위 원 : 현오 법안 도혜 성련

불기 2543년 11월 일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제 5대 지천당 법선종사 총무원장 취임식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회 광 합장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정대스님은 당선증을 수여받은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합종단 구현을 위해 물러섬없이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조계종 새 총무원장 정대스님

"법통 바로세워 화합구현"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정대스님은 당선증을 수여받은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상식을 벗어난 관결은 우리 종단이 본래 모습을 견지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종단의 본분을 되찾아 화합교단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잿빛 납의 하나만 걸쳐도 세상 모두를 얻은 양 당당했던 초발심의 기개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종단의 법통을 바로 세우고 화합종단 구현을 위해 물러섬없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대스님은 또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한 지선스님과 장주스님께서는 이대로 초야에 묻히지 말고 저와 함께 30대 총무원을 운영하는 주역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행종단 꼭 만들겠다"
現집행부 가능한 유지

-집행부 인선 구상은 마쳤는가.

▲먼저 나를 당선시켜준 성의를 받드는 것은 물론 반대의 표를 던진 선거인단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생각해 그 분들의 뜻을 종단운영에 반영할 것이다.

지금의 집행부는 잘 하고 있다. 부족한 나와 같이 하겠다면, 전 총무원장이 짜놓은 집행부를 그대로 이어나갈 생각이다.

-종단 화합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는 미전향장기수도 풀어주고 있다. 종교집단보다 앞서가고 있다. 징계를 받았더라도 과오를 참회하고 납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종회의원들의 동의, 원로의원과 역대 총무원장의 의견을 들어 총정스님의 재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화합을 이뤄낼 장본인이라는 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

-종단내의 폭력 추방 방안은.

▲종도들이 화합해 종단이 안정되면 폭력사태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그래서 안정과 화합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재정 공개, 사찰운영에 신도 참여 등 개혁 욕구가 많은데.

▲사회의 개념으로 불교를 재서는 안된다. 수행하는 종단이 되는 것이 개혁이다. 그러나 시대가 개혁을 요청하고 있다. 신도들이 원한다면 사부대중이 종단운영을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개혁은 젊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젊으면 된다.

-총무원청사 신축,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재정문제 해결책이 있나.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에 조속히 입주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 봄학기 전에 입주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총무원청사 건립을 공정한 입찰로 실시하되, 풍림산업이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공사비의 지불을 늦춘다면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김포학사 입주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고 풍림산업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정성운 기자

대사면 공감대 형성 '급선무'

새 총무원장의 당면과제

대사회 활동강화등 불교위상 회복
사찰재정 공개-재가 참여 확대 '절실'

98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큰 홍역을 치른 조계종단으로서는 사태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가 이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자에 대한 사면은 정대스님은 물론 지선스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면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한 것이며, 두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징계를 받았으나 여전히 스님으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스님으로 회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특히 일부 스님은 70세가 훨씬 넘는 고령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실제 사면 단행을 앞두고는 신중론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인가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민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징계의 경우 징계 당시의 실체적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 또 사면 대상자의 참회를 전제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사면과 관련해 정대스님은 15일 당선증을 수여받은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오를 참회하고 남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누구보다도 화합을 이뤄낼 장본인이라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면 시행의 적임자임을 강조해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선스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대스님은 개혁은 젊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며 "수행종단이 되는 것이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선스님을 지지했던 스님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종단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지선스님이 제시했던 공약의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지선스님이 얻은 134표는 결코 적지 않다. 한 스님은 "불교개혁의 욕구가 지선스님을 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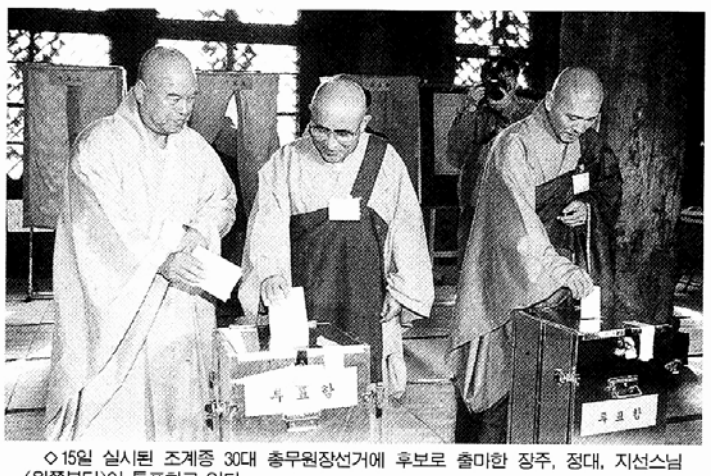
정대스님과 지선스님의 공약을 비교하면, 사회·통일분야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선스님 공약 가운데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불교교류국의 신설, 불교시민사회개발센터 설립 지원 등은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소홀했던 불교의 사회활동을 폭넓게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목표로 삼되 불교의 사회적 회향에도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교단의 한 축을 이루는 재가단체의 지원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해와 올 10월의 사태를 겪으며 재가단체 내부에서는 총무원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후 재가단체들은 회원의 확보 및 관리, 재정 확보 방안, 고유한 사업의 창출 등의 업무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태임에도 스님들끼리의 합의에 의해 사찰 재정공개와 재가자 참여 등 근본적인 변화의 단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또 승단의 다툼에 개입하며 고유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은 전체 불교를 위해서도 득될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대스님은 재가단체와 관련해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고산 총무원장 당시의 집행부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불교사회의제 개발과 사업과제에 따라 재가단체를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총무원은 재가단체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재가단체는 총무원에 협조는 하되 하부기관화되지 않는 긴장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5일 실시된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장주, 정대, 지선스님(왼쪽부터)이 투표하고 있다.

투표장 풍경

시종 차분하게 진행

○…15일 치러진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선거는 시종 차분하게 진행됐다. 13일 오후부터 올라와 있던 선거인단은 이날 오후 12시30분경부터 속속 투표장인 조계사 대웅전에 입장했다. 총무원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투표방해 등에 대비해 조계사 입구에 청년호법단 5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도 투표 전날인 14일부터 조계사 주변에 2개 중대의 병력을 투입해 순찰을 돌았다.

'결과 승복각서' 요청

○…중앙선관위원장 덕운스님은 투표에 앞서 "투표 결과에 승복하겠으며, 결과에 대해 사회법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후보들의 각서를 낭독한 데 이어 개표에 앞서서도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을 받아오도록 각 후보의 선대본부장들에게 요청하는 등 투표 이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을 썼다. 또 종단자문변호사 3인이 투·개표 과정에 참관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내·외신 취재 열기

○…중앙선관위는 오전 11시부터 선거업무 관계자 이외 사람의 대웅전 출입을 통제해 기도하러 온 10여명의 신도들은 대웅전 회랑에 자리를 펴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투표장면 촬영을 위해 20여분 동안만 취재진에게 개방하고 개표완료 때까지 출입을 통제했다. 기자들은 투·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대웅전 문틈으로 투표장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자리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교계기자들은 물론 중앙일간지 방송사 로이터통신 등 50여명의 취재진과 조계사 인근의 재가단체 회원들이 나와 선거과정을 지켜보는 등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개시 예정시각인 오후 1시 삼귀의 반야심경봉독 중앙선관위원장 덕운스님의 인사말, 투표 방법 안내 등 간단한 의식을 치른 뒤 곧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목어

새천년 해돋이

사람이 햇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는 없다. 그런 만용 부리다 눈이나 멀지. 그뿐인가. 반짝이고 싶은 모든 것은 햇빛있는 대낮엔 그 꿈을 포기해야 한다. 하늘의 별들이 대표적 예다. 밤이 되면 보석처럼 온 하늘을 수놓는 별들은 그래서 밤에만 빛을 낸다. 밤하늘의 별들은 낮보다 우리들의 상상력, 철학적 성찰이나 종교적 심성을 더 깊게 해주는 신비감을 지니게 되는데…. 하지만 요즘 도시에서야 '문명의 불들', 그 광해(光害)로 밤에도 별들의 신비를 체험하기란 쉽지 않다. 종교심에서 멀어져만 가는 오늘의 인심이 이 같은 '문명의 불' 탓은 아니겠는지.

어쨌거나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태양도 사람 눈높이에서 정겹게 마주 바라다볼 수 있는 때가 있다. 일출과 일몰, 아침 해돋이와 저녁 해넘이 때가 그렇다. 특히 바다 수평선으로 떠오르고 지는 해는 볼 때마다 경탄과 황홀감을 더해준다. 그렇게 날마다 뜨고 지는 해는 어느 특별한 날이라해서 더 멋있는 것도 아닐텐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모양이다.

얼마 안있어 2000년 1월 1일이 된다. 백년도 아닌 '새천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야 사람들 스스로 그런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에 사람들 스스로 매혹되는 것이겠지만 그런들 또 어떠랴.

새천년 해돋이를 보겠다는 이들의 염원으로 지금 동해안 숙박업소는 예약마감 끝이다. 12월 31일 서해에서 해넘이를 보고 밤새워 동해안으로 달려가 1월 1일의 해돋이를 보겠다는 극성과 또한 없지 않다.

하지만 새천년맞이로 들뜨게 될 동해안 바닷가에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요즘 동해안의 이름있는 바닷가는 이미 모래사장과 하늘, 바다와 파도, 빛나는 별들이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밤이면 휘황한 가로등 불빛이 넘치고 철야하는 포장마차에 바닷가는 온통 폭죽과 불꽃놀이로 범벅이 된다.

지난 천년, 그 문명의 폐해 위에 정신의 새벽을 열게 될 새천년맞이는 그런 모든 '문명의 불'을 끄고 쏟아지는 별빛, 그 신비의 너울 속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해돋이를 기다려 볼 수는 없는 것일까.

김징자(언론인·본지 논설위원)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모시는 글

삼보에 귀의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신도님들의 각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부처님의 정골 진신사리를 모신
이곳 통도사에서는
연중행사의 하나로 제방의 여러 큰스님들을 모시고
화엄산림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화엄경 한 구절과 한 게송만 들어도
고통에서 헤매이는 영가들과 중생들은
복과 지혜가 갖추어져 성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고혼의 위패를 봉안하여
천도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시고 다함께 성불과
이고득락 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1999년 11월

다 음

1. 입재일 : 1999년 12월 8일(음력. 11월. 1일) 오전10시【수요일】
   첫째주 : 1999년 12월 12일(음력. 11월. 5일) 오전10시【일요일】
   둘째주 : 1999년 12월 19일(음력. 11월. 12일) 오전10시【일요일】
   세째주 : 1999년 12월 26일(음력. 11월. 19일) 오전10시【일요일】
   네째주 : 2000년 1월 25일(음력. 11월. 26일) 오전10시【일요일】
   회 향 : 2000년 1월 6일(음력. 11월 30일) 오전10시【목요일】
2. 장 소 : 통도사 설법전
3. 회 비 : · 100,000원정(1개월숙식비,비표부착)
   · 50,000원정(반산림)
   · 영가천도1위당 7,000원정
4. 문의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통도사종무소 (0523)382-7182
6. 접수처 : 회계실 (0523)382-7187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증명 방장 월하 대종사
주지 최신허

통도사 : (0523)382-7182 (종무소)
부 산 : (051)816-2241 (부산포교원)
532-3042 (금화사) 522-3202 (청송암)
802-2887 (보현사) 646-6461 (보광사)
809-0073 (성도암)
마 산 : (0551)246-8393 (마산포교당)
창 원 : (0551)255-6359 (구룡사)
울 산 : (0522)211-3340 (해남사) 251-0410 (등축사)
251-4602 (월봉사) 287-0088 (옥천암)
밀 양 : (0527)354-3296 (무봉사) 252-1150 (표충사)
352-0125 (홍계사)
창 녕 : (0559)533-2295 (창녕포교당) 521-0018 (삼성암)
대 구 : (053)474-8228 (관음사) 783-8414 (보광원)
421-7488 (자비의 전화)
대 전 : (042)535-3624 (무성사)
서 울 : (02)575-7766 (구룡사) 395-9815 (보현사)

교통편 OK 고속관광 (부산) 051-635-7001

▶ 부산시간 : 온천전철역앞 오전8시부터 9시까지(20분간격출발)
· 대중교통 - 명륜동 동부주차장에서 신평행 대 20분간격 출발 (오전6시30분부터)
▶ 울산 태화관광 버스편 울산 방어진 일산해수욕장 (07:20) → 현대APT → 중구청 → 태화H/T → 공업탑 R → 무거 R → 통도사 (매일은행)
· 대중교통 울산 - 통도사(직행) 울산시외버스 주차장에서(오전7시30분출발)
▶ 입재, 재일, 회향일은 차량 수시 운행



갑사 괘불 1백년만에 햇빛

Focus

국보 제298호 갑사 괘불이 1백년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불자들은 7일 갑사 대웅전 앞마당에 높이걸린 이 괘불의 자비롭고 넉넉한 미소의 불보살들을 친견함으로써 이 땅에 극락정토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새천년을 맞이하게 됐다.

1650년 조성된 갑사 괘불은 세로 12.47cm, 가로 9.48cm 크기로 비로자나불이 화엄교리를 설법하는 화엄장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3단 구도의 괘불은 상단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여 천상세계를, 중단에는 좌측에 노사나불, 우측에 석가모니불을 두고 설법을 청하며, 하단에는 사리불과 범천 제석천 사천왕등 외호중으로 구성돼 있다.

괘불은 옛부터 국가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왕후장상과 전 민중이 모여 한마음으로 야외에 단을 세우고 모신 호국불교의 상징이기도 하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청년불자와 세계평화' 논의

태국 WFBY 제1회 지도자 세미나

1~7일 태국 방콕 소재 담마싯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IEAS)에서 열린 WFBY(세계불교도 우의청년회, 한국본부장·이치란) 주최 제1회 불교청년지도자 세미나에는 한국 네팔 대만 말레이지아 스리랑카 싱가폴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80여명의 대표자가 참석, 인류의 당면과제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불교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논의했다.

각국 불교대표들은 청년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불교적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 수행, 추진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고 8일 귀국한 국제포교사회 부회장 선업스님 등 한국대표들은 "한국불교계가 세계불교계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이에 맞게 자기조직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들은 "세계청년불교 활동에 참여해 온 대한불교청년회와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등 불교단체들이 이같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자인 서명사업과 회원증대 사업 등 WFBY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 불교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펼쳐야 하며, 무엇보다 한국불교 종단이 안정적인 기조 위에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WFBY 주최 제1회 불교청년 지도자 세미나 참석자들.

교차로

포항 호국해룡사 수계법회



석주 서울 칠보사 조실스님은 28일 오전 군포 교단체인 일불회가 주관하는 포항 해병대 교육단 호국해룡사 법회에서 수계한다.

태국·라오스 불적 답사



혜초 서울 사간동 법륜사 주지는 23~29일 태국과 라오스의 불교유적 성지순례를 떠난다.

충남경찰청 경승실 봉불식



법장 충남지방경찰청 경승실장(수덕사 주지)은 6일 경승실에서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감로사 자선 하루찻집



혜총 부산 감로사 주지는 16일 부산 서면 르네상스 커피숍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감로사 자선 하루찻집을 연다.

순직 경찰관 위령제



성인 부천 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스님은 18일 오전 11시30분 서내 경승법당에서 제9회 호국 순직경찰관 위령천혼제를 봉행한다.(032)654-1548

불우이웃에 쌀 전달



우향 성남시불교사암연합회장 스님은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백미 120가마(40kg짜리)를 전달한다.

격주간 '불교저널 21' 창간



성관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수원포교당 주지는 1일자로 대판 8면의 격주간 불교종합신문인 〈불교저널 21〉을 창간했다. 이 신문은 불교문화 창달과 정체성 형성을 위해 정론을 펼치게 된다.

의정부서 경승실 개원

혜승 의정부경찰서 경승실장은 20일 오전 10시 서내 4층 법당에서 개원법회를 연다. 이날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이 경찰서법우회 총무인 강성식 민원실장(경사)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여한다.

日 세계불교학술회서 발표



목정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10~13일 일본 立正대학교에서 열린 세계불교학술회의에서 '심핵(心核)과 물핵(物核)'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좋은벗들'에 성금 500만원



김재웅 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는 6일 서울 혜화동 금강경독송회 법당에서 사단법인 좋은벗들에 성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또 8일 장충단공원에서 결식노인 점심 무료공양을 실시하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에도 공양 후원금 5백만원을 보시했다.

'성인병과 식생활' 특강



권기종 등국대 사회교육원장은 16일 오전 11시 동대 90주년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노완섭교수(식품공학)의 '성인병과 식생활' 특강을 개최했다.

군승의 날 기념행사



이회용 군승단장은 23일 군승의 날을 기념해 오전 10시 군승 정기총회, 오후 2시20분 (가칭) 군불교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 및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연다.

'절, 알고보니…' 펴낸 성재도 원장

"절이 중생곁에 다가왔으면…"



"멀게만 느껴지는 절을 세상 속으로 부쩍 다가서게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절, 알고 보니 세상 속에 있더라〉('날마다 좋은날' 刊)라는 제목의 불교기본입문서를 출간한 부산불교교육원 성재도 원장의 말이다. 〈절 알고 보니.... 〉는 11년간의 부산불교교육원에서의 불교교육이나 우리문화기행 답사 경험을 통해 사찰에 갈 때 이 정도만 알고가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엮은 것.

성원장은 "눈에 보이는 것속에 들어 있는 불교 가르침, 옛 선지식들과 수행자들의 마음들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책 내용을 소개했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마음 다스려야 좋은소리 빚어"

첫 문하생발표회 가진 주운숙 명창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마음 다스리기가 전제돼야 합니다. 바르고 안정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를 때 관객이 감동하게 되더군요."

지난 96년 전주대사습놀이에서 관소리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운숙 명창(46)이 관소리 다섯마당 중의 하나인 심청가를 29명의 제자와 함께 연이어 부르며 사제간의 정의을 다진 발표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13일 대구 서구문화회관에서 마련한 제1회 주운숙 문하생발표회가 바로 그 행사.

매일 새벽5시 한시간의 좌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씨는 고행과도 같은 득음의 여정에서 힘에 겨울 때에는 1080배 수련이나 기도를 통해 극복했으며, 제자들에게도 늘 바른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지난95년 대구에 주운숙 판소리연구소를 설립하고 제자를 거두기 시작한 후 4년만에 첫 문하생발표회를 갖는 주씨는 "제자들이 대견하게 여겨지는 한편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면서 "선배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심청가 기능보유자이자 우석대 교수인 이일수 명창과 이명희 명창등에게 사사한 주씨는 판소리의 불모지인 영남지방에서 판소리보급에 매진하고 있다.

주씨는 "앞으로 자질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참된 소리꾼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20개 단체에 가입…부르면 어디든 달려가

자원봉사 1만시간 표창받은 가수 남강수씨

"벌이는 고사하고 사비를 털어 봉사활동에 나서는 남편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을 법도 한데 한마디 불평없이 묵묵히 곁에 있어준 아내(김경애씨)에게 오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남강수 대한불자가수회 회장(61)이 10월27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자원봉사 1만시간 유공표창장을 받았다. 연예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 87년 당시 무궁화봉사회 민기붕 회장과의 인연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거의 매일 하루 3시간씩 자원봉사활동을 해 온 결과다.

"새벽 4시 집에서 출발해 만남의 광장에서 우동 한그릇 먹고 전국의 이곳저곳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고 회고하는 남씨는 지난 85년부터 현재까지 영등포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갱생원에서 위문행사를 벌여 왔다. 전국의 노인교실, 주부 가요교실, 경찰청불교회에 나가 음악교습봉사를 실천하는 등 활동 중인 봉사단체만 20개에 이른다.

대한불자가수회 회장을 맡아 불자가수들의 맏형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남강수회장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인종과 종교, 계층의 차별없이 어려운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를 할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김영한 보살 별세



시가 1000억원대 요정 대원각을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에게 시주해 화제를 모았던 김영한 보살이 1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빌라 맨션 205호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51년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대원각을 구며 돈을 모은 김 보살은 87년 〈내사랑 백석〉이란 책을 썼으며, 백석문학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동을 받아 발심한 김 보살은 96년 대원각을 보시해 일생을 불교적으로 회향했다.

普門寺 海水觀音 造成佛事
募緣文

洛迦山 普門寺는 觀世音菩薩眞身이 在位하는 常住處요, 衆生의 願力에 따라 成就를 충만케 하고 示現을 自在하는 觀音의 聖地입니다.

뜻과 願을 모아 크게 구하면 크게 얻게하고 根機에 따라 이룸을 넉넉하게 하니 大悲와 위신력이 普門寺에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은 千手千眼으로 살피어 구제하고 應身이 현신하여 공덕을 이루게 하는 보살이 觀世音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항상 加被와 신령스런 感應이 일고 뭇 衆生이 한량없는 利澤을 입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神通妙用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뜻을 모아 願을 세운 사람들은 實利와 眞味를 맛보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觀音의 聖地에 全國 佛子들의 인연을 모아 한국불교 전통적인 관세음보살상의 아름다움과 이 시대의 예술성이 조화된 海水觀音像을 한국 조각계의 거장들께 지명공모하여 가장 성스러운 상을 造成 하오니 빠짐없이 불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德勝은 한줌의 흙을 보시하여 훗날 전륜성왕이 되었고 阿于은 한푼의 희사로 염부의 王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佛事에 인연을 맺은 사람은 생각마다 觀音이 顯身하여 한량없는 福田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동참문의 전화 (032)933-8271~3 팩스 (032)933-8270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동참계좌번호 국민은행 252-25-0003-990 (예금주 보문사)
우 체 국 100479-0083202 (예금주 보문사)
지로번호 7626131

대한불교조계종 보타낙가산 보 문 사 주 지 香 寂

탐방 포항교사불자연합회



◇포항교사불자회는 11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철웅스님(파계사 성전암조실)을 초청한 가운데 불교사상강연회를 가졌다.

학생포교 초석 다지는 모임

불교사상강연회 개최
'학생지도 방안' 연구

포항에서는 2년마다 수많은 사찰과 신행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불교사상강연회가 열린다.

포항불교교사회(회장 이동선 · 상도중교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5번째로 모임의 입지를 구축하고 포교에 이바지하는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11일 열린 행사에서는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함을 설치하는등 불우이웃돕기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포항지역 관내 90여 초 · 중 · 고 불자교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89년 2월. 학생포교의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 효율적인 신행활동을 펴기 위해서였다. 회원수는 80여명. 한때 회원가입이 주춤한 적이 있었으나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차츰 늘고 있는 추세다.

포항불교교사회는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저녁7시 죽림사에서 정기법회를 갖는다. 여기서는 여느 법회와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회원들이 앞에 나와 불교와 인연을 맺게된 경위를 밝히는 '나의 불연' 코너. 상대방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효과를 얻고 있다. 두번째는 '불자상식' 강좌. 회원중에서 조계종 포교사를 겸하고 있는 3명의 선생님들이 불교상식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으로 회원들의 자질을 십분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번째는 '여시아설' 시간. 이동선 회장이 금강경의 구절에 대해 발제하면 회원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시간으로 일종의 경전토론회인 셈.

이와같이 포항불교교사회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참여지향적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자발적인 교리무장과 일상에서의 실천수행을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지순례나 하계수련회도 개최하고 타지역 교사불자들과의 교류를 추진하는등 실속있는 신행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회장은 "불교학생회 개설등을 통해 학생포교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직장불자회 자매결연 새바람

서불청-불자약사보리회 매월 무료검진 봉사 활발

기관차법우회-중계복지관 성지순례 · 노인 위안잔치

경희의료원-불자가족회 환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

정기법회를 통한 자체 신행활동 외에 대외 활동에 소극적이던 직장 직능불자회가 지역 복지관을 비롯한 각 단체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불교청년회와 자매결연를 맺은 대한불교조계종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숙희)가 대표적인 예. 10여명의 약사들이 젊은 청년불자들과 손을 잡으면서 일회성 행사에 그쳤던 '무료 검진 및 투약' 활동을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매월 정기화하고 있다. 무료 검진을 받기위해 둘째주 일요일 새벽부터 탑골공원에 몰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불자약사보리회의 일손을 서울불교청년회가 덜어주면서 IMF실직자와 불우노인을 위한 무료검진 및 투약 서비스에 날개를 달았다.

또 개인 신행활동에만 주력하다 실천행을 모임취지로 발전시킨 청량리기관차 불교법우회(회장 장만식)는 96년 서울시립 중계노인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봉사활동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 개신교, 천주교 모임과 더불어 매월 복지관에서 법회를 여는 것은 청량리기관차 불교법우회의 몫. 그 뿐 아니다. 정기적으로 거동 불편한 수용노인들과 함께 사찰순례를 다녀오거나 위안잔치도 개최한다. 법우회 허기림 지도법사는 "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복지관 사업에 동참하면서 간접적인 포교효과는 물론 회원들 각자가 '나누는 소중함'을 알게 되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포항 운전불자기사연합회(회장 권용재)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연을 맺으면서 사업방향을 확대수정했다.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포교사라는 긍지로 '달리는 법당' 택시를 모는 포항 운불련 회원들은 복지관에서 차량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신행활동과 함께 각종 봉사를 벌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포항 운불련은 현재 포항시 사회복지과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기도 하다.

직장직능불자회끼리 자매결연을 맺어 포교일선에 나선 곳도 있다. 10월28일 조인식을 가진 경희의료원불자회(회장 황보추)와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가 그 곳. 지난 6월 불자가수회가 경불회 창립법회 때 사회에서부터 집전, 반주에 이르기까지 행사진행을 도맡아 도와주면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경불회와 불자가수회는 경희대병원 로비에서 '경불회 창립 기념,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연 이래 격월로 음악회를 열어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같은 직장직능불자회의 움직임은 신행활동 위주로 운영돼 온 직장직능불자회에 실천행의 단초가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불법을 사회에 환원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확산될 전망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서울 시설관리공단 청정회 창립

"천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뵙고 사무친 환희심으로 으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말로써 살아가고자 충심으로 서원하오며 한사코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지심으로 발원하옵니다."

서울시 투자기관 서울시설관리공단 불자모임 청정회가 불자직원들의 지극한 발원 속에 6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창립됐다. 청정회는 회장을 따로 두지 않고 몇몇 실무부장들을 주축으로 전 회원이 주체가 돼 조직을 운영한다.

김홍렬 총무부장은 인삿말을 통해 "그동안 연이 닿지 않아 부처님법을 배우고 널리 펴지 못 했다"면서 "청정회 창립을 계기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범이 되는 불자로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법사 남전스님(정혜사 주지)은 법어에서 "절에 처음 와 내는 마음이 초심(初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이 초심이다"며 "앎의 많고 적음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한마음을 받치는 초발심의 신심으로 청정회를 꾸려 나가기 바란다"고 설했다.

청정회는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5시(장소 미정)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재적사찰 지정 및 체계적인 교리 공부 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상대존중하는 불자 되자"
금융단 불교련 합동법회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김윤하)는 6일 조흥은행 본점 강당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조흥은행과 강원은행 합병기념 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법회는 회원들의 발원문 낭독에 이어, 전국금융단 불교연합회 약사보고, 회장단 인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전 교육원장 암도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음가짐이 건실할 때 올바른 몸가짐과 실천이 따를 수 있다"며 "신(身) · 구(口) · 의(意) 3업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를 명심해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 · 농협중앙회 한빛은행 금융감독원 불교회 등 금융단불자 1백20여 명이 참석했다.

도필선 기자

우리 모임에선

광주 운불 장애인 나들이

광주운전불자기사연합회(회장 김용문)은 10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광주 우산복지회관과 공동으로 장애인 가을 단풍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12명의 광주 운불련 회원이 차량봉사에 참여해 보성 대원사, 승주 낙안읍성, 선암사를 순례하고 장애인들과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을 통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편 광주운불련은 21일 광주 구각사에서 영호남 운불련 친선교류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무량회 8돌 기념법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완배)는 3일 올림픽회관 1층 법당에서 창립 8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불자회원 1백여 명과 한전 반야회, 시설관리공단 청정회 회장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행사는 1부 기념법회 2부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원장(동국대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로 마련됐다.

노무현의원 후원의 밤

국민회의 연등회 부회장 노무현 의원(부총재)은 3일 부산 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노무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더 큰 정치인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불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성해스님 선 서화전 개막

성해스님(선학원 중앙선원장)이 백상기념관에서 18일까지 '만공대선사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선서화 작품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지혜인' '반야심경' 등 초서에 일가견이 있는 성해스님의 서예를 비롯 원담 · 철웅 · 탄허 · 구산스님의 선화 등 1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회 수익금은 선학연구자와 선수행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조계사청년회장 취임식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조계사청년회 전준호 회장, 이문수 · 강정윤 부회장 등 제18대 신임 회장단 취임법회가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사 부주지 지홍스님을 비롯해 청년회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전준호 신임 회장은 81년 조계사 학생회 활동을 시작 오늘까지 청년회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지난 6월 총무원장 표창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대구 지산정사 석가모니불 점안법회

대구 수성구 지산정사(주지 선타)는 10일 석가모니불 봉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석가모니불은 석자크기로 복장에는 30여가지 성물이 봉안됐다. 조계종원로회의 부의장 도원스님을 비롯 사부대중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선타스님은 "사찰낙성식은 내년에 할 예정"이라며 "지산정사는 불자들의 수행공간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무각사 다원 예술제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주지 광민)는 5일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다원예술제를 열고,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함께 신심을 북돋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음악회와 하서각 전시회등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진 이번 예술제에는 대금 명인 원장현씨가 '날개' '낙화' '소쇄원' 등을 연주했다.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가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1999년 12월 1일(수) 오후7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정토 단전호흡 실습생 모집

우리 인간은 물질적 에너지와 정신적 氣에너지로 살고 있습니다.
정토 단전호흡을 바로 알고 배우면 탐진치를 없애고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으며,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필요한 생활 수행이오니 건강을 위해 많은 동참 바랍니다.

1.강의일시	1999년 12월 7일(화) 오후3시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강 사	채윤석 법사
4.회 비	월 3만원(실습교재 제공)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동산반야회
동산문화센터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아미타 부처님을 신행하는 정토불교강좌(3년과정)

'2000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정토법사 3년 과정의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인도정토사 · 중국정토사 · 한국정토사 · 영종집요 아미타경 · 무량수경 · 관무량수경 · 왕생론 · 반주삼매경 · 무량수경종요 · 보왕삼매론 · 미타예참법 · 정토미술	교수진	한보광스님(동국대) · 장휘옥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 · 태 원스님(승가대) 주명철교수(동국대) · 정태혁교수(동국대) 강동균교수(동아대) · 김영미교수(이화대) 혜 경스님(무설정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11월 1일~ 99년 11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9년 12월 2일(목)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아미타정토대학

이렇게 들었다

禪, 인류의 대안 "한 생각 맑은마음 부처 이룬다

21세기의 인류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대안으로 그 어느때보다 선(禪)이 주목받고 있다. 참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선관련 서적이 속속 출간되고 있으며 패션, 인테리어, 화장 등 의식주에도 선 스타일이 유행이다. 동국대 한국선학회가 내년 3월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최근 가졌고, 불교선학연구원은 '21세기와 한국선'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자성을 바로 볼수있는 최상의 길이라는 선. 선과 관련한 경전과 조사들의 말씀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만일 잠깐동안만이라도 좌선하면 항하사수(恒河沙數)의 보탑(寶塔)을 쌓은 것보다 나으니라. 보탑은 마침내 허물어져 티끌로 돌아가지만 한 생각 맑은 마음은 필경 부처를 이룬다. 〈육조단경〉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일체 번뇌가 끊긴 대해탈에 이르는 근본이며 도에 들어가는 요긴한 문이고 부처님의 조(祖)가 된다. 〈홍인대사〉

▨가는 것도 앉는 것도 참선뿐이라 어묵동정 언제나 편안하구나. 창과 칼을 들이대도 늘 태평하고 독약을 먹인대도 늘 한가롭네. 〈선종영가집〉

▨선이 곧 움직임이라고 한 것은 세간의 선이라는 것이 비록 산란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계의 모양을 취하는 마음을 내어 그 움직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능히 이러한 움직임마저 여읜 선이라야 능히 참다운 선정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생하지 않는 선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참된 선정은 그 성품에 생하고 동함이 없으므로 선의 성품은 무생이라 한 것이며 그러면서도 단순한 무생이 아니라 또한 적멸에 머무름도 없으므로 선의 성품은 무주라고 한 것이다. 〈원효어록〉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함도 아니고 청정에 집착함도 아니며 또한 움직이지 않음도 아니다. 움직이지 않음(不動)을 닦으려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남의 옳고 그름과 선악과 허물을 보지 말라. 이것이 자성(自性)의 움직이지 않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은 움직이지 않으나 입을 열면 남의 시비 장단과 좋고 나쁨을 말하게 되니 이것은 도(道)를 등지는 것이다. 마음에 집착하거나 청정에 집착하면 곧 도에 막히니라. 〈육조단경 좌선품〉

▨불제자들은 각(覺)과 관(觀)을 쉬고 마음의 평정을 취하여 정(定)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2선을 얻는다. 〈중아함경〉

▨마음을 관하는 이 한가지 법이 모든 행을 다 거두어 들이는 것이니, 이 법이 가장 간결하고 요긴하다. 마음이란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 것. 그러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만 가지 힝을 다 갖추게 된다. 〈달마 관심론〉

▨어떻게 마음을 고르는가? 말세에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른 원력을 가진 사람들은 적고, 삿된 것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를 테면 명예와 이익을 구하려고 그저 참선하는 겉모습만 보이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동은 헛되이 세월만 보내게 되어 선정을 얻을 수 없다. 올곧게 선정을 닦는 마음과 그 이치가 상응하면 자기자신도 제도할 수 있고, 남들도 제도할 수 있어 드디어는 위없는 도에 다다르게 된다. 〈원효어록〉

▨홀로 앉아 선정을 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늘 이치와 법도를 지켜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우환을 똑똑히 알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경집〉

▨선(禪)에는 가시(刺)가 있다. 계를 가지는 자에게는 계를 범할 가능성이 가시가 되고 근(根)을 보호하는 자에게는 몸을 치장할 가능성이 가시가 되고, 모든 사물의 이치가 이와 같다. 〈중아함경〉

▨배우는 이의 경지는 여래의 경지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배우는 이의 경지는 다섯가지 덮개를 끊고 머무르는 것이고, 여래의 경지는 다섯가지 덮개를 끊고 다시는 자라나지 않게 뿌리까지 끊는 것이다. 〈가마경〉

▨거친 선정을 닦는 것은 거치른 말(馬)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곡식만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탐욕의 번뇌에 따라 선정을 구한다. 〈집아함경〉

▨출가자들은 탐욕을 버리고 악한 법을 여의며 각(覺)과 관(觀)으로써 욕계의 악을 떠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初禪)을 얻는다. 〈중아함경〉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 할 수 없다. 현실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생각이 쉬어버린 무심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온갖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마음이 고요에 빠지지 않고 또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이와같이 앉을 수 있다면 이는 부처님이 인정하는 좌선일 것이다. 〈유마경〉

목.소.리

참회정진에 들어가며



혜진
나눔의집 원장

승가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제가 수행의 현장으로 삼고있는 이곳 나눔의 집에서 단식정진에 들어갑니다.

시시비비로써 오늘의 한국불교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몇가지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날의 조계종단에는 내부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존재합니다. 모든 승려는 경제적 평등과 복지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둘째, 신도들에 의한 보시는 몇몇 승려의 재산이 아닙니다. 모든 재정은 투명해야 하며 신도들은 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불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인간방생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넷째, 불교의 자주권은 종종 집권자와 권력지향적인 일부 권승들이 밀착되는 과정에서 훼손되어 왔습니다. 불교는 종교로서의 자주권 회복과 그 존엄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종단분규가 해마다 치르는 한국불교의 고질적인 병폐니 이 순간만 지나면 조용해진다고 말하지 맙시다.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나면 종단이 안정될 것이라는 말도 이제 더이상 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각자각자가 깊은 참회의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으며 나아가 사회를 일깨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종교의 역할 또한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종단의 분규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모르는 곳에서 수행과 실천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불제자와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의 단식참회가 한 개인의 참회를 넘어서서 침묵하는 다수의 뜻이라는 것을 사부대중 모두가 깨달아 정진과 개혁을 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기 2543년 11월 9일

*이 글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살며 수행하고 있는 혜진스님이 9일부터 10일간의 참회단식에 들어가며 발원한 내용입니다.

열 린 마 당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15일 치러진 제 30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일반 정치판과 다를것없는 색깔론이 제기되는등 청정승단의 선거가 불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이라는 현 선거제도가 부처님 가르침과 전통적 승가의 정신에 맞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4년 개혁종단이 출범하며 도입한 선거제도가 교계의 현안으로 떠올라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과 '경선을 통한 직접선거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불가의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경선은 분파조장 화합 저해"



지광〈익산사암연합회 회장〉

원래 불가의 선거는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추대하도록 돼 있다.

현재의 경선제도는 승가의 분열과 위계질서 파괴라는 막대한 수혈을 감수하고 있다. 총무원장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상좌나 손상좌뻘 되는 선거인단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은 승납을 강조하는 승가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다.

또 이런 선거제도에서는 확실한 다수를 점하기 위해 승가내 분파를 조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파에 가입하기를 종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선거로 말미암아 유실되는 삼보정재도 무시할 수 없다.

차제에 총무원장 소임도 권한을 줄여야겠지만 경쟁적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종단내부의 과열현상은 자칫 종권다툼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두렵다.

직접선거의 경우 과열혼탁한 상황과 승단위계질서 파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이나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로의원을 비롯하여 각 본사 방장및 회주스님, 계단위원, 종회의원이 비밀투표로 적합한 소임자를 뽑아 합의추대하는 형식을 취하는 형태로 보완할 경우 선거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

"경선 불가피…제도보완 필요"



혜담〈광주 각화사주지〉

조계종단은 권력있는 몇몇 스님들을 위한 종단이 아니라 전 종도들에 의한 종단이다. 선거는 그런 전 종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선거는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 종책을 내놓고 종도들의 판단을 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종단의 미래상을 그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부작용보다 장점이 많다. 때문에 당분간은 경선을 통해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 제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로 인해 전국의 스님들이 선거에 술렁이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승가의 위계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교구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 각 교구 본사 주지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선거를 치름으로써 선거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선거에 임하는 종도의 의식전환이 관건이 될 것이다.

조계종은 선거를 통해 자체역량을 한 계단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나친 과열이나 아집, 반목적인 선거행태를 지양하고 출가 당시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진정 불교의 미래를 위한 선거가 되도록 공명정대한 경선과 바른 선택을 종도들은 바라고 있다.

"산중공의제 추대형식 검토"



조기룡〈동국대행정학과 박사과정〉

총무원장은 일반사회조직의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와는 다른 종무행정 즉 종교행정의 대표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총무원장선거법에는 그런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세속법에서 본 뜬 것으로 보이는 기술적 조항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실정이 이러하니 세속을 이끌어갈 종교가 그 자체에 종헌·종법을 가지고도 세속법에 해결의 길을 구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마는 것이다.

종헌·종법이 세속법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그 기술성에서 역시 헌법과 법률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각종 선거법이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정된 것은 아니기에 불교의 전통과 신성함을 살릴 수 있는 선출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불교의 근본정신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율장을 등한시하고 세속법에 의지하는 것은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불교의 전통을 구현하고 사부대중의 공의를 담아낼 수 있는 율장에 바탕을 둔 총무원장선거제도 나아가 종헌·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산중공의제에 따른 만장일치 추대 형식도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목탁소리

김 재 경
〈취재1부기자〉

포교원-교육원 원장도 바뀌나

"5년 임기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요?"

조계종 포교원과 교육원 종사자들은 15일 새 총무원장 스님이 선출되면 또다시 각 원장 스님이 교체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1월21일 원장스님이 취임한지 1년도 안돼 또다시 포교원과 교육원의 책임자가 바뀐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책방향과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3원 체제가 출범한 지 5년도 안되는 동안 포교·교육원장 스님이 각각 3번씩이나 바뀌었다. 조계종이 이렇게 3원으로 별원을 한 것은 고유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가자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고 책임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주 바뀐다면 행정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종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새 총무원장 스님이 당신의 의도대로 종무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두 원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뜻이 없다 하더라도 현 원장과 부장 스님들이 스스로 사표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래저래 2 원장의 임기를 보장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종무원들은 1년도 채 안된 짧은 기간에 총무원장이 교체된 만큼 2 원장 스님만은 유임되는 것이 종무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교계에서는 별원 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관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종단의 교육·포교 불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기 5년(1차에 한해 중임가능)인 포교원장과 교육원장이 그대로 유임될 지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결국 바뀌어 버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봉 1,000年 기도 大佛事 대한불교 금강총림 기공식 및 특별법회 축

모시는 글

귀의(歸依) 삼보(三寶)하옵고 우리나라 10대승지(十大勝地)의 하나인 소백산(小白山) 정봉(비로봉)에서 30리 아래 금계동 자락에 1000년 기도 대불사(大佛事)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불문에 스님 및 재가불자(在家佛子)님들을 모시고 금강총림(金剛叢林) 창건(創建) 기공식 법회를 갖게 됨을 널리 알립니다.

소백산(小白山) 금강사(金剛寺) 자리는 신라시대의 금강사라는 사지(寺址)로서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법기보살(法起菩薩)이 계신 정토(淨土)로서 직령(直靈) 줄기 혈장에 화엄(華嚴)에 총본사(叢本寺)의 도량(道場)을 창건(創建)하여 우주 현재의 그대로 부처를 각(覺)하여 일시 성불(成佛)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부처이후에 처음 화엄도량(華嚴道場)을 조성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소백산(小白山) 금강사(金剛寺)는 올바른 승맥(僧脈)을 이을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 훌륭한 스님을 육성 및 배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1000년 기도 대불사(大佛事)에 많은 동참 바라옵니다.
성불(成佛)하십시오.

주지 혜원 합장

일 정

11월 27일, (음) 10월 20일

- 법 회 -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인사말씀
혜원 큰스님

◇법문
적멸자 월공 대선사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연예인 축하공연
○ 불교 합창단
○ 불교 풍물놀이

불사동참 안내

새천년 맞이
1,000年 기도 등달기

천년기도대불사 등접수 : 십만원
결망 불사 : 삼만원

· 송금방법 ·
235-016694-01-011
기업은행 / 예금주 : 금강사

금강사 오시는 길



연예인 축하공연

가 수 남 진
송대관
태진아
현 미
현 숙
최진희

M C 엄용수

기념품 증정
금강호신불

추첨을 통하여
108분에게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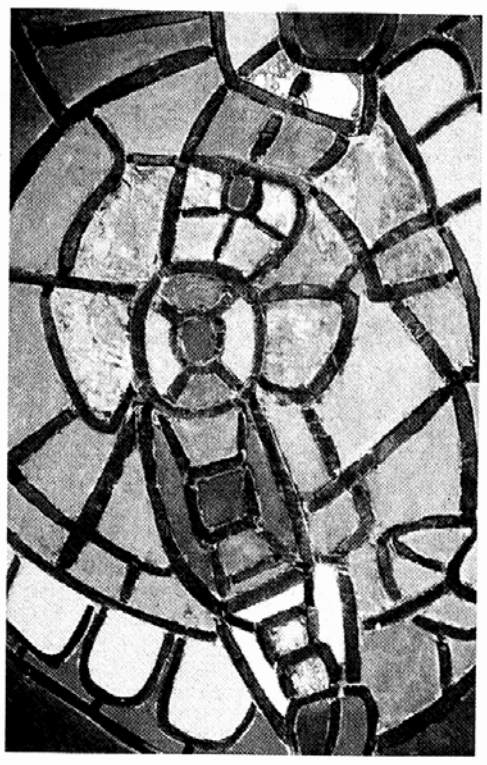
대한불교 금강총림 소백산 금강사 주지 혜원 합장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711
전화 (0572) 636-6546 / (0572) 632-6546
팩스 (0572) 632-6545

불교사상 녹인 추상화 감상

하인두 10주기展 28일까지 가나아트센터

'魂불, 빛의 회오리' 등 1백여점 출품



◇하인두作 '만다라'. 70~80년대 국내 화단을 이끌었던 하화백의 불교관이 잘 나타난 대표작이다.

묘환(妙環), 밀문(密門), 만다라 등 깨달음의 미학으로 70~80년대 한국현대미술을 이끌었던 故 하인두(1930~1989) 화백의 불교사상이 밑받침이 된 현대 추상화를 대거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하화백의 10주기를 회고해 28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전시장에서 열리는 '혼(魂)불, 그 빛의 회오리' 展이 그것.

53년부터 앙포르말(실험성을 띤 추상표현주의)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하화백은 현대불교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자적 작가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廻), 율(律)등 50~60년대 대표작에서 오방의 원색과 인드라망을 보는 듯한 추상적 문양 등 불교적 상징 체계를 화폭에 도입한 70~80년대 작품까지 1백여점이 출품돼 장엄한 화엄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평론가 오광수씨는 혼혼하고 다감한 원색, 여백의 변주가 신축적이며 구성적인 하화백의 작품을 두고 "불교의 독특한 우주관을 구현시킨 양식이 조형화 과정을 통해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하화백이 생의 말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화면 가득히 생명의 세계를 그려냈던 "혼(魂)불, 빛의 회오리' 시리즈도 공개돼, 전시회 의미를 더했다.

이 시리즈는 생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빛과 색이라는 요소로 풀어냈기 때문에 이전 작품들에 비해 한결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다. 지독한 투병생활은 그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절망감보다는 오히려 삶과 예술에 대한 불꽃같은 의지를 불태우게 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하화백의 예술 세계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다. 1전시장은 50년대후반부터 60년대까지 앙포르말 운동을 주도하던 시기.

2전시장은 기하학적 패턴, 구심적 구성, 견고한 대칭미 등 그의 화면의 기본 틀이 짜이기 시작하는 70년대 이후다. 이 시기의 변화는 80년대 들어 불교적 우주관을 구현시킨 '만다라' 시리즈로 완성된다. 3전시장은 '혼불' 시리즈. 죽음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은 그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일반 전시의 관행을 깨고 4점의 미완성작도 함께 선보인다.



◇故 하인두 화백.

"하나의 중심잡이가 모든 온갖 것들을 거느려 이끌고 온갖 것들이 제 나름의 다른 모양으로 하나의 중심에 집약되는 것. 그러므로 우주질서의 그 정화가 만다라요 바로 보살의 입김"이라는 하인두 화백의 말이 녹아있는 이번 전시회는 불자들에게 도심한 가운데에서 정토의 세계를 인도할 것으로 기대된다.(02)720-1020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고영을作 '지옥에서 극락으로'. 지장보살과 예수를 나란히 그려 이채롭다.

고영을 탱화展 '아름다운 세상'

30일까지 광주 북구청

고영을(전남대 강사)씨가 30일까지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탱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고씨는 지장보살과 예수가 나란히 서있는 '지옥에서 극락으로'와 연꽃 향기 그윽한 '아름다운 세상'을 비롯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등 탱화 30점을 선보이고 있다. 탱화의 전통도상에 얽매이지 않는 무애활발한 고유의 불화 세계를 엿볼수 있는 전시회. (062)225-8831

지암스님 사진전 소년소녀가장 돕기

전남지역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사진전이 16~21일 광주 신세계 백화점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지암스님(전남 나주 다보사 주지)은 풍경, 동물, 사찰, 동승 등을 주제로 한 100여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지암스님은 제18회 대한민국 문화재 사진전 금상, 영국 런던국제사진전 은상 등을 수상한 사진작가이다. (062)360-1234

국립문화재硏 창립 30주년 기획전-학술좌담회등 '풍성'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문화재 조사 및 연구분야에서의 성과와 방향을 짚어보는 특별기획전, 국제학술좌담회 등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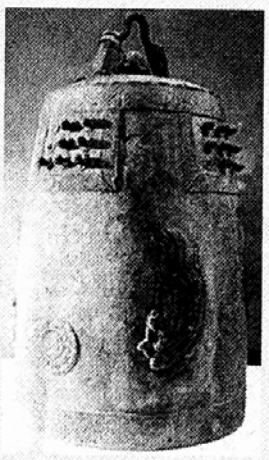
'문화재연구 3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23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는 특별기획전은 유적조사연구, 미술공예연구, 예능민속연구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 17일부터 1주일동안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국제학술좌담회에는 일본·중국·러시아 학자들을 초청, '21세기와 문화재연구'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게 된다. 특히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연구소와 함께 극동지역 아무르강 하류 유역의 유적에 대한 공동 학술조사도 추진중이다. 이밖에 문화재연구소의 30년간 활동을 소개하는 안내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지난 30년을 연구소의 외형적 성장기로 평가한 조유전소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회고와 전망'展으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인력을 키우고 재정을 확보해 일본의 동경문화재연구소를 앞서는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때"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신라 고도(古都) 경주 개발이 한창이던 69년대 '문화재연구실'로 발족한 이후 75년 독립부서로 승격, 발굴조사와 보존기능 다원화를 확대하는 등 30년간 국내 매장문화재 발굴·보존을 주도해 왔다.

日유출 고려동종 '귀향'



일본에 반출됐던 11세기경 고려 동종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 동종은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다카하라 히미코(71)씨가 선친에게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소장자가 한국에 기증의사를 밝힘에 따라 5일 귀환돼 8일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이 동종은 높이 71㎝, 아랫쪽 지름 50㎝, 무게 230㎏ 가량 나가는 것으로 국내에 48구 밖에 보고되지 않은 현존 고려 동종 48개와 비교할 때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문화재연구소는 띠를 두른 종 위쪽과 아래쪽 부분인 상대와 하대, 젖꼭지 모양의 몸통 장식물인 유두가 여러개 붙어있는 유곽, 비천, 종을 때리는 부분인 당좌가 뚜렷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11세기경 전형적인 고려종 양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종은 원래 규슈 후쿠오카에 있던 수성원이란 사찰에 기증됐으나 이 절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카하라씨 집안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연구소는 이 동종을 10일 연구소 개소 30주년을 기념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막되는 특별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17일에는 기증자 부부를 초청, 감사패를 전달키로 했다.

영주 부석사 세계유산 신청키로

영주 부석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신청대상으로 결정됐다. 경북도는 10월 29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영주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신청대상으로 결정하고, 안동시 와룡면 가양리 228 광산 김씨 긍구당 고택 등 9건을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2건, 기념물 3건, 문화재 자료 4건)로 지정했다.

문화 단신

혜우스님 CD 출반

수행자 삶 담은 '추야몽'



순천 선암사 재무 혜우스님이 수행생활의 단편들을 노래로 담은 '추야몽(秋也夢)'(한소리레코드)을 CD와 카셋트테이프로 펴냈다.

수행자의 절제된 삶을 잔잔한 기타선율에 담고 있는 이 음반에는 '청평사 가는 길' '도량의 백일홍' '추야몽' '그대를 만나고 싶다' 등 10곡이 들어있다. 맑으면서도 정감있는 음성으로 노래를 한 혜우스님은 "부처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느낌들을 중생들에게 더 친숙하게 전하는 포교의 한 방편으로 음반을 내게됐다"고 말한다.

지장사 철불좌상 강원도 문화재 지정

강원도는 10월 30일 동해 지장사 철불좌상을 도 유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 고시했다. 지장사 철불좌상은 고려 중기(12세기)에 조성된 철불로 당당한 어깨, 가슴의 양감이 풍만하게 조성되는등 고려전기의 불상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송광사 하사당 1461년 지었다"

문화재청 건립연대 적힌 명문 발견



◇송광사 하사당 건립연대가 기록된 명문.

솟을지붕의 환기공과 같은 건축양식이 돋보여 보물 제263호로 지정된 전남 순천시 송광사 하사당의 건립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문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하사당 지붕을 해체 보수하던 중 이 건물이 1461년 5월 11일에 건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먹으로 쓴 명문을 중앙칸 상부에 설치된 종도리를 받치는 목재에서 발견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적외선 촬영기를 이용하여 판독한 결과 '천순오년신사오월십일일송광사(天順五年辛巳五月十一日松廣寺)'라고 쓰여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사당은 약 12평 규모의 승방으로 지붕 용미루에 돌출시켜 만든 솟을지붕의 환기공이 특이하며 건물양식 등으로 보아 조선초기에 건립된 것으로만 알려져 왔으나, 건립년대가 확인돼 우리 나라 전통 목조건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사당은 지붕기와가 노후되고 서까래와 도리 등의 일부 목재가 부식되어 건물이 앞쪽으로 조금씩 올리고 지붕이 처지는 현상이 발생, 문화재청이 8월 26일부터 지붕해체 보수공사를 실시해 왔다. 오종욱 기자

내가 누구신가를 알고 나를 완성하라

불자들을 위한 특별 강연회

나는 누구인가? 전생에 누구이며 무엇을 했을까?

나는 오래 전 아버님 골수 안에 벌레(정충) 한마리 였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수천 수 억마리중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나였습니다.

1차로 어느날 갑자기 음양이 합일되어 극열한 진동속에 나는 어머님의 자궁속으로 이동되어 난자를 만나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으며 사람의 아들로 10개월동안 형성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2차로 어머니의 젖을 (액체) 먹고 발육되었습니다.

3차로 다시 고체 음식을 먹는 체질로 성장되었습니다.

4차로 다시 기식을 먹고 (하늘의 음식) 살 수 있는 체질로 개선해야 나는 완성이 됩니다. (즉, 부처가 된다. 또는 성불했다)

오늘날 불자들은 수 천년동안 자신을 완성해 보려고 여러 방법으로 수행을 해 왔지만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제는 윤회설의 고정 관념에서 초월합시다.
21세기는 나를 완성하는 새로운 생명 문화의 역사가 시작되며 생명문화가 세계를 지도하게 됩니다.
특별 강연회는 불자들을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법과 자신을 완성하는 수행법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나의 몸은 보이는 마음

너의 마음을 보려거든
너의 모습을 보라
너의 몸이 곧
너의 마음이니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닦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보이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으라.
그리하면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은
부처가 되리라

특/강/요/지

- 나를 완성하는 길
- 만병이 오는 원인과 예방법
- 기의 실체와 음양순행의 원리
- 병증상은 수십 수 백가지로 나타나도 원인은 두가지 뿐이다.

..... 대체의학 음양침술의 실체 (비법) .....

대체의학 음양침술은 무엇인가?

음양침술은 우리 인체의 365혈을 대표로 7혈만 응용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 편두통, 견비통, 요통, 팔, 다리, 손목, 발목, 좌골 신경통, 관절염,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증세, 급체 등으로 고통이 있을 때, 1~2혈만 침을 놓으면 1~3분 이내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나는 것이 음양침술의 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양침술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음과 같은 3대 증상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남자들의 소화불량으로 가스가 차고 피로가 많이 오는 증상 등등
둘째: 여자들의 소화불량, 히스테리, 불면증, 피로권태, 얼굴기미 등등
셋째: 침이나 뜸이나 약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증상 등을 알게 합니다.
음양침술은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가족은 물론이요. 이웃을 위하여도 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음양침술은 우리나라 침술역사상 처음 공개하는 대체의학이기 때문에 불자님들중에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프신 분이나 오랫동안 침을 시술하는 분이나 의료진이나 모두 오셔서 나를 완성하는 이론강연과 더불어 직접 체험을 받아보시고 확실하고 신기한 감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은 2회 특별 강연회를 갖습니다.
1회 : 오후 1시~4시 2회 : 오후 6시~9시
참가비 : 5,000원

음양사 관악구 신림4동 500-1
■문의처: 02)861-5851~2 FAX 861-5852

위치안내 2호선 전철 신대방역에 하차하시고 1번 출구로 나오셔서 4거리를 건너면 신림 4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담을 끼고 골목안 50m 정도 들어오셔서 (음양사) 간판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새로나온 책



▲윤회(김영무 지음)= 〈탈속〉 등 인간의 존재양식과 영혼의 구원문제에 초점을 맞춘 20여 편의 희곡 작품을 발표한 중견 극작가 김영무씨(57)의 소설집. 95년 펴낸 〈윤회〉 상·하 두권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윤회관에 비추어 진솔한 마음자세로 반추해 본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우정기는 얼핏보면 너무나 평범하며 이웃집의 대학생 모습과도 같다.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해답과 사랑의 실체를 찾아 방황하는 대학생의 일상, 방황, 고뇌, 사랑 등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이다. 값 각권 7천5백원.



▲님의 침묵을 흰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유지현 편저)= 만해 한용운스님의 시(詩)에 깃든 사상과 삶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책. 만해 한용운스님의 시집 초판본 〈님의 침묵〉에 실린 시들 중 80여 편을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주제별로 분류, 3부로 구성했다. 특히 각부의 마지막에는 작품의 해설을 수록, 만해스님의 시를 다시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엮었다. 즉 이 책은 '만해스님의 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편저자는 "알기 쉽게 해설해 놓은 시 읽기의 방법을 통해 만해스님의 시와 갈피마다에 얽힌 민족 현실의 고난 속에서 만해스님의 고뇌와 사랑, 그리고 그의 시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값 6천원.



▲다인들은 다를 선이라 하네(김봉호 지음)= "차를 마시는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가." "차는 홀로 마시는 것이 으뜸이다. 홀로 마시고 있노라면 만감이 교차하다 공(空)밖에 남지 않는다. 그 공허를 다시 조이면 성찰이 생겨나고 이를 거듭하면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지 않아 용서하게 된다." 차(茶)가 곧 선(禪)임을 보여주는 초의선사의 말이다. 희곡작가 김봉호씨가 내놓은 〈다인들은 다를 선이라 하네〉(우리출판사刊)은 다선삼매를 일깨우는 잔잔한 에세이집이다. 저자가 차를 공부하면서 신문 잡지 사보 등에 기고했던 내용으로 차와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 사상, 사회 등의 모든 문제점들이 그윽한 찻잔에 담겨져 있다. 값 1만원.

"석굴암은 참회-화쟁의 집"

성낙주씨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

창건동기-주체 분석 "호국사찰 아니다" 결론

기존 미술학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석굴암 읽기를 시도한 이색적인 '석굴암론'을 담은 책이 나왔다. 성낙주씨(45·서울 노원중교사)의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개마고원 刊).

경주 토함산 석굴암은 세계적인 보배 등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 몇몇 학자들에 의해 조명됐을 뿐 석굴암을 창건한 동기와 주체, 미학적 특징 등은 여전히 신비에 싸여 있다.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은 1200여 년동안 역사의 베일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한꺼풀 벗기려는 총체적 읽기를 시도한 책이라고 할만하다.

대학시절부터 석굴암에 매료돼 20여 년동안 꾸준한 연구로 석굴암학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저자는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역사를 파헤쳐 가며 석굴암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먼저 석굴암의 창건 동기와 주체에 대해 '국가나 왕실 주도로 이뤄진 호국사찰도 기복사찰도 아니다'라고 기존 학설을 반박한다. 석굴암은 김대성 개인의 비원을 담은 원찰, 즉 참회(화쟁)의 집이라는 것이다. 정사(正史)인 〈삼국사기〉에 석굴암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왕실개입설을 부정하고, 김대성 독자 건축설을 주장한다. 저자는 '김대성 설화'를 재해석해 변방에서 자주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토벌한 뒤 참회의 심정으로 절을 지었다고 보고 있다. 또 〈불국사고금창기〉에 실려 있는 최치원의 '대화엄종 불국사 아미타불상을 찬함'을 예로들어 어디에도 왕이나 왕실의 참여가 없다며 독자 건축설을 주장한다.

또 참회와 화쟁의 집이라는 사실을 좀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석굴암의 돔형 지붕을 덮고 있는 세조각의 천개석이다. 당시 고구려·백제 유민을 아우르며 통일전쟁의 후유증을 화해와 통합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당대 지식인들의 고뇌가 김대성을 통해 승화된 상징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석굴암 본존불을 올려다 본 모습

또 백호를 비추기 위해 돔지붕 위에 만들었다는 광창(光窓)에 대해서도 이의를 단다. 엄청난 무게의 잡석과 흙, 기왓장이 덮이게 되어 있는 석굴암의 건축구조상 창을 낸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목조전실에 대해서도 조각상 보호를 위해서 또는 예배처라는 석굴암의 성격상 목조전실은 필수적이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존재 유무를 떠나 다투는 식의 불필요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목조지붕 양식의 원형을 복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책은 미학적 차원에서 그동안 학계가 살피지 못한 석굴암의 건축사적 의의를 파헤치고 있다.

성낙주씨는 "석굴암 일부 조각상의 명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지지부진한 것이 석굴암연구의 실상이다"고 지적하고 "편견을 거두는 열린 자세를 통해 석굴암학의 부흥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임제록 강의 불교와 사회

'이기영전집' 2권 출간





故 불연 이기영 박사의 저술을 집대성하고 있는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불연이기영전집' 가운데 11권 〈불교와 사회〉와 30권 〈임제록 강의 1·2〉를 펴냈다.

〈불교와 사회〉는 60년부터 76년까지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쓴 글들로 77년 출간됐던 것을 전집형태로 재간한 것이다. '불교는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이박사의 신념이 녹아 있다. 1부 '불교와 한국적 영원'에는 한국불교 근대화의 제과제, 한국불교 내일을 위한 좌표 등이, 2부 '불교의 사회윤리'에는 불교사회윤리 원론, 바람직한 사회윤리, 불교에서 본 사회현장 등이 수록돼 있다.

〈임제록 강의〉는 93년부터 94년까지 한국불교연구원에서 1년 여동안 〈임제록〉에 대한 강의를 정리한 것이다. 임제스님의 어록을 이 박사는 평소 신념인 원효사상에 입각한 자신의 불교관을 바탕으로 명쾌하면서 특유의 활달한 언어로 해석하고 있다.

불보살 향한 시어 가득

김용주 시집 '그대에게 이르는 길'



여류시인 김용주씨(60)가 20년만에 시집 〈그대에게 이르는 길〉(신구문화사 刊)을 손에 쥐었다.

이 시집의 시들은 서정시 이전에 불법이 녹아 있는 신앙시다. 경전을 읽으며 돈독한 신행을 해 온 시인의 마음속 정화가 작품 전편에서 드러난다. 대체로 여류시인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잡상을 시화하는 경향인 데 비해 김시인의 신앙적 주제가 있는 이 작품들은 한결 돋보인다.

'그대 등에 서린 일념/ 일배 이배 삼배 올려/ 그대 마음 주름펴고/ 천수경 반야심경/ 낭낭하게 울려퍼져/ 우리 모두 눈물되어/ 허공 가득 덮여있는/ 먹장 구름 걷어내고/ 밝은님 뵈오리다.'('그대에게 이르는 길 2' 중에서)

시인 조병화씨는 "김시인은 자신의 참모습을 불법의 하늘에서 찾고 있는 심경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값 5천원.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온 벽안의 스님



현각스님 '만행…' 펴내

지난해 TV 타규멘터리 〈만행〉으로 널리 알려진 벽안의 선승 현각스님(35)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진리를 찾아 정진해온 이야기를 담은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전2권·열림원 刊)를 내놓았다.

이 책에는 현각스님의 어린시절부터 숭산스님을 만나 스님이 되기까지, 그리고 외국인 수행자로서 느끼는 불교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어린시절 종교적 전통을 강하게 고수해 온 집안에서 자란 폴 뮌젠은 '진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의 말을 따라 진리를 찾아 한없이 고민하던 시절, 그가 다닌 교회와 학교는 그에게 또 다른 의문과 회의를 안겨주었을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2월 어느날 하버드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저자는 숭산스님의 강연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가 품었던 의문들의 해답이 숭산스님의 어눌한 영어 강연속에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유명 대학에서도 찾기 못했던 '진리'가 바로 선(禪)안에 있었던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와 쇼펜하우어를 통해 신과 종교에 대해 고민하던 청년 폴 뮌젠은 이렇게 해서 현각스님으로 다시 태어나 구도생활을 시작한다. 가정, 종교, 명문대학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이역만리 한국땅을 어떻게, 왜 밟게 됐는지를 실타래 풀듯 하나씩 풀어간다. 값 각권 7천원.

화제의 책

원효어록 100선 이영일 편저

명쾌한 해설로 읽는 원효사상



원효스님의 어록을 모은 〈원효어록〉(불교춘추사刊)이 나왔다. 원효스님이 지은 각 논소(論疎)에서 100가지를 발췌해 우리말 풀이와 해설을 덧붙여 스님의 사상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원효스님의 저술로 알려진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 〈십문화쟁론〉, 〈해심밀경〉 〈영락본업경〉 등 경전의 종요 20여 가지 이상의 논소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신라시대 당시 점유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언급했던 스님의 식견이 녹아 있는가 하면 '옷 짓는 데는 긴 창이 필요하다', '송사리는 여울물이 편하다', '뱀도 대나무 구멍속은 곧바로 기어간다' 등 흔탁한 중생들을 향한 스님의 뼈있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값 1만원.

푸른산 흰구름 한승원 지음

'건강한 삶의 생명력' 다룬 명상집



소설가 한승원씨가 5년 여동안 결쳐 사유한 것을 모은 명상수필집 〈푸른산 흰구름〉(불일 刊)을 내놓았다.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둘러싼 구원의 문제, 자연의 생명력에 관한 글들을 발표해 온 저자는 이번 수필집에서도 역시 건강한 삶의 생명력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서 때론 감동적이고, 애달프고, 날카로운 사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모든 사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다. 이슬, 달, 풀벌레, 새, 파도, 조약돌 등에서…."라는 말에서 저자특유의 사유법을 엿볼 수 있다. 37편의 진한 글들은 잔잔하면서도 진한 감동을 준다. 값 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풍경	원 성	이 레
2	금강경강해	김 용 옥	통 나 무
3	달라이라마가 설법한…	류 시 화	나무심는사람
4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5	방편개시	대 성	여시아문
6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7	영가천도	우 용	효 림
8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일 타	불교시대사
9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10	나는 아직도 스님이…	최 인 호	여 백

구입문의:(02)737-0695

사찰·신행단체·계모임 등에서 떠나시는 해외성지순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외여행업허가번호 42-109

선재여행사(善哉旅行社)가 문을 열었습니다

귀명삼보하옵고,

월간 『법공양』을 발행하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해외불교성지순례를 전문으로 하는 선재여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교계의 사부대중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올립니다.

선재여행사는 단순한 해외여행을 하고자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깊고 신행이 깃든 순례, 우리나라와 해외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면서 심도있게 살피고 참배하고 그 속에 깃든 불교정신을 음미해 보는 순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연 것입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떠나는 사찰 단위의 해외성지순례, 불교단체 및 계모임에서의 성지순례에 저희 여행사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앙망하오며, 떠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인도·중국·일본·미얀마·티벳·네팔·태국·스리랑카 등 불교권 국가를 대상으로 삼아 뜻깊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행이 되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배상

감동과 신행·품격이 있는 성지순례 - 저희 善哉여행사와 함께 하십시오.

달라이라마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9일 ₩2,000,000
출발일 - 12월 12일 (단, 1회에 한함)
델리-기원정사-열반지 쿠시나가르-제 2결집지 바이살리-나란다대학
-라지기르, 영축산, 죽림정사-성도지 보드가야 (달라이라마 친견)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바라나시(갠지스강)-델리 (특급호텔이용)

인도 성지순례 9일 ₩1,900,000
출발일 - 1월 23일
델리-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살리-나란다
-라지기르-보드가야-사르나트-바라나시-델리 (특급호텔이용)

인도 성지순례 9일 ₩1,570,000
출발일 - 11월 28일
델리-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살리-나란다
-라지기르-보드가야-사르나트-바라나시-델리 (일반호텔이용)

인도·네팔 성지순례 16일 ₩2,780,000
출발일 - 1월 11일
불교 8대성지, 산치대탑·아잔타·엘로라석굴 및 히말라야 일출
·카트만두·포카라 등 네팔 주요 성지 탐방 및 주요 불교성지 총망라

일본 성지순례 5일 ₩1,370,000
출발일 - 12월 15일
오사카-나라-고야산-교토 (법륭사·광륭사 등 17개 사찰 및 유명관광지)

특선 1 / 특선 2

미얀마·태국·스리랑카 성지순례 11일 ₩2,334,000
출발일 - 12월 3일, 1월 14일
방콕-앙곤-바간-만달라이-앙곤-방콕-콜롬보-이누라다푸라-하바라나
-폴론나루와-시기르아-댐불라-캔디-콜롬보-방콕 (총 24개 성지탐방)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80,000
출발일 - 12월 3일, 1월 14일
방콕-앙곤-바간-만달라이-앙곤-방콕 (총 15개 성지탐방)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1,310,000
출발일 - 12월 8일, 1월 19일
방콕-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르아-댐불라-캔디
-콜롬보-방콕 (총 9개 성지탐방)



중국 상해·보타산·항주·소주 6일 ₩920,000
출발일 - 11월 28일, 1월 4일
상해 옥불사·용화사-관음성지 보타산-영파 이육왕사·천동사-항주
서호십경·영은사·비래봉 석불동굴-소주 한산사·호구·졸정원-상해

중국 북경 성지순례 5일 ₩680,000
출발일 - 12월 9일, 12월 22일
벽운사·와불사·법해사·운거사·법원사·대종사·법운사 등
북경의 고찰 순례와 만리장성·이화원·천안문 등 관광

◆ 출발조건 : 국제선 항공료, 현지 국내선 항공료, 호텔, 현지차량, 식사, 현지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공항세, 관광세, 1억원 보상한도 보험료, 각국 비자비 포함(단, 여권인지대는 별도), 선택관광 및 팁은 일체 없습니다.

善哉! 좋고 또 좋구나, 좋은 것 뿐이로다. 선재여행사 전화 : 02-582-6647~9 · 팩스 : 02-586-9078

"서구 불교학 재평가 움직임"

김응철 교수 이민용 교수

"승-재가 신행공동체 구성"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밝혀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는 6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강의실에서 '99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민용교수(美 하버드대)가 구미불교학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한 '불교학 연구의 문화배경에 대한 성찰'과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학교)의 '불자의 종교의식 및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이 두 발표는 서구의 불교 열풍과 침체되고 있는 한국불교의 동향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불교학 연구의 문화배경에 대한 성찰'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이민용 교수는 "인도학의 한 분과로 시작된 서구 불교학 연구는 불전에 대한 구전자료를 무시한 불전내의 불교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최근들어 불교학 연구는 신앙의 불교로 재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19세기 중반 뷰르누프의 〈인도불교사 입문〉과 〈법화경 역주〉가 출간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서구 불교학은 아편전쟁과 인도 벵갈반란 사건 등 정치적 혼란속에서 출발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시대적 문화배경으로 인해 불교학 연구는 신앙의 실상을 배제한 경전속의 역사, 문헌속의 역사, 즉 불교의 종교사상은 철저하게 문헌속의 종교사상으로 일관됐다"고 말했다. 그 일례로 불전전기에 대한 연구를 들고 있다.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이 아닌 역사적 대상, 학문상의 존재로만 부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몬드의 〈영국 불교의 발견〉을 계기로 불교학 연구의 반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근 서구의 불교연구 동향에 대해 이 교수는 "상상속의 불교, 책상위의 정형화된 불교가 아닌 '신앙되는 불교'를 새로운 연구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재평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통한 박물관적 지식에서 벗어나 생활의 지혜를 찾는 원천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는 환경·여성문제에 까지 결부시키는 등 새로운 시각의 불교학이 연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현실문제의 대안이 불교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 대안은 경전이 아닌 신행 현장속에서 찾아야 한다. 불교적 삶의 방식, 실천행이 어떻게 들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불교학연구의 관건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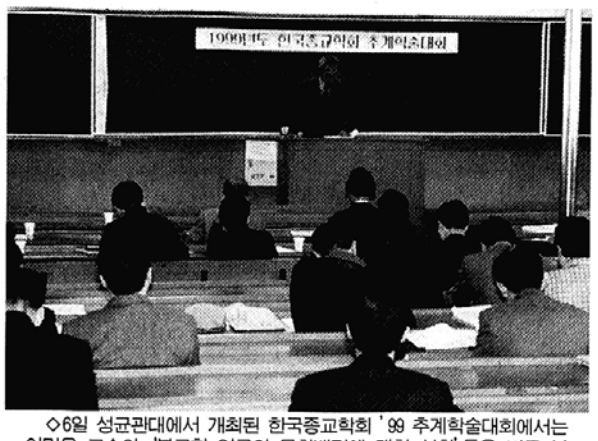
불교분과 발표회에서 김응철 교수는 '불자의 종교의식 및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란 주제를 통해 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통계청, 한국갤럽 자료를 토대로 발표에 나선 김 교수는 불자 인구의 변화추이에 대해 '지속적인 침체 현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침체원인은 사회 환경 및 종교의식, 행태 등 시대적 변화속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방안으로 △승·재가 신행공동체 구성 △통일된 불교의례 △신도교육 △단계적 신도들의 신행활동 유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이에앞서 스님들이 수행적 리더쉽을 확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여법하지 못한 일부 스님들의 모습과 행동들이 만연해 불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신도들이 있어도 이끌어 줄 스님들이 없다면 구심점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스님들의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교수는 향후 불자의 종교의식과 행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의 다차원적 측정지표를 정교화해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불교철학의 서구적 수용과 전망'(이동휘교수·명지대), '〈바가바드기타〉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호성교수·동국대),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생천도와 해탈도'(안승준·동국대), '인도에서의 밀교와 중세 사회사'(이광수 교수·부산외국어대)가 각각 발표됐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6일 성균관대에서 개최된 한국종교학회 '99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이민용 교수의 '불교학 연구의 문화배경에 대한 성찰' 등을 비롯 불교관계 논문 5편이 발표됐다.

학술단신

한국문학硏 학술회의

한국문학연구소(소장 임기중)는 19일 오후2시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한글시대의 불교언어와 불교문학'이라는 주제로 제19차 한국문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불교산문 연구(인권환 고려대 교수) △현대 불교시 연구(홍신선 동국대 교수) △불교언어 연구(김무봉 동국대 교수) △불교시가 연구(임기중 동국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문학연구소 5개년 연구계획의 1차년도 사업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한글 창제이후부터 갑오경장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토회 정보화 세미나

부산 정토회 정보자료실은 11일 부산 적십자회관 6층 제2회의실에서 시민단체 활동가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사회운동과 정보망 활용방안(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업팀장)' '정보사회의 도약, 시민단체 지원현황 및 과제(박근덕 시민사회네트 기획국장)'에 대해 발표됐다.

"기독교도 화장 적극 수용해야"

오세종 목사, 불교어산학교 심포지엄서 주장

목사가 불교계 주최 심포지엄에서 "화장은 불교장법이고, 부활체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매장을 선호해온 한국 기독교계가 한국의 묘지난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교조적 주장만으로 매장을 고집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불교어산작법학교(교장 인묵스님)가 17일 중앙승가대 정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학교종교의 생사관과 상장례법' 심포지엄에서 오세종 목사(감리교 암사교회)는 '화장(火葬)과 부활에 관하여'라는 발제를 통해 "기독교 상·장례의식은 내용과 중심사상에 있어서는 성서적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유교적인 의례 사상과는 판이하지만 그 외형적 절차는 서양 기독교 의식의 절차보다 재래 유교적 절차와 습합되어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한국교회는 의식을 전환해 화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납골묘 등의 개발과 그에따른 예문과 의식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오 목사는 화장과 매장 풍습에 관한 우리나라 불교와 유교, 그리고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전통과 성경의 입장에 관해 발표했다.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 기인한 다양한 종교의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보광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이 '불교계의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몇가지 과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된 불교의식은 종교에 대한 소속감과 단결심을 고취하는 수단이 된다"며 "불교의례의 한글화는 물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의식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삼국유사' '삼국사기' CD롬

〈삼국유사〉〈삼국사기〉가 CD롬으로 출시됐다.

(주)누리미디어는 최근 두계 이병도 박사의 〈삼국유사〉〈삼국사기〉 역주본과 교감원본, 목판본 이미지 등을 모두 수록한 'CD롬 삼국유사·삼국사기'를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CD롬 삼국유사·삼국사기'는 국내에선 최초로 세계 표준부호 체계인 유니코드 2만7천여 한자를 사용, 개발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번역본 원문 목판이미지를 함께 띄워 확인할 수 있는 'CD롬 삼국유사·삼국사기'는 일반 단어만 색인할 수 있던 기능에서 탈피해 중간 단어까지도 찾아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심청전 무대 전남 곡성이다"

관음사 연기설화 근거

양권승 박사 주장

'심청전' 무대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가 아니라 전남 곡성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곡성군(군수 고현석)은 오산면 소재 관음도량인 관음사 사적기에 '심청전'의 원형이라고 할 연기설화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곡성이 효의 본고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음사사적기 연기설화에 따르면 백제 시대 곡성 대흥현에 살던 가난한 장님 원량의 딸 원홍장의 효심은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원량이 화주승에게 딸을 시주한 뒤 홍장이 중국에서 진나라 왕후가 되었고, 홍장이 관음성상을 돌배에 실어 고국 땅에 실어보냈더니 옥과땅의 성덕 처녀가 모셔다 곡성에 관음사를 창건해 원량도 개안(開眼)하게 되었다는 것이 설화의 요지.

곡성군의 요청으로 고증작업을 하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양권승 박사는 "인당수 부분만 빼고 관음사 연기설화가 '심청전'과 90% 일치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내달 8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학술발표회를 열어 백령도설을 뒤집고 곡성군이 '심청전'의 고장임을 밝힐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오디얀 불교센터

태평양 연안 불교사원 소개

미국내 티벳불교 위상 볼 기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명물을 꼽자면 당연히 메머드 불교사원인 '오디얀 불교센터'이다.

이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시간여 해안도로를 달려야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 '오디얀 불교센터'를 방문하면 이 곳을 단박에 찾아갈 수 있을 뿐아니라 미국, 아시아, 유럽등 세계각지에서 찾아오는 티벳불교 신자 및 스님들의 수행처를 고화질 그래픽으로 면면히 살필 수 있다.

석가의 탄생지에서 이름을 따 오디얀 불교센터로 불리는 이 사원은 티벳 고대불교사원을 재현한 구리돔양식의 본당, 탑 모양의 11층 건물 전체가 금박으로 빛나는 거대한 수련장, 수만권의 불교성전을 보관한 4개의 서가등 북미주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깨달음의 아름다운 경지'를 상징한다는 이 사원의 건축양식과 조각품들과 경관은 교사와 심리학자, 전문가들이 다수인 버클리일대 수백명의 불자들을 중심으로 신자들이 일일이 갈고 닦아가며 많은 부분 직접 만든 것이다.

금동수련장의 외부 벽면을 장식한 2백60개의 소형 불상들은 신도들이 티벳의 옛 원형들을 되살려 직접 제작한 것이다. 또 본당을 둘러싼 연못 주변과 벚꽃밭, 장미화원등 신도들에 의해 심어진 나무만도 20만그루에 이른다.

오디얀 불교센터는 21년간에 걸친 미국 불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헌금으로 지어진 탓에 정확한 건축비는 셈하기 어려우나 어림잡아 1천만 달러(약80억원)에서 1천2백만달러(약96억원)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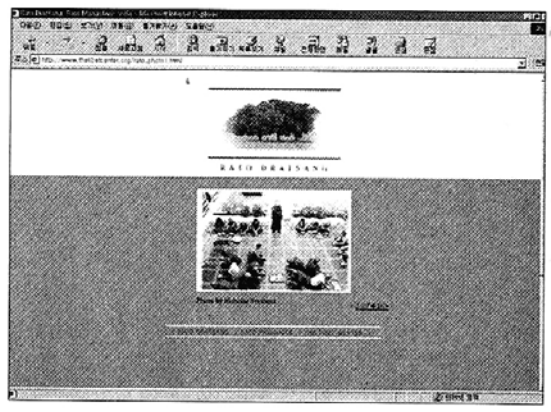
이 사원은 중국의 박해를 피해 68년 미국으로 건너온 타탕 툴쿠 린포쉬의 주도로 건립됐다. 티벳의 불교교파중에서도 인도에서 처음으로 티벳에 전해졌던 7세기경 고대불교에 뿌리를 둔 닝마파를 따르는 타탕 툴쿠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일대에 불교성전을 출판하는 달마퍼블리싱, 명상연구센터인 니잉마인스티튜트 등을 설립하고 사라져가는 티벳불교의 경전과 포교에 헌신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오디얀 개원당시 미국 언론의 반응을 정리해 놓았는데, "미국내 대중종교로 확산되고 있는 티벳불교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내 불교신자 수는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추산되고 있다", "불교는 자기성찰을 강조한다. 나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디얀에서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오디얀은 우리나라 사찰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미국 버클리에 있는 닝마인스티튜트 등에서 일정교육이나 참여활동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사원에 초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 '오디얀 불교센터'를 방문하는 데에는 자격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 가상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thetibetcenter.org/rato_photo1.html



태아령 천도 및 새천년을 위한

제 13 차 백일기도 (佛光普照 國泰民安) 봉행안내

천봉산 대원사는 백제 무녕왕3년(서기503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백제 고찰입니다.
그간 대원사에서는 태안지장보살을 모시고 태아영가의 천도를 위한 백일기도(년2회)와 1박2일의 단기수련회를 주말마다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태아령 천도를 위한 제13차 백일기도**를 입재합니다.

- 태아령이란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

태아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함입니다.

원한과 고통속에 구천을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의 천도를 발원하고 봉행되는 100일 기도에 여러분들의 진지한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1999년 11월22일 오전10시(입재) ~ 2000년 2월19일(회향)
■ **동참회비** : 기도금(5만원) 영가위패 1인당(5천원)
■ **온 락 인** : 조흥은행 322-06-008780 (석현장)
■ **연 락 처** :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 전화 (0694)852-1755 / 팩스 (0694)853-0009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소책자 「**태아령 천도 공양법**」을 보내드립니다.

1999년 11월 15일

백제고찰 대원사 주지 석현장 합장

"자성이 청정하면 깨달음 온다"

경전 속의 禪 사상 41

선과 화엄 하나되는 '성기사상' 제시

"상념 집착않을 때 여래지혜 나타나"

화 엄 경 (中)

글쓴이



김 호 성

(동국대 교수)

선불교의 모토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直指人心)거나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見性成佛)라고 쓰여진 선불교의 깃발은 그같은 소식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논리적 차원의 이해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이제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선가에서 말하는 "곧바로 여래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인간을 바라보는 선불교의 관점이 따스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죄도 많고, 업도 많은 존재인가? 아니면 성스러운 존재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고, 한 종교 안에서도 종파가 달라진다. 인간관에 따라서 수행법(구원론, 修證論)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식불교가 번뇌의 존재로부터 인간을 바라보고 수행체계를 세우고 있다면, 선불교는 '인간은 부처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나름의 수행체계를 세워간다.

불교 안에서는 선불교 외에도 대표적으로 〈화엄경〉에서 인간은 청정하다고 말한다. 유식불교가 인간을 겉으로부터 보고 있으므로 상종(相宗)이라 불린다면, 화엄불교는 인간을 속으로부터 관찰하기에 성종(性宗)이라 이름된다. 이른바, 육조혜능이 "마음자리에는 본래 허물이 없고, 본래 어지러움도 없으며, 본래 어리석음도 없다"고 말하였을 때에도 인간을 저 깊은 속에서부터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선언이었다. 돈오(頓悟)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본래 성품이 청정하다는 것은 선에서 말하는 돈오의 가능성이고, 전제조건인 셈이다. 아니, 자성의 청정이 곧 깨달음이고 선이다. 〈화엄경〉에서 이렇게 자성청정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돈오를 주장하는 선불교의 입지(立地)는 없을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선불교의 철학적 배경을 이루는 것이 〈화엄경〉의 성기(性起)사상이다. 성기라는 술어는 60권본 〈화엄경〉의 보왕여래성기품에서 유래한다.

"어떠한 중생도 그 몸에 여래의 지혜가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여래지를 깨닫지 못한다. 상념에 집착하는 것을 떠나면, 일체지(一切智)·무사지(無師智)는 집착이 없으므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성기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기품'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중의 백미는 미진경권유(微塵經卷喩)이다.

"예를 들어, 불자여 삼천대천세계의 크기만큼 큰 경전이 있다고 하자. (----) 진실로 저 큰 경전이 하나의 극미(極微)의 먼지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자. 저 하나의 극미의 먼지 속에 저 큰 경전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다른 모든 극미의 먼지 속에도 그만큼의 큰 경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물론, 〈화엄경〉의 성기사상은 그 기초에 여래장사상이 놓여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래장이 가능태를 나타내고 있다면 성기는 현실태를 말한다. 여래장이 잉태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기는 출산의 순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으리라.

먼지라 하였던 것이 사실은 알고보니까 경전이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곧 부처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화엄은 현실을 긍정하며, 현실이 곧 절대라고 본다. 선종의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마조스님이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이며, '일체가 곧 진리'(一切皆眞)라 말하였던 데에는 이같은 성기사상이 그 배경에 놓여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기, 이 자리에서 선과 화엄은 만난다. 즉 하나가 된다(禪嚴一致). 여러 선사들이 화엄을 좋아했던 까닭이 여기 있는데, 한국선은 더욱 그같은 전통을 잘 잇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 나나상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22)

현대인의 불법 (1)

재가자도 해탈할 수 있다

오계 지키면 불법에서 멀어지지 않아

부처님은 비구, 비구니의 출가승들만을 상대로 가르치심을 펴신 것이 아니라 재가의 남녀 신도들을 위해서도 가르침을 베풀었다. 따라서 불교 공동체를 이루는 위의 사부대중들은 다같이 하나의 공통된 궁극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목표는 바로 열반의 증득이다. 열반은 물론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해탈하는 것을 뜻하지만 해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동안은 불자일지라도 세상살이를 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속세의 존재로서 겪어야 되는 갖가지 애로를 그들도 마찬가지로 겪어내야만 한다.

특히 재가의 불자들에게 있어 이 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띤다. 마음으로는 아무리 해탈에의 길을 지향하고 싶어도 세속생활을 해야 하는 몸인지라 자연히 세속의 요구와 유혹 앞에 시달리기 마련이며 불심을 지켜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가 신도들의 고충을 부처님이 모르시지 않았고 외면하시지도 않았다. 부처님은 재가신도들의 곤경을 충분히 알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재가자가 세속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답게 사는 길을 가르친 것이다.

재가불자인 우리들로서는 부, 쾌락, 성공과 같은 세속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골몰한 나머지 원래의 정신적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특히 기본 오계만은 범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어기면 법에서 퇴보하게 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재가자가 이루어낼 수 있는 높은 공부를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된다.

빠알리 경전에는 모범적인 재가 남녀들의 예가 무수히 실려 있다. 가장 저명한 이름들만 꼽아도 아나타삔디까, 위사카, 나꿀라의 양친 같은 훌륭한 남녀 불자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재가불자들도 바로 금생 동안에 일체 고를 종식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절도있게 자기 단련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리고 생사의 궁극적 진리에 대한 통찰을 계발하겠다는 목표 아래 선정을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이다.

불법은 영구한 가치와 보편적 적용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를 위해서도 설해졌으니,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오늘날의 문제를 푸는 데 적절한 가르침은 없는가 찾아봄직 하다.

물질적 부를 지니는 즐거움
물질적 부를 누리는 즐거움
빚이 없이 사는 즐거움
비난받을 일이 없는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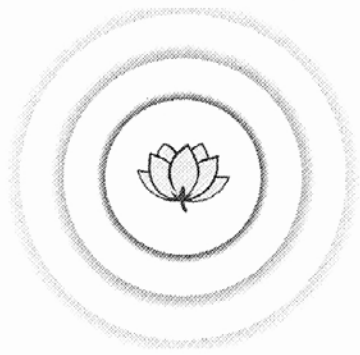
이것은 부처님이 아나타삔디까에게 재가자의 네 가지 즐거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확실히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도 적절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이 네 가지 행복의 중요성을 마음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만 있다면 이런 시대에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 학 산 책 — 쿼크

복잡한 하드론 내부구조 '쿼크'로 간단히 설명

양·중성자도 쿼크로 나타내



전호에서 살펴본 하드론에는 보즈 입자와 페르미 입자가 있다. 하드론 중에 보즈 입자인 것은 메존(meso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쿼크와 반쿼크의 쌍으로 되어있다. 하드론 중에 페르미 입자인 것은 바리온(baryon)이라고 불리는데 3개의 쿼크로 되어 있다. 보즈 입자와 페르미 입자를 구분하는 특징인 스핀수 조건을 다시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것이다. 메존과 바리온들은 상호 작용에서 서로 다르게 행동하므로 그들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충돌 전 바리온의 숫자는 충돌 후 바리온의 숫자와 같다. 이를 바리온 수 보존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드론들의 충돌은 메존들을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메존 수 보존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1960년대 말, 스탠퍼드 대학의 실험 물리학자들은 하드론이 공간에서 실제로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양성자에다 고에너지의 전자 광선을 충돌시켜 결과를 살펴본 후 양성자는 일정한 구조와 공간에서 부피를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비록 하드론끼리의 충돌이 또 다른 하드론을 만든다고 하여도 하드론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점입자가 아니라 더 섬세한 내부 구조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머레이 겔만은 쿼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하드론의 내부 구조를 훌륭하게 설명하였다.

쿼크는 1/2의 스핀을 가진 양자 입자이다. 보통 소립자에서 그 입자가 띠고 있는 전기량을 표시할 때는 전자가 띠고 있는 전기량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그런데 쿼크는 전자가 띠고 있는 전기량에 비교하면 분수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다. 쿼크는 향(flavor)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다. 즉, 위(up, 2/3)쿼크, 아래(down, -1/3)쿼크, 기묘한(strange, -1/3)쿼크, 매력적(charmed, 2/3)쿼크, 꼭대기(top, 2/3)쿼크, 밑바닥(bottom, -1/3)쿼크이다. 여기서 각각의 괄호안에 표시된 분수는 전기량을 나타낸다. 각각의 쿼크는 반쿼크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과 쌍을 이루고 있는 쿼크의 전기량의 반대 부호를 갖는다. 예를 들면 반위(anti-up) 쿼크는 -2/3의 전기량을 가진다.

위, 아래, 기묘한 쿼크와 이들의 반쿼크로 그때까지 알려진 하드론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 위 쿼크, 아래 쿼크, 기묘한 쿼크 사이의 두드려진 차이는 질량이다. 즉, 위, 아래 쿼크는 가벼운데 반해 기묘한 쿼크는 이들에 비해 수십배 무겁다. 하드론 사이에 나타나는 질량의 차이는 이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었다.

쿼크 모형은 수많은 하드론들을 단 세 개의 쿼크와 세 개의 반쿼크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하는 놀라운 단순성 혹은 통합성을 보여주었다. 하드론끼리의 충돌이 새로운 하드론을 만드는 문제는 후에 양자색역학에 의해 하드론 내부에서 쿼크들의 교환이 이루어져 새로운 하드론이 생성된다고 설명된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를 어떻게 쿼크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페르미 입자는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이다. 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는데 +1이라는 전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를 끌어당겨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어 안정한 원자를 형성한다.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규칙은 간단하다. 양성자는 하드론이면서 페르미 입자이므로 바리온이고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진다. 또한 양성자는 전기량이 +1이므로 위 쿼크, 아래 쿼크, 기묘한 쿼크를 잘 조합하여 전기량을 +1로 만들면 된다. 그러므로 양성자는 위(2/3) 쿼크, 위(2/3) 쿼크, 아래(-1/3) 쿼크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성자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 지는데 이번에는 전기량이 0이다. 그러므로 위(2/3) 쿼크, 아래(-1/3) 쿼크, 아래(-1/3) 쿼크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안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숭(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1월 한달간 개최하는 '이달의 문화재展'에 전시된 납석제선각여래·나한좌상등 8구의 불상들. 청소년들이 다리미모양의 납석에 조각된 친근한 모습의 불상을 가리키며 즐거워하고 있다.

수장고서 나온 불상 8구 '볼거리'

국립중앙박물관 11월 '이달의 문화재展'

매장문화재 신고→보존→감정 과정 공개



◇고려시대 금동여래좌상.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서 발견된 이 불상은 역삼각형 얼굴, 가느다란 허리, 이중 연화대좌 등 당시 유행했던 라마교 형식을 반영하고 있다.



◇고려시대 소조나한좌상. 강원도 철원군 이운면에서 발견된 이 나한상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듯 주름살등 얼굴조각이 생생하다.

약초를 캐러 산과들을 누비다 혹은 토목공사나 개간, 묘소이장 등 우연한 경로로 땅이나 물 속에서 발견된 문화재들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고 본래의 면목을 찾게 할 수는 없을까?

이 방법을 알고 싶은 불자라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이 11월 한달간 개최하는 '이달의 문화재' 전을 찾으면 된다.

'납석제선각여래·나한좌상' 등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 8구의 불상들이 선보인 이 전시회에는 문화재적 가치를 떠나 선대의 불심(佛心)과 예심(藝心)을 생생하게 느낄수 있다. 또 매장문화재의 신고 절차와 보존·감정·평가 그리고 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그 사실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관할 경찰관서에 7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발견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신고된 발견매장문화재는 소유자 확인 및 감정·평가를 위해 일정 기간을 거쳐 국고에 귀속조치 후 국·공립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게 된다.

1961년 부터 1999년 9월까지 매장문화재 가운데 4,321건 총 47,115점이 국고로 귀속되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와 성격을 지닌 문화재들도 적지 않다. 매년 100여건의 매장문화재가 발굴·출토되고 있으며, 이중 성보가 60~70%에 이르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납석제선각여래좌상 1구' '납석제선각나한좌상 4구' '금동여래입상 1구' '금동여래좌상 1구' '소조나한좌상 1구' 등 불상 8구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보관되어 왔다.

아기같은 귀여운 얼굴의 표현과 서투른듯 간결한 솜씨의 칼새김으로 납석에 그린 여래·나한좌상은 한국적 조형미를 잘 보여주는 불상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이 불상들은 강원도 원성군 귀래면 주포리에서 묘소이장 중 발굴되었는데, 일반에 처음 공개되었다.

제일 큰 여래좌상을 본존으로 하고 각각 좌우에 나한상 4구가 배치되도록 구성된 납석제선각여래·나한좌상은 조선시대 어느 민가의 봉당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납석(蠟石)은 '곱돌'이라고도 하는데, 기름과 같은 광택이 있어 양초같이 매끈매끈한 광석으로 예로부터 민가에서 석필, 조각재 등으로 애용되어 왔다.



◇ 처음 공개된 조선시대 납석제선각여래 나한좌상. 광배를 나타내는 다리미에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불상이 친근한 느낌을 준다.

소조나한좌상은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며 얼굴은 두 눈과 양볼을 깊게 조각하여 부피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촘촘하게 새겨진 이마의 주름살을 통해 수행자의 생생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강원도 철원군 이운면에서 발견된 이 나한상은 고려 후기에 조성된 오백나한상의 하나로 추정된다.

대구 대봉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좌상은 원추형의 높은 육계와 역삼각형의 얼굴, 가느다란 허리, 이중 연화대좌 형식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유행되었던 원나라 라마교 계통의 불상으로 보인다.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걷리에서 발견된 금동여래입상은 방형의 얼굴과 신체, 선각의 옷주름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내린 통인(通印)을 취하고 있으며, 손바닥 손금이 치밀하게 선각되어 있는게 특징이다.

이들 매장문화재들은 발견 당시 예술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발견 초기에 신고되었기 때문에 일대 유적군(群)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다.

"고래(古來)의 유물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으로 복원, 보존, 전시 등의 과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향유해야 하며, 또 중요한 유물을 발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만큼 매장문화재 신고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는 김율림 학예연구사(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의 지적에 귀기울여 봄직하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연대가 밝혀진 불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관학계의 주목을 받아 온 고구려시대 '연가7년명 금동불상'도 1963년 동네 산기슭에서 쑥을 캐던 김갑순 아주머니에 의해 발견·신고된 것이다. 김씨는 당시로서는 매우 큰 백만원이라는 보상금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정양모 관장은 "매장문화재를 신고하는 것은 다 죽어가는 문화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인들이 매장문화재의 신고와 처리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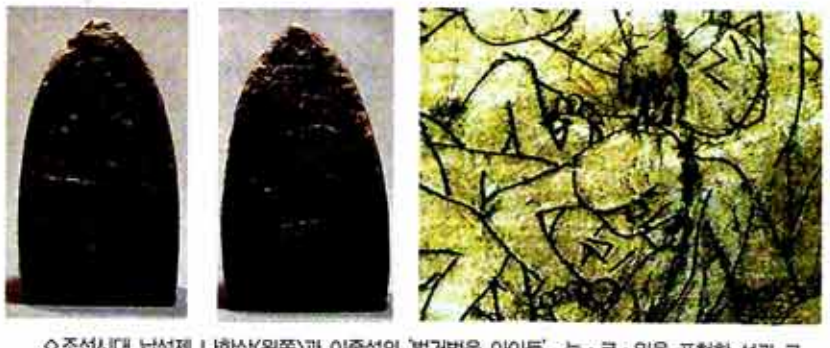
나한상 상호-이중섭 그림 "닮았네"

최근 열리고 있는 '한국미술 50년 展'에 '황소'가 선보이고 있는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중 하나인 이중섭(1916~1956). 이중섭의 은박지그림의 '벌거벗은 아이들'의 얼굴이 조선시대 '납석제선각여래·나한좌상'의 천진난만한 상호와 비슷해 화제.

73년 강원 원주에서 출토된 '납석제선각여래·나한좌상'의 상호는 눈·코·입 등이 간결한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중섭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부분은 바로 나한상의 얼굴. 나한상의 소박하면서 천진난만한 얼굴 선이 이중섭의 은박지 그림 '벌거벗은 아이들'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것. 차이가 있다면 나한상의 눈에는 눈동자가 있고 이중섭 그림의 아이들의 눈엔 눈동자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상을 새긴 이름없는 예술가와 현대화가 이중섭. 이들 사이에 세월의 두께가 쌓여있음에도 어딘 보이지 않는 끈이 맞닿아 있는 듯 하다.

국립중앙박물관 김율림 학예연구사는 "이중섭이 고려청자에 그려진 동자의 모습을 연구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조선시대 납석제 나한상(왼쪽)과 이중섭의 '벌거벗은 아이들'. 눈·코·입을 표현한 선과 그림이미지가 흡사하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약함을 든 약사불은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데 3중의 두광과 신광, 그 주위를 화염문이 둘러싸고 있다. 고려초기 불상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마애불을 찾아서

태평2년명 마애약사불좌상

결가부좌 한채 화염문 둘러싸여 고려초기 불상연구 귀중한 자료

알맞게 솟은 바위 남면에 새겨진 이 약사불좌상은 태평2년 정축 7월 29일이라는 명문이 있어 고려 경종 2년(977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화좌대위에 약함을 든 약사불이 결가부좌로 앉아있는데 광배는 3중의 두광과 신광, 그 주위에 화염문이 둘러싸고 있다. 나발의 머리칼, 단정하고 부드러운 얼굴표정, 단정한 체구, 형식적인 옷주름 등의 양식적 특징은 통일 신라시대보다 진전된 새로운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명문이 있어 고려초기 불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하며 보물 제981호로 지정돼 있다.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 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매달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형상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26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물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매현 윤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프구액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매현 윤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팩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⑰

願諸修道之人 硏味此語 更莫狐疑
원제수도지인 연미차오 갱막호의
自生退屈 若求丈夫之志
자생퇴굴 약구장부지지
求無上菩提者 捨此奚以哉 切莫執文
구무상보리자 사차해이재 절막집문
直須了義 ——歸就自己 契合本宗
직수요의 일일기취자기 계합본종
則無師之智 自然現前 天眞之理
즉무사지지 자연현전 천진지리
了然不昧 成就慧身 不由他悟
요연불매 성취혜신 불유타오

바라건대, 모든 도 닦는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음미해서 다시는 의심으로 인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약 장부의 뜻을 가지고 최상의 보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코 글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참뜻을 깨달아서 일일이 자기에게 돌아가 근본에 계합한다면 스승없는 지혜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고 현진한 이치가 분명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타인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리라.

追念過去輪廻之業 不知其幾千劫
墮黑暗入無間 受種種苦
又不知其幾何 而欲求佛道 不逢善友
추념과거윤회지업 부지기기천겁
타흑암입무간 수종종고
우부지기기하 이욕구불도 불봉선우
長劫沈淪 冥冥無覺 造諸惡業
장겁침륜 명명무각 조제악업
時或一思 不覺長吁 其可放緩
시혹일사 불각장우 기가방완

다. 한갓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여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허다히 많다.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 번 귀를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은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심결〉에 "들고서 믿지 않더라도 부처가 될 인연을 맺고, 배우고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인간과 천상의 복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다. 이렇게만 해도 성불할 바른 인연을 잃지 않는데 하물며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루고, 이를 잊지 않고 수호하는 사람의 그 공덕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글에 집착말고 참뜻을 바로 깨닫고 자기에게 돌아가 근본에 계합해야

而此妙旨 雖是諸人分上
이차묘지 수시제인분상
若非夙植般若種智 大承根器者
약비숙식반야종지 대승근기자
不能一念而生正信 豈徒不信
불능일념이생정신 기도불신
亦乃謗讟返招無間者
역내방독 반초무간자
比比有之 雖不信受 一經於耳
비비유지 수불신수 일경어이
暫時結緣 其功德 不可稱量
잠시결연 기공덕력 불가칭량
如唯心訣云 聞而不信
여유심결운 문이불신
尙結佛種之因 學而不成
상결불종지인 학이불성
猶蓋人天之福 不失成佛之正因
유개인천지복 불실성불지정인
況聞而信 學而成 守護不忘者
황문이신 학이성 수호불망자
其功德 豈能度量
기공덕 기능탁량

이러한 묘한 뜻은 비록 모든 사람에 해당되긴 하나 일찍이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의 근기가 아니면, 능히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한갓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여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허다히 많다.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 번 귀를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은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심결〉에 "들고서 믿지 않더라도 부처가 될 인연을 맺고, 배우고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인간과 천상의 복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다. 이렇게만 해도 성불할 바른 인연을 잃지 않는데 하물며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루고, 이를 잊지 않고 수호하는 사람의 그 공덕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再受前殃 又不知誰復使我 今値人生
재수전앙 우부지수부사아 금치인생
爲萬物之靈 不昧修眞之路
위만물지령 불매수진지로
實謂盲龜遇木 纖芥投鍼
실위맹구우목 섬개투침
其爲慶幸 曷勝道哉
기위경행 갈승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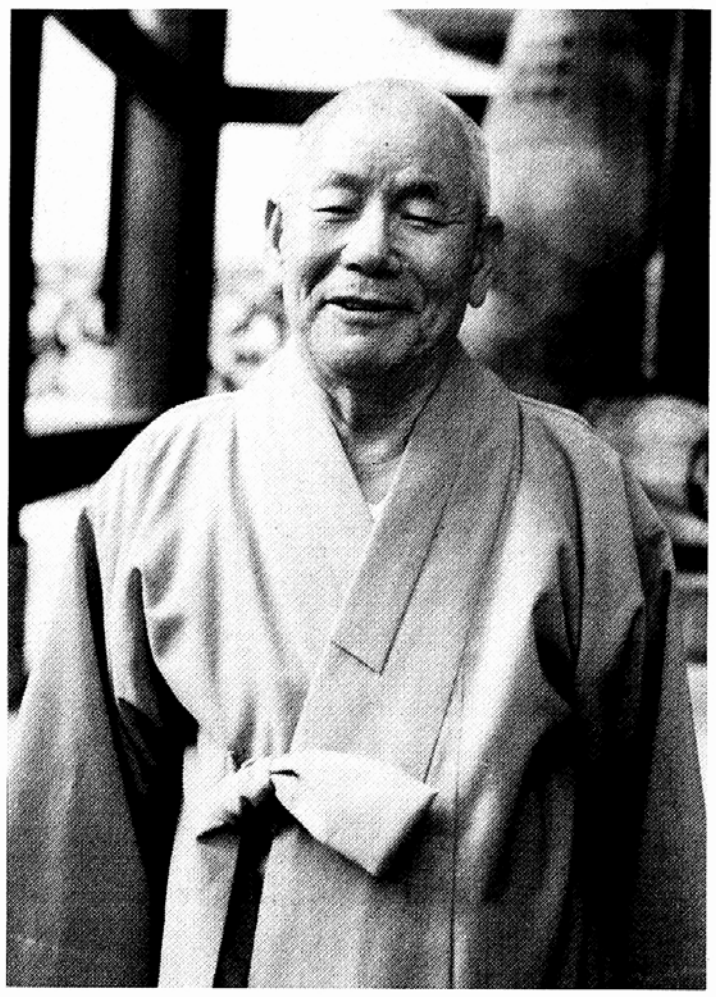
과거에 윤회하던 업을 돌이켜 보면 몇 천 겁을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 온갖 고통을 받았을 것인가. 또 불도를 구하고자 해도 착한 벗을 만나지 못하여 그 얼마나 오랜 겁을 나고 죽는 바다에 빠져든 채 깨닫지 못하여 많은 악업을 지었던가.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하면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이 나오는데, 어찌 또 게으름을 피워 지난 날의 재앙을 다시 받겠는가. 그리고 누가 나로 하여금 지금 인생으로 태어나 만물의 영장이 되어 진리의 길을 닦도록 하였는가. 실로 눈먼 거북이 나무를 만나고, 작은 겨자씨가 바늘에 꽂힘과 같으니 그 다행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매사 참고 견디면

수도스님 〈부산 용주사 조실〉



- 약력
  - 1925년 양산 生
  - 38년 통도사 입산
  - 47년 해인사 법보학원 입학
  - 49년 통도사 강원 입학
  - 54년 부산 원각사 창건
  - 62년 부산 용주사 창건
  - 78년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장 역임 · 부산새들원 불우아동 5년간 양육
  - 저서 〈반야심경 강술〉 〈천수경 강술〉 〈업경대〉등

요즘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물질로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저 시비에 걸려있거든요. 마음으로 공부하면 결코 시비가 없는데 말입니다. 시비가 있다는 것은 신심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신심이 있다면 절대로 나는 잘하는데 남은 못한다는 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평소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에서 실컷 부처님께 예경하고 독경도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절에 다니지 않는 분들과 시비를 가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따로따로 아닙니까. 그러니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몸에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업경대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선업과 악업, 그것을 틀림없이 나타내 주는 거울이라는 말이지요. 거울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잘났으면 잘 난대로 못났으면 못 난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일상 생활 중에 자신의 말, 행동, 뜻을 바르게 갖지 않는다면 바로 업경대에 비추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것대로 거울에 비치게 되고 또 그것이 자신의 업이 되어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불자들이 절에 와서만 행실을 바로 한다고 부처님이 알아 주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제도하고 성불을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공부의 처음이자 전부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성철스님을 모르는 불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성철스님에 대해서 인상깊은 기억이 있습니다.

범어사에서 있을 때지요. 나보다 한참 뒤에 출가한 성철스님은 당시 동산스님 밑에서 행자생활을 하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산스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성철에게 이것 저것을 시키되 반말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비록 출가는 먼저 했지만 나이는 어린 나에게 반말로 시키라고 명하신 것은 아마도 성철스님이 얼마나 하심하고 참고 견디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큰 인물이 될 사람이었는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하라는 대로 하더군요.

이처럼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성철스님과 같이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나는 가끔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지난 4월말에는 내가 쓴 책 5백여권을 가지고 방문해서 법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비록 죄수의 몸이 되어 그곳에 있지만 그들이 출소해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처럼 출가한 수행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실제 재소자를 만나보면 엄청나게 계획세워서 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될 일을 순간적으로 처리하다가 붙잡혀 온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죄수가 영원한 죄수는 아닙니다. 출소이후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바르게 생활한다면 다시는 교도소에 가지 않게 됩니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이처럼 사회 곳곳에 자신의 중심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습니다. 이들을 제도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 스님네가 갈 길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한 순간을 참지 못해 시비도 싸움도 생기는 것 항상 자기를 살피세요"

그러나 지금 많은 이들이 직책에 연연하고 물질에 연연하며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세간 살림살이가 분쟁 시비로 얼룩진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상대를 탓하고 남을 비방하면 언제든지 시비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서로 서로 "나의 잘못은 없는지" 반성해 본다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더욱 지혜로운 해결이 나올 뿐이지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초등학생정도나 됐을 아이 둘이 삶은 옥수수 하나씩을 들고 타더군요. 둘이서 옥수수 껍데기를 벗겨서 맛있게 먹었는데, 다 먹은 후에 살펴보았더니 한 아이는 옥수수를 얌전히 먹어 입가에 묻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그에 비해 다른 한 아이는 함부로 먹어 입가에 옥수수 조각들이 온통 묻어 지저분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입가가 깨끗한 아이가 자기 친구 입가에 옥수수가 묻어 지저분하니까 자꾸 자신의 입가를 손으로 닦아내더군요. 친구 입가에 묻어 있으니 자신의 입가도 그렇지 않나 걱정스러웠던 게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입가에 덕지덕지 옥수수를 묻힌 아이는 앞에 있는 친구가 깨끗하니까 안심을 했는지 닦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티가 없고 깨끗한 이들이 상대 얼굴의 티를 보고 오히려 자기의 얼굴을 씻고 또 씻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을 비방하길 좋아하고 시비를 가리길 좋아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참회하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경도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행실 하나라도 나 먼저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음의 보헌 캐나다 산삼

산삼은 지구 북위 50도 선상에 의식과 물질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밤하늘 은하수가 선명히 보이는 곳에서 그곳의 정기를 받아 자생하므로 우주 만물의 근본인 청정한 한마음의 상징이다. 옛부터 산삼을 이름하여 "삼"이라고 불러왔다.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캐나다 일부 지역뿐이다.

산삼이란 말 그대로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한 삼을 산삼이라고 한다.
산삼씨앗을 동물이 섭취하여 배설로 인하여 자란 산삼을 천종이라 하며 산삼 씨앗이 자연 상태로 떨어져 자란 산삼을 지종이라 한다.
이외에 사람이 관리, 재배한 삼은 인종, 장뇌, 장뇌산삼이라고 하는데 이는 산삼이라 할수 없다. (또한 관리 재배된 삼은 절대 30년이상 자라는 삼은 없다)

산삼은 약도 약초도 아니며 산삼의 정확한 이해로 산삼을 캐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 구입하는 사람, 먹는 사람 모두가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생명이 될 때 모두가 모든 병고의 역경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산삼과 인연을 맺게 되는 분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자신의 근본 자리에서 맺어주는 인연이므로 본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산삼을 구경하시고 마음에 닿은 산삼을 선정하여 연락주시면 상호 산삼대금을 약정하고 운송료와 최소의 경비를 먼저 보내주시면 산삼을 보내드립니다. 산삼을 받으신 다음 약정한 산삼 대금은 자신의 근본과 둘이 아니신 가까운 곳 부처님전 불전함에 내는 사이없이 내가 함이 없이 내시면 됩니다. (절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지켜보는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산삼과 인연을 맺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미리 연락 주십시오.
상세한 것은 본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묻도록 하라. 자신의 마음이 나침판이다.
- 부처님 법어 중에서

홈페이지 주소 :
http://webhome.idirect.com/~hayandol/sansam
e-mail : hayandol@idirect.com
Fax : 001-1-416-224-0152
Tel : 001-1-416-224-2613
Address : 4710 Yonge St. Toronto, Ontario
Canada M2N 5M4
정 호 합장

완전 초보에서 60일에 영어회화가 술술해진다??

영어 문장 자동 암기 TAPE
AMT AUTO MEMORY TAPE
2-3년의 시간과 노력을 60일만에

방법만 달리하면 최단 시간내 가능!!

삼보에 귀의하옵고
코리아헤럴드 A.M.T (AUTO MEMORY TAPE)는 영어의 기본요소인 형태(FORM), 의미(MEANING), 사용(USE) 중 한국인이 가장 취약한 사용(USE)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특수 기능성 TAPE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영어문장 자동 암기 TAPE

"A.M.T"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

A.M.T. PORGRAM은 한국어 구조에 익숙한 우리의 중추대뇌신경을 영어 발성구조로 변화시켜 줍니다. 영어식의 생각의 틀 형성 및 발성구조가 영어식으로 바뀌게 하는 PORGRAM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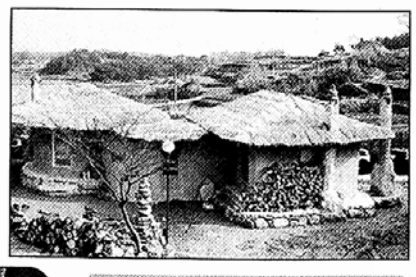
AMT는 50년 전통의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가 최초로 검정 감수한 영어회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M.A.P(Master and pay Later) 마켓팅은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영어학습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해 망설이는 분께 학습을 마친 후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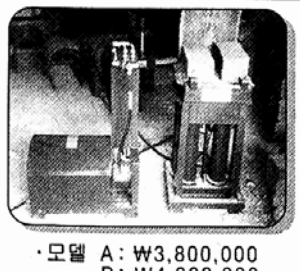
영어문장 자동암기 TAPE학습 및 프로그램 문의
051-861-7705 척척영어 코리아헤럴드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 이 가능 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앤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11월 한달 세일~!! 50대 한정 ●가격● 삼백만원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의 극락 얻어요"



◇1950년 3월 범어사 금강계단 수계후 계사 동산스님(사진 앞줄중앙)을 모시고 월하스님(앞줄 오른쪽 세번째)과 기념촬영한 수도스님(앞에서 셋째줄 왼쪽끝).

"물질 탐하고 명예집착하니 내속에 갖추어진 불성 못찾고 어리석게 허송세월 보내요"

남의 허물 보기전에 내 허물 씻어내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업이 돼요

다. 그저 일거수 일투족을 조심 조심 살펴가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것, 즉 자기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진정한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나는 첫째로 자기 자신을 바로 알라고 하고 둘째로 무조건 잘 참을 줄 아는 도덕인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을 수 있을 때 바로 극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참을 줄 모르면 절대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나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앞서간 많은 이들의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6.25때 종군포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옛 부산시청 옆에 육군병원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은 병사들이 줄지어 입원했습니다. 그때 나는 부상당해 입원한 그 분들께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팔다리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 소중한 여러분의 팔다리를 끊어 나라의 기둥을 세운 것이니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구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지식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육신을 희생한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과를 제대로 안다면 내 몸이라 해서 내 생명이라 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 더 자신의 마음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출가해서 행자생활 할 때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말로는 다 못합니다. 속가 집에서 몸이 너무 아파 부모님 걱정을 많이 시켰습니다. 보통학교 6년을 다녔지만 몸이 아파서 결석을 자주하고 아버님이 나를 업고 학교에 갔을 정도였습니다.

졸업은 겨우 했지만 병치레하느라고 학교 나간 날 수는 3년도 안될 정도였죠. 아들 4형제중 셋째였는데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도 아버님과 다른 형제들이 육고기나 생선을 사서 구워먹으면 그 냄새가 너무 심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먹었을 정도로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죽을 것 같았는지 아버님은 나를 절에 보내시기로 결심을 하시더라구요. 그래 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통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속가 고향이 양산 상북면이라 통도사에서 가까웠지요. 3년 동안 행자생활을 하고 나서 삼계를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시켰던 게지요. 너무 힘들어 울기도 많이 울었건만, 집에서는 그렇게 아프던 몸이 깨끗하게 낫고보니 그것이 신기해서 집에 갈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참고 견딘 것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나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노전시공이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시키더군요. 그전에는 공부를하려고 해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컸었나봅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라 법당에서 조그만 초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다가 빨리 자라고 꾸중을 듣곤 했습니다. 공부에도 때가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고봉스님이 강사로 있던 해인사로 가서 사교를 배운 이후, 통도사 혜련스님께 대교를 배웠습니다. 혜련스님은 〈화엄경〉 술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는 노전시공을 하게되었습니다. 상노전, 중노전, 하노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중노전인 관음전, 용화전, 자장각, 대광명전 네 법당을 맡아 시공을 하게 되었지요. 아침 청소부터 사시마지, 예불까지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루에 한번씩 촛대, 다기를 청소를 해야하니 한시라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스님이 된다는 것은 바로 참고 견디며 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철이면 스님들이 개울 얼음을 깨고 구멍을 만들고 그곳에서 걸레를 빨아 오게 했습니다. 그 얼음물에다 손을 담그고 걸레를 빨면 얼음에 손이 비기도 하고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얼어서 물기를 꼭 짜지 못한 채로 가지고 가면 다시 빨아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다시 빨러 가지요. 몇차을 환하게 외웠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 스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도 큰 복이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해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열심히 배웠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시쳇말로 뼈와 살이 됩디다.

〈무상게〉에 보면 "서쪽에 계시는 아미타여래의 뜻은 가장 옳고 당당하다. 스스로 깨끗한 마음은 본 고향으로 돌아간다. 묘체는 맑고도 맑아서 처소가 없건만 산하대지에 참다운 빛을 나투더라"는 게송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의 맑고도 맑은 빛을 얻어야 합니다. 고정된 처소가 없지만 산하대지에 모습을 나투는 아미타여래처럼 우리 안에 본래 밝아 있는 마음자리를 밝히는 것이 불교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내속에 이미 불성이 갖추어져 있는데 물질을 탐하고 명예에 집착하며 살다보니 귀중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집이 있었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모든 가족이 다 죽고 며느리만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그것을 본 제석천왕이 스님으로 화해 도움을 주려고 살펴보니 이미 그 집안에 보배가 있는 것이었어요. 스님의 모습을 한 제석천왕은 주인에게 하룻밤 자고 가자고 청하고는 그날 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창고 밑바닥에 묻혀 있던 황금 항아리를 찾아내 주인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집안에 이렇게 좋은 보배를 놓고도 발견하지 못해 여태껏 온갖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것이오. 이제부터는 보배를 가지고 고통 없이 잘 사시오".

이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이미 보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서 해야 할 일은 각자 지니고 있는 보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 즉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미 갖추어진 보배를 찾아 참 지혜인으로 당당하게 살도록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박병욱 〈LG 이수화학 연구소장〉

틈나면 금강경 읽으며 마음공부
긍정적 사고 바뀌면서 보람커져

지난 10월부터 금강경독송회 울산법당에 다니면서 마음닦는 법을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수행은 아직 초년생이다. 내가 이 법을 만나게 된 계기는 지난해 6월 장인어르신 때문이었다. 장인이 돌아가시자 집사람은 평소 알고 지냈던 속초의 한 스님에게 재를 올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스님은 책보시를 하라고 권했다. 49재 대신 〈금강경〉을 보시하게 된 것이 〈금강경〉 독송 수행의 인연이 됐다.

나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웬지 모르게 마음 닦는 것이라든지 깨쳐야 된다든지 하는 메아리가 자꾸 들려왔다. 그래서 요가, 단전호흡, 명상, 성경공부 그리고 오행생식까지 했다. 그러나 텅빈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다만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앞서 행한 것들은 밖에서 새로운 것을 구하면서 채우는 공부이고, 〈금강경〉 공부는 어두운 마음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 등을 비우는 공부라는 것이다. 가령 흙탕물을 맑히려고 할 때 아무리 깨끗한 물을 넣더라도 여전히 흙탕물일 뿐이다. 흙탕물 자체가 비워져야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채우려면 일단 비워야 되는 이치와 같다.



나는 금강경독송회에 다니면서 처음 접한 것이 김재웅법사의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이란 불서였다. 이 책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금강경〉의 진리를 믿고 따르면 되겠구나하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 때부터 가정과 회사에서 틈만나면 공부를 하였고 법당에도 열심히 다녔다. 얼마후 나는 새벽 금강경 7독송부터 시작해 하루 내내 공부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회사까지 30~40분 소요되는 출근시간에는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는 연습을 하였고, 회사에서도 한가한 시간을 이용 5~10분정도, 퇴근시간에는 〈금강경〉이나 강의테잎을 듣는 등 〈금강경〉을 통한 마음공부에 진력했다. 처음에는 온갖 망상이 공부를 제대로 할 지어는 이를 견디다 못해 집에까지 가져가서 걱정하다 잠도 자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금강경〉 법을 만난 것이 큰 영광이고 행운이다. 그래서 연구원들에게도 〈금강경〉의 귀중함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말해 준다. 대부분 연구원들은 실패한 연구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을 담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원들의 마음을 보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더욱 정진한다. 이것도 보시의 한 방편이란게 나의 생각이다.

이러한 신행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심이 더해지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을 내니 일의 보람이 배가되고, 사고도 긍정적 적극적으로 바뀌어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공경심이 절로 들었다. 그후부터 회사의 어른들을 뵈러 가기전에는 꼭 〈금강경〉을 읽는다.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정진하고 가면 마음이 안정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항상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수행이다.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선(禪) 302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어떻게' 도업(道業)을 이룰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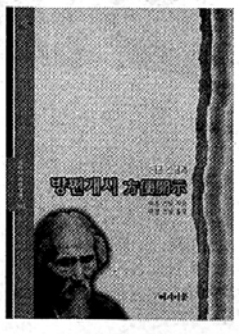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종일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허운 스님의
방편개시
方便開示

도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西天)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허운 스님은 누구인가?

허운(虛雲)스님은 1840년에 중국의 복건(福建) 천주(泉州)에서 태어나
1959년 세수 120세 승랍 101세로 운거산에서 입적하였다.
청말(淸末) 이후 쇠미해진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킨 고승으로 추앙받는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30대부터 여러 곳을 두루 돌며 참학하다가
43세 때 3보 1배(三步一拜)로 오대산을 참배한 뒤,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불교 성지를
순력하였고, 56세 때 찻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쳤다 한다.
특히 스님은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하에서도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의 파괴를 막았으며,
수십 개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허운 스님 지음 / 대성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 값 6,000원

"만복대 올라 태초의 세계 보았네"

백두대간 속으로

〈4〉

지리산 ③ 〈끝〉



◇만복대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지리산의 능선. 거침없는 화가의 붓발처럼 본연의 천진스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천왕봉부터 노고단까지 도열하듯 서있고
섬진강 물줄기며 무등산까지도 지척인듯

"어떻게 해야 그대와 함께 신선의 짝이 되어 기러기보다 더 높이 날아 우주 밖으로 노닐며, 눈으로는 태초의 세계를 보면서 우주의 기가 다하는 것을 보겠는가?"

이는 〈동문선〉에 실린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 1464~1498)의 '속 두류산 기행'에 나오는 말로, 지리산 천왕봉에 오른 김일손이 그의 친구 백욱(佰勗) 정여창(鄭汝昌)에게 한 말이다. 이에 대해 백욱은 "그렇게 될 수 없다"며 웃고 말았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지리산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꿈을 꾸게 되는 모양이다. 그 꿈은 참으로 우주적인 것이어서, 범인에게는 말 그대로 꿈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만일 백욱이었다면 "아무렴, 그것도 지금 당장!"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이 가능하려면 '나'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불교적 시간관으로 보면 시계나 달력으로 분절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흐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의 존재 양태는 '지금이 순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순간순간이 곧 태초이다. 법성게의 한 구절처럼, '찰나가 곧 끝없이 긴 시간(一念卽時無量劫)'인 것이다.

만복대에 오르면 '태초'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늘을 비질하듯 일렁이는 억새를 사이로 장상(1433.4m) 오르면, 그곳에 태초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막 태어난 햇빛과 바람이 몸을 부딪치며 은빛 군무를 펼치는 가운데, 멀리 천왕봉에서부터 노고단에 이르는 지리산의 등성이가 도열하듯 다가선다. 지리산의 심장이라 할 반야봉의 가장 웅장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 만복대이다.

만복대에 이르는 길은 지리산의 다른 봉우리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 지리산의 주릉이 북쪽으로 몸을 틀어올리는 성삼재에서 출발해도 반나절이면 되고 정령치에서 오르면 한 시간 남짓으로 충분하다.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노고단 산장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출발하여 먼저 종석대(1356m)에 올라 지리산의 남쪽과 서쪽을 조망해 보는 것도 빠놓기 아까운 즐거움이다. 아스라이 펼쳐지는 섬진강 물줄기에 눈을 적시고 고개 들어 멀리 서쪽을 바라보면, 무등이 저기다. 가까운 듯 싶어 거리를 가늠해볼라치면 아득히 멀고, 구름에 몸 담그고 있으니 높이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무등산(無等山)일까? 이 땅 현대사의 비극 한 웅큼을 고스란히 안고 사는 산으로 보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도 경화를다. 산의 덕(德)이란 게 바로 그런 것인 모양이다. 부디 그 덕스러움 다함 없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언제든 편안히 기댈 수 있기를 빌어본다.

만복대에서 바라보는 지리산의 산주름은 공력 높은 화가의 거침없는 붓발 같다. 도로 때문에 만들어진 산허리의 생채기가 약간의 속기(俗氣)를 드러내긴 하지만 본연 만큼은 그대로 천진(天眞)이다. 변화하는 모습 또한 자재롭기 그지없어서, 천변만화라는 표현은 너무 진부하고 변덕스럽다는 말은 너무 천박하다. 이로 볼 때, 자연스럽다는 것은, 날날이 곧 우주이고 우주 또한 날날으로 현현한다는 화엄의 세계관을 일컫는다 하겠다.

만복대에서부터 백두대간은 지리산과의 작별을 준비해야 한다. 한시간 조금 못미치는 거리에 있는 정령치를 가로질러 고리봉(1248m)에 이르러서는 북서 쪽으로 발길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봄이면 진달래 고운 바래봉 능선을 눈길로만 더듬어야 하는 아쉬운 순간이기도 하다.

지리산을 벗어나면서 독자분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겠다. 실제로 백두대간 취재진은 지리산을 일찍이 벗어났다. 그러다보니 취재를 한 시점과 글을 쓰는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현장감이나 계절감을 생생히 전달할 수 없었다. 신문 연재의 걸음이 발걸음과 다른 탓도 있지만 지리산을 한두 번에 소개한다는 게 아쉬워서 세 번에 걸치다 보니 생긴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백두대간 종주와 연재의 걸음이 일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지리산의 계곡들

칠선계곡 천왕봉에서 발원한 물을 임천강으로 흘려보내는 계곡이다. 설악산의 천불동계곡, 한라산의 탐라계곡과 함께 남한 3대 계곡으로 손꼽힌다. 삼천폭포, 대륙폭포, 칠선폭포, 선녀탕 등 시리도록 푸르고 힘찬 물길을 품에 안고 있다.

한신계곡 백두등의 상류를 이루는 계곡이다. 급류와 어우러진 우람한 바위가 계곡미의 진수를 보여준다.

뱀사골 반야봉과 연하천 사이의 원시림을 누비며 아름다운 경치를 빚어내고 있다. 단심폭포와 병풍소, 탁용소와 오룡대 등의 절경을 간직한 곳이다.

피아골 가을 단풍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이다. 피아골의 단풍을 3홍(三紅)이라 하는데, 붉은 산과 그 빛을 담은 물빛, 그 속에 깃든 사람이 붉게 물들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과 아군 즉 피아간의 공방이 치열했던 데서 유래된 이름이라 한다.

대원사계곡 한여름에도 아리도록 시린 물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다. 넓고 경사가 완만하여 가야시대부터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은 곳이기도 하다.



◇만복대 정상 부근의 억새풀길. 햇빛과 바람과 억새가 만나 몸을 부딪치며 은빛군무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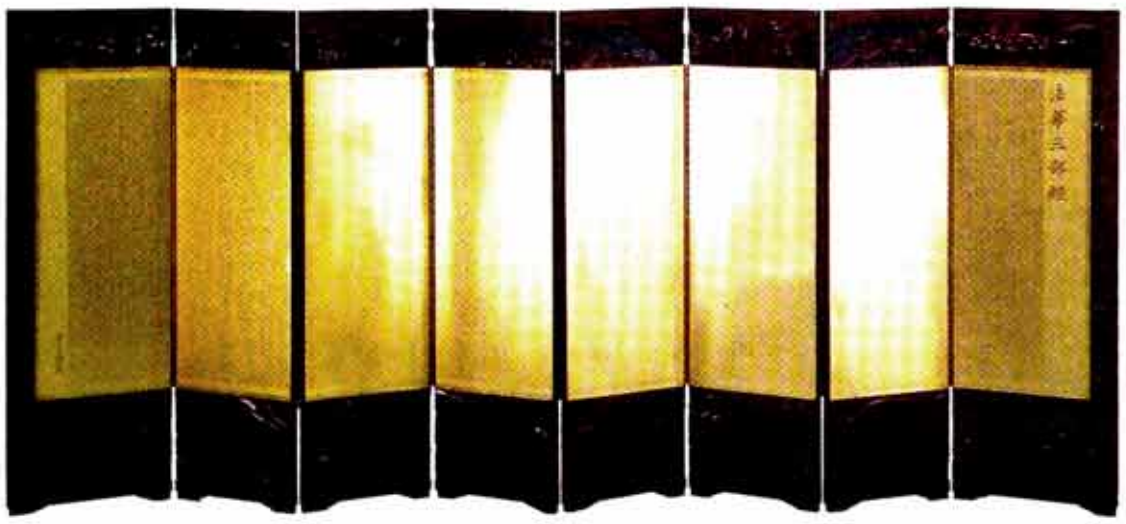
法華三部經(법화삼부경)金泥(금니)8폭조각병풍

시방삼세에서 가장 최고의 법(法)이며,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 일대사 인연의 모든 진실을 밝혀 놓으신 법화삼부경이 오늘 이자리에 금니 팔폭조각 평풍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법화삼부경(法華經)은 개경(開經)인 무량의경 3품과 본경(本經)인 묘법연화경 28품과 결경(結經)인 불설 관보현보살행법경 1품을 말하며, 총 32품에 8만4천여 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화삼부경은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시며 8만4천여자의 경문은 문자 하나 하나가 모두 법신(法身)의 참부처님임을 나타내는 경문으로서 이를 1년여에 걸쳐서 웅장하고 장엄스러운 대작불사(大作佛事)의 성품(聖品)으로 조성 승화시킨 본 법화삼부경 금니 팔폭조각 병풍은 지금부터 제불보살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될 삼천 삼백 불자(佛子)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소중하게 모실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모심은 곧 부처님 몸을 모신 것이 되며,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잇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를 모시게 될 불자는 그 공덕으로 그 시절부터 현세는 물론 대대손손으로 집안에 불은(佛恩)이 항상 함께 하시며 자손의 번창과 재물의 풍족과 가문의 번영을 구가하며 살게되는 큰 가피를 받게되는 선택된 불자(佛子)가 될것입니다.

귀의 무량의경
귀의 묘법연화경
귀의 관·보현보살행법경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품 한품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품 한품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전면



후면

- 부처님의 지중한 공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법화삼부경 금니 팔폭조각 병풍은 이를 모실 인연 있는 3천 3백명 불자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연락 주시면 카타로그 및 설명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성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0335)334-9490, 334-9491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가 실험하고 체험하며 사는게 참선

五種大恩 아는 사람이 보살행 할 수 있어
둘로 보지 않으면 세상만물과 서로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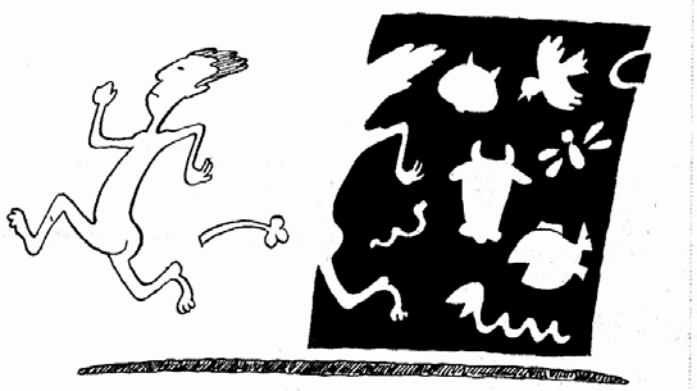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누군가가 잠을 깨워줍니다

문 저는 불교를 접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교리를 배우고 원을 세워 기도를 하고 놀라운 경험도 하곤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뵙기를 간절히 청하던 어느날은 제가 경영하고 있는 가게 입구에 서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을 뵙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스님의 법문을 읽어 오면서 주인공 공부를 생활화하고 있던 중 저의 경험담을 큰스님께 아뢰어 간절히 깨우치고 싶기에 몇자 올립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면 누군가 저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하며 매일같이 새벽마다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어나, 그만 자' 하고 두 번 깨우길래 눈을 떠보니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답 내 항상 얘기하죠. 법당에 들어오면 일체를 다 부처님께 맡기고 하라고요. 그래서 삼정례를 하든지, 칠정례를 하든지. 자기가 시간 여유 있는대로 하고 나가면서 끄트머리에는 몽땅 또 자기한테 넣고 가라구요. 주인공으로 하나가 돼서. 그러기 때문에 빛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 거죠. 마음은 빛보다 더 빠른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찰나에 들어오고 나가지만은, 우리가 불 들어오고 불 꺼지는 것만 알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모르듯이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알려서 공부를 더 반석에 놓이게 할 양으로 그러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이런 걸 보았다' 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이 통한다면 스스로 떳떳해요. 그래서 자기 힘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스님,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만 결정이 날까요?" 하고 물어온다면 그럴때,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인 것이죠.

그리고 "주인공에만 맡기고 살면 된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참 셋방도 얻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스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없는 돈을 다 긁어서 전세를 얻어 줬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다가 '나'라는 존재가 발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 보느라고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거를 모르고 자기는 주인공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거기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의당히 옳지 않다면 '이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아, 이거는 옳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고 없어질텐데 그렇지 않고야,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절에 호박을 심었습니다. '이 호박 이파리 따가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나니까, 이것도 주인공이 '그러니까 괜찮다 하고선 따가는거야.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공부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그것은 네 마음이 너를 제도하고 네가 마음을 바로 이끌어가는 데에 있는 거다. 서로가 서로를 바로 맞춰서 유와 무를 합쳐서 현 생활에 조금도 어김없는 길을 걸어야 이게 공부다 이겁니다. 보이고 들리는 현상에 끄달리지 말고 그 자리에 놓고 더 열심히 관하시기 바랍니다.

물리가 터지려면…

문 물리가 터진다는 법문은 여여하신지요? 제가 8~9년 전에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을 때입니다. 항상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라는 마음으로 법당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서 '그냥 한생각 바치면 되지.' 하는 주인공의 지혜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옆을 보니 한마음이라는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을 보는 순간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대행스님의 법문을 찾아 읽고 주인공을 관하면서 주인공을 생활 속에서 나의 중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즉시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잖어!' 하는 마음으로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법문에 물리가 터져 나온다는 말씀에는 아직 확실한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물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 모두 참선, 좌선 한다고들 하시는데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생활을 떠나서 참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 법도 없습니다. 생활을 떠나서. 그러기 때문에 좌선을 한다 와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행선 · 와선 · 입선 · 좌선 이 모두가 앉으나 서나 생활이 그냥 참선이기 때문에 그걸 한데 합쳐서 참선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앉아도 여러분이 앉은 것이고, 선 것도 여러분이 선 것이고, 눕는 것도 여러분이 눕는 것이고, 똥 누는 것도 여러분이 똥 누고, 먹는 것도 여러분이 먹고, 자는 것도 여러분이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부처는 없죠. 아니 부처만 없는 게 아니죠. 세상도 없고 가정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론이나 학설, 말을 잘해서 연구를 잘하고 또 교리를 잘 알아서 체계있게 한다고 해도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마음을 잡고 발견해서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기르고 생활이 과학인 줄 알고 그대로 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이 세상에 어린애를 낳는 것도 바로 과학입니다. 벼를 심어서 쌀을 만드는 것도 과학입니다. 그 쌀로 밥을 지어 놓는 것도 과학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과학 아닌 게 없습니다. 어느 거는 과학이고 어느 거는 과학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속에서 물리가 터질려면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왜 스님네들이 허허 벌판에 가만히 앉았기도 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그냥 풀섶에 그냥 앉았고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앉았기도 하고 천둥번개가 치고 그러는데도 앉았기도 하고 높은 산골짜기에 앉았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한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쇳송을 했지만 오종대은(五種大恩)을 알라.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생명 전체에 감사할 줄 알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내지 않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도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 · 수 · 화 · 풍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이 세상 풀 한 포기도 감사히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겁니다, 곤충 하나도.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똥고 쫓으면서 먹히고 먹으면서 이 세상에 거듭거듭 거쳐나오면서 진화돼서 인간이 제일 나중에 났다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모가 내 부모요 어느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거듭거듭 거치면서 짐승의 부모도 됐다가 짐승의 자식도 됐다가, 곤충의 부모도 됐다가 곤충의 자식도 됐다가,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됐다가 딴 부모가 되고, 거듭거듭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흩어지고 또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 인생살이가 같습니다. 그러니 남의 부모만 남의 부모고 내 부모만 내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 도리가 바로 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종대은을 아는 사람, 그 모두 둘이 아닌 줄을 아는 사람은 보살의 행을 할 수가 있다. 모든 데 착을 두지 않고 사랑할 줄 알고….

이 몸이고 흙이고 돌이고 생명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돌아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를 가지고 이거 끊어질까봐 붙들고는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타의에서 구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진실되지 못합니다. 진실되게 믿으면서 진실되게 구하고 진실된 나를, 참나를 구하는 소식을 그때서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살아보시지마는 어떠한 경험을 얻는다 하더래도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기술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생활에서 행하면서 그대로 참선이라고 하는 데도 그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모든 거를 잘 살펴서 세 가지가 다 충분해야만 따르라고는 했습니다, 뜻과 말과 행을 따르라고! 믿는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즉 수십억 마리를 마음으로 다스려서 한마음으로 묶어 세운다면 바로 주장자입니다, 그게. 그리고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면서도 찰나찰나에 돌아가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런 풀잎 하나도 감사하고 저 물이 흘러가는 것도 감사하고…. 물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 같이만 살았으면 아무 일 없을텐데….' 물이 그럴 겁니다, 아마. '나는 어떤 게 막혀도 그냥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데 사람들은 막히면 뚫고 나갈려고 애쓰니깐 더 막히는 거지' 하고 흉을 봅니다. 흙은 흙대로 자기처럼 살라고 합니다. 아무리 파 제끼고 아무리 해도 왜 파느냐 아프다 어떻다 한 마디 없어요. 뒤집건 메꾸건 뭐 짓밟건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바로 그렇게 둘로 보지 않는다면 서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해요. 개가 반갑다고 그냥 서로 싸우는 거 같이 보이죠? 그건 사람들이 들에 부부가 나가면서 서로 장난하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사랑, 사랑 하는 소리가 그냥 들리지만 사람이 볼 땐 싸우는 걸로 봅니다. 이 모두 나같이 알고 즉 여러분 같이 알고 감사히 생각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라. 국왕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국민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부모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형제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모든 은혜,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수는 없죠, 혼자 산다면 웃도 입지 말아야 하고 먹을 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뭐 땅도 딛지 말아야 하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주 만유를 창조해 나가는 인연의 필연적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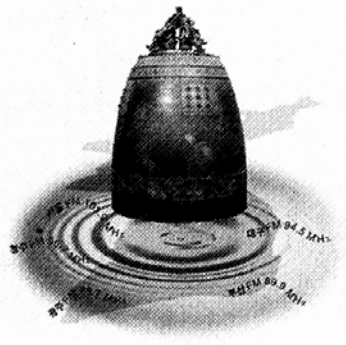
☞ 16면으로 계속

내마음이 나를 제도하고
내가 마음을 바로 이끌어
현실에 맞아야 바른 공부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 후원회 ARS : (02)700-0108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 주소 :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전화 : 02-705-5114)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간
05	00 아침 예불 (송가대스님)							05
	45 마음을 비우고 (박홍식ANN)							
06	00 뉴스 (박홍식ANN)							06
	10 정토공부 (법초스님-이선희ANN)							
	30 교수열전 (구민 外-이명학ANN)							
	40 교리강좌 (혜정정사)							
07	00 뉴스 (박홍식ANN)						05 신행 365일(김용림)	07
	10 신행 365일 (김용림)						10 참선 이야기 (육락스님-최은경ANN)	
	15 박종돈의 아침저널 1부 (박종돈) (ANN)							
08	00 BBS 뉴스광장 (보도팀,장수연ANN) (08:25-08:30 L)						00 법요와 죽비(선상신RE)	08
	30 박종돈의 아침저널 2부(이현정ANN출연) (L)						20 사찰순례 (최은경ANN)	
09	00 뉴스 (장수연ANN)							09
	05 차한잔의 선율 (전명스님) (금) 거북한 만남(도현스님)							
10	00 뉴스 (이선희ANN)						00 라디오법회 (이명학ANN)	10
	05 차비의 전화 (혜거,원명,본각스님, 최은경ANN)							
	55 반야심경(우리말) (성수스님)							
11	00 뉴스 (박정원ANN)							11
	10 행복 스튜디오 황정원입니다 (황정원)						05	
12	00 정오종합뉴스 (박정원/최은경ANN) (12:15-12:20 L)							12
	20 최영준의 백곡가요 1부 (최영준)						10	
13	00 뉴스 (박홍식ANN)							13
	05 최영준의 백곡가요 2부 (최영준)							
14	00 뉴스 (이현정ANN)							14
	10 퀴즈 대장정 (정유덕/장수연ANN)						05 우리 가락의 향기 (송혜진)	
	50 교수열전(재) (구민 外)							
15	00 뉴스 (이선희ANN)							15
	10 BBS 생활상담실 (이현정ANN) (L) 월(지과-권순만) 화(한과-김용란) 수(소비자-도영숙) 목(한방-김동호) 금(의과-선종대) 토(법률-최광복성)						05 법요 교양 강좌 (최은경ANN)	
	15 불교음악 (ANN)							
16	00 뉴스 (최은경ANN)							16
	10 음악의마을 (이선희ANN (L)						05	
17	00 뉴스 (최은경ANN) (L)						00 장병의 시간(이현정ANN)	17
	10 부명을 받히고 (이명학ANN,최은경ANN)						20 일요초대석(김혜경)	
	BBS 재테크 (박정원ANN)							
18	00 저녁예불 (송가대스님)							18
	15 정연수의 정보 가이드 (정연수)						15 룸비니 동산(자용스님)	
19	00 BBS 저녁종합뉴스 (이명학/이승휴ANN)							19
	30 부동산 정책 (이성태)						10 길을 찾아서 (김정)	
	55 우리들의 관음가 (장수연ANN)							
20	00 뉴스 (이승휴ANN)							20
	05 김병조의 다시듣고싶은노래 (김병조)							
21	00 뉴스 (이승휴ANN)							21
	10 신행 365일(재)) (김용림)							
	15 정토공부(재) (법초스님)							
	35 반야심경(한문) (성수스님)							
	40 교리강좌(재) (혜정정사)							
22	00 교계뉴스 (이명학ANN)							22
	05 영화음악실 (박홍식ANN)							
23	00 뉴스 (이명학ANN)							23
	10 BBS 역사산책 (김상영교수)						05	
24	00 삼며 생각하며 (효리스님)						00 그리운 등불 하나 (명귀희)	24
01	00 한밤의 명상 (이승휴ANN)							01
	55 사홍서원 (합창단)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본래 있는 마음근본 깨치는 게 수행목적

☞ 15면에서 계속

그러니 큰 것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지혜를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하게 떼어나간다면 그 안에서 물리가 터지는 기쁨과 고마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나 이해의 기준 있습니까

문 사람이 싫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사람이 나쁘다는 것은 과연 어느 만큼 용납이 될 수 있을 까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뻔히 보이기에 더욱 괴롭습니다. 차라리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부딪치고 나면 나름대로 안정되었던 마음이 다시 미움으로 찹니다.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면서 무시해도 마음이 쓰이기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내 업보다 라고 하면서 내내 다스려 보려 하지만, 이내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용서나 이해 이런 것에도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답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자기 내면의 주인공이 하지 않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와 같이 지금 차가 놓여 있는데 모든 차들은 운전수가 하지, 이 차가 운전수를 몰고 다니는 법은 없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자기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면 운전수가 차 끌고 다니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 차가 고장이 나면 운전수가 고쳐서 끌고 다닙니다. 딴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꼭 운전수가 차 고치는 데를 가든지 손수 고치든지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를 내가 끌고 다니는 거와 같은데, 그 주인공이란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진화되면서 끌고 온 장본인입니다. 운전수가 지금 현재만 운전수가 아니라, 과거도 운전수였고 지금 현재도 은전수고 미래도 운전수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수를 믿고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생각이 나면은 거기다가 맡겨, 일하면서 불화증이 일어나도 '그것도 당신 밖에 해결할 수 없어' 하고 거기 놓고, '해 주세요' 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지. 앉아서도 여유가 있으면 앉아서도 생각나면-거기다 놓고, 물통을 가지고 가면서도 거기다 놓고, 일상생활에 어느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시시때때로 나오는대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대로 거기다 놓고 거기서만이 이끌어주고, 거기서만이 해결해 주고, 거기서만이 낫게 해주고, 거기서만이 화목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보셨죠. 큰 얼음덩어리가 있는데 끓는 물 한 바가지를 갖다 부어 보십시요. 잠깐 그 거죽만 녹는 듯 했다가 다시 끓는 물 한 바가지 부은 것이 되얼어서 같이 두더기가 돼 버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몰록 그냥 놔버리면, 봄이 오면 끓는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 딴딴한 얼음은 스스로 녹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방 속상하고 힘들어도 주인공에 넣어 한번 돌려 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찔러 죽이리만큼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르르르 봄이 와서 얼음장같은 그 딴딴한 마음이 다 녹아 버리는 겁니다. 이걸 말로만 듣고 가서 '그냥 그러더라' 이렇게 이해만 하고 돌아가지 말고 실천에 옮겨보시라 이겁니다.

내가 실천을 한번 한번 해 본다면, 벌써 스스로서 알게 되고 절대로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한다는 걸 실감하실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감으로써 내 안의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서 일상 생활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을 수 있을 때, 이 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것이 주인공 안에서 나를 공부시켜서 반석에 올려 놓기 위해서 이끌어 주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겁나요

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불교에 뜻이 있어 단기 불교대학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대행스님의 답변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말못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종의 공포증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겁에 질려 떨려서 말도 잘 못합니다. 심할 때면 책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읽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스님이 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님이 되는 것은 현실도피란 생각이 들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불교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려 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아상이 강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수행이 부족한 탓인가요? 이대로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잘못되고 잘 되고가 없고 악도 선도 없어요. 잘못된 거 잘된 것이 없다구요. 그 없는 도리를 안다면 전부 내가 공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다면 모든 세상살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자꾸 편안치 않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 표현으로 해 보죠. 한 가지는 차를 탔으면 내리죠? 그죠? 한계가 없이 그냥 타고 갈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 차를 타면 내릴려고 타고 내리면 탈려고 내립니다. 어때요? 그 답답한 마음도 또는 어떠한 마음이 생긴다 하더래도 그것은 과거의 업식에서 입력된 게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상관할게 없이 거기다가 놓아 버리고 새 걸로 바꿔서 쓴다면 좋은 거구요. 좋게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놓으세요, 자기한테 유익하게만. 자기의 가정에도 이익하고 자기에게도 이익하고 모든 게 이익하게만 생각을 해서 놓으세요. 바꿔 놓으세요.

꿈을 꾸고도 잘못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관습에 의해서 쩔쩔매지 말고 또 다가오는 용도도 '이거 이렇게 다가오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나?' 하고선 고민하고 이럭하질 말고 '고민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고민 안 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 돌려 놓는다면, 믿고 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100%로 놓질 못하는 까닭이죠. 놓는다는 건 믿어야 놓는 거지, 믿지 못하면 놓지 못하죠. 우리가 걸음을 걸어 갈 때에 구덩이에 발을 떼어 놓을 수는 없죠. 그렇듯이 바로 자기 마음이 구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거기다 발을 떼어 놓을 수 없는 거죠.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좋은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관습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모든 것은 거기다가 맡겨 놓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이 조절을 해서 밝게 만들어 주는 활력소면서 재생산이거든요. 재생의 생산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생산처에다가 모든 것을 다시 바꿔서 재생을 하게끔 거기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자기 주인공을 믿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학생이 지금 생명의 근본,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한 기둥이, 기계 기둥 가운데서 중심을 타고 돌아갈 때 여러 가지에 연결된 기계가 다 돌아가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의 기둥은 움죽거리질 않아요. 힘만 배려해 주죠. 그 기둥에다가 다 놓으란 말입니다. 자기 근본, 주인공을 믿고 일상생활을 전부 그렇게 한다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맡겨 놓고, 그 힘에 다 맡겨 놓으면 다시금 새 물로다 생수를 먹을 수 있고, 새 걸로다가 굴릴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어떤 애고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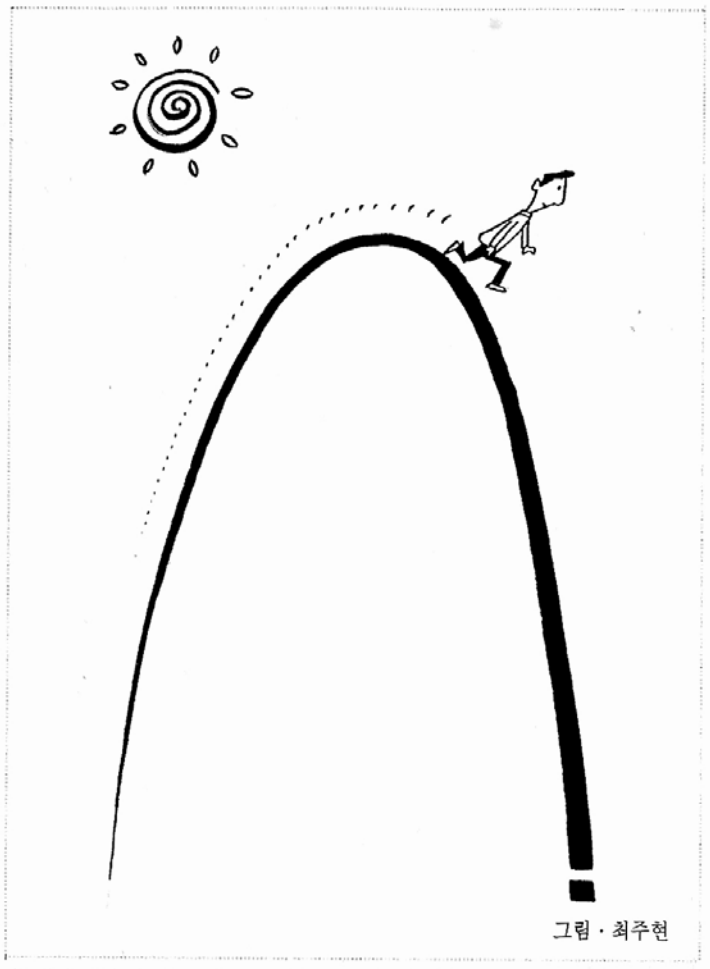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문제점 녹여지지 않아요

문 큰스님!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저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자신을 너무 하찮게 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아주아주 많아서 학교에 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나 자신의 문제를 녹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녹이려고 해도 막상 내가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저의 마음을 억제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문제점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답 우리 학생도 많이 봐왔겠지만 우리가 지내다 보면 참 가난하고 이를데 없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등록금을 못내서 학교를 못다니는가 하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안해서 부모들이 속을 썩는 사람들도 많지.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싫은 것만은 아니잖아. 자기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속의 업식이 다 '싫어해라 싫어해, 그건 해서 뭘 하니?' 하고 자꾸 하니까 거기 따라서 그냥 더불어 같이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업식이 다른 데 있는게 아니라 자기의 몸 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 악업 선업이 다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자기한테 콩씨도 붙어 있고 자기한테 진딧물도 붙어 있고 자기한테 벌레도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진딧물에 속지 말고 자기의 콩씨에게만 집중해라' 이러는 거야. 그런데 어디 그러니?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니까 자기 마음에서 진짜 나오는 건 줄 알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게 나쁜지 좋은 건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저지르는 것 뿐이야. 물론 생각해 본다고 하겠지. 그런데 잘못되게 하는 마음이 많아서 잘못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입력이 되고, 그게 현실로 나오는 거야.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입력이 되는대로 현실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한 입력을 못했을 때 입력이 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우면서 새로 입력할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바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알아서, 예를 들어서 공부가 하기 싫으면 '너만 이 공부하는 것을 재미있게 할 수 있어' 이러고 입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하기 싫게 했던 입력이 없어짐으로써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뜻을 알겠어? 배우는 사람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과거에 입력됐던 그 모두를, 누적된 모두를 지금 현실에 한생각을 좋게 발란스를 맞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 잘 생각해서, 나를 리드해서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너다 이거야. 물리가 터져야 잘못된 부분을 고칠 테니까. 지혜롭게 살게 하는 것도 너고,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것도 너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것도 너니까 잘보게 하는 것도 너야.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렇게 관(觀)해. 잠이 와서 공부가 안 된다 할 때도 잠을 안오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너고, 하기 싫다 의욕이 없을 때 의욕이 있게 하는 것도 너라고 관해서 거기다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새 입력으로서 현실에 나온다 이거야. 모든 것을 그렇게만 한다면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너의 모습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항상 이끌어주는 내 안의 주인공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거야. 우리 학생이 영원한 나의 친구이자 나의 길잡이인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거라고 믿어요.

금강경 무위법의 참뜻

문 법체 청안하신지요. 큰스님 가르침에 헛되지 않게 한걸음 전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금강경〉을 달달 외워도 무위법의 참뜻을 모르면 문자에 따르는 것이지 부처님 참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처님 참뜻에 귀가 솔깃하고 아주 매력적인 말로 들립니다. 부처님 참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수면중에 부처님 법문이 눈앞에 설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잠을 깨고나면 몽땅 잊어 버립니다. 이 법문을 기억할 수 있는 묘법은 없는지요.

답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라. 이 세상이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고, 찰나찰나 나투면서, 찰나찰나 화해서, 찰나찰나 변하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이니라."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도리 먼저,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단단히 박아놓고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해놓은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작업할 수만 있다면
화목과 사랑을 가져오고
물리가 터져 행복이 옵니다

뒤에, 경을 한번 보면 바로 그게 납득이 되고 '아하! 이게 이 소리구나' 하고 전부 탄복을 하지만은, 내가 뿌리도 제대로 박아놓지 못한 채, 그 도리를 모르는 채 책을 아무리 봐도 그냥 겉핥기죠. 그냥 이론으로만 그냥 졸졸졸 외우고선 〈금강경〉을 읽었다 무슨 〈화엄경〉을 읽었다, 〈법화경〉을 읽었다 〈능엄경〉을 읽었다 온통 읽었다는 소리는 다 하죠. 그러나 그건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도 자기가 실천할 수가 없는 도리가 되죠. 그러고 남을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배려해 줄 수가 없죠. 그것은 이론이기 때문에 한데 떨어지고 말아버리니깐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전부터 보지 말라.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서 완전히 뿌리가 박혔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때에 경전을 봐라. 그러면 경전이 너를 보지 않을 거고, 너가 경전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해결해 낼 수 있고,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실천을 할 수 있으려면 나부터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부터 알아야 하고 나의 주처부터 발견해야 한다 이 소립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한찰나에 들고 나는 내 주처가 있습니다. 이 몸뚱이는 그 주인에 의해서 항상 심부름을 해야 하고 부지런히 뛰어야 하는 그런 위치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항상, 즉 말하자면 하심하면서 위로는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아래로는 참회하면서 자기 탓으로 돌리고 맡겨놓으면서 굴려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주인공에 모든 거를 해달라고 그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잘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한다면 벌써 이거는 둘이 됩니다. 상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다면 참자기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아주 결론적으로, 당신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이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당신 거고 당신이 하는 거고 당신이 들이고 내고 '책을 보는 것도 당신이 보는 거니까 당신만이 그 책의 속 뜻을 알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이렇게 관한다 하는 거는 거기다 맡겨놓고 지켜보고 실험하라, 체험하라 이 소립니다. 이것이 참선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을 때 그 땅을 짚고 일어나지 딴 데를 짚고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그 속에서 나온 건 그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녀 잘 챙겨주지 못해 속상해

문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대행 큰스님의 높으신 법문 청하옵고자 이렇게 필을 들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길을 묻는 이에게'를 통해서 스님의 법문 잘 배우고 있습니다. 큰스님! 제가 스님께 청하옵고자 함은 저는 중학교 2학년인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애를 둔 40세의 주부입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용산으로 출퇴근을 하며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기에 밥만 챙겨놓고 나오면 애들끼리 밥먹고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애들한테 집착을 하고 있는지 애들이 늦게 학교에 가지나 않나 아침은 먹고 학교에 가는지 하는 불안함에 가게에 나와서도 전화로 몇번을 확인을 하게 되고 늦어서 아침을 못먹고 학교에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엔 챙겨주지 못하고 가게에 나와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애들한테 미안하고 죄책감마저 들며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제가 너무나 애들한테 집착을 하고 있다며 애들의 자립심을 키워주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말을 들을땐 조금 마음이 안정되다가도 애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속이 상합니다. 스님! 제가 남편의 말대로 정말 애들한테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는지요?

답 미국엘 가니까 어머니는 아침에 나가고 아버지는 저녁에 나가고 그러니, 애들을 이틀에 한 번도 보고 사흘에 한 번도 보고 이런 집들이 허다합니다. 그럭하니까 애들이 방황하게 되고, 사랑에 굶주리고 고독한 마음때문에 따뜻한 둥지를 찾아 가느라고 나쁘게들 되는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똑같으니까요. 아침에 나가는 엄마는 밥을 해놓고 반찬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냉장고 앞에다가 "너를 사랑해. 우리 식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너희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는 작업하러 나간다. 여기 여기 이렇게 넣어 놨으니까 꺼내 먹어라. 사랑해" 하고 써서 붙여 놓고 키스라도 하나 해서 거기 붙여 놓고 나가면 이 한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데에 이탈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몸으로 붙잡아 주고 말해 주고 이래서 사랑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으면서도 전달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손길이란 그렇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어가는 그 마음으로 모든 자녀들과 가족이 서로를 화목하게 이루어 나가고 또는 이탈되지 않게도 되는 방법이 거기 있죠.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공부를 안한다 하더라도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욕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전력은 이 전구나 저 전구나 똑같듯이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아들이라는 가설 또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설이 돼 있는거죠.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거기밖에는 화목하게 할 수 없다, 거기밖에는 병고를 낫게 할 수 없다, '거기밖에는 액난을 물리칠 수 없다, 유전을 물리칠 수 없다, 모든 일체를 다 구멍 없는 구멍에 맡겨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아주 화목을 가져 오고, 사랑을 가져 오고, 이탈하지 않게 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정신력이 아주 투철해지고, 모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애고 닥쳐도 되돌려 놓을때 좋게 재생돼
내가 공한 줄 안다면 세상살기 편해져요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병역필자 해외여행신고제 폐지

(생활) 내년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해외여행 때 병무청에 국외여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병역필자의 국외여행신고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금 장기체납자 금융 불이익

(금융) 국세청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세금을 장기체납한 사람에게 대출제한, 신용카드 사용 중단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거래 불이익 대상으로 간주되는 체납자는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 △3회 이상 체납한 자로 체납금 1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변호사 선택서비스 개설

(통신) 민원인이 직접 당담변호사를 선택하고 수임료까지 결정할 수 있는 '사이버 복덕방' 개념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주)로마켓 아시아는 민원인과 변호사를 연결시켜주는 사이트(http://www.lawmarket.co.kr)를 개설, 2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무료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교육) 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 자녀 94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만 30살 이하인 사람으로 고교 재학생은 학교장, 일반인은 주소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해당 지자체 정보통신교육원에 하면 된다.

통계정보 한눈에 인터넷 서비스

(통계)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했다. 통계청이 마련한 인터넷 홈페이지 'STAR-KOREA'(www.stat.go.kr)에 들어가면 107개 정부기관에서 내놓은 399종의 각종 통계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이곳에는 고용·임금·인구·경기·재정·범죄 등 일상적인 통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즐겨찾는 검색코너'도 마련돼 있다.

위염항체 항유 계란 개발

(건강)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생명과학 벤처기업인 (주)씨트리는 닭의 면역기능을 이용, 위염과 십이지장염 등의 원인균을 막는 항체를 함유한 계란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 계란이 안전성 면에서 일반계란과 동일하며 계란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서도 위염 등의 치유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IMF 경제위기 끝나지 않았건만 과소비 '꿈틀'

가구당 빚 평균 2천만원…소비재 수입 증가세

한동안 사라졌던 '과소비'라는 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IMF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씀씀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킬박사와 하이드'가 우리 경제의 모습인 셈이다.

지난 8일 문화일보와 소프레스 글로벌리서치사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6%가 'IMF위기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자료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생활형편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응답자들의 54.7%가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에 IMF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최소한 3년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소비행태는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다시 과소비 풍조에 젖어들고 있다.

지난 여름 휴가철의 해외여행 경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까이 늘었다. 지난 9월 소비재 수입증가율은 60%로 원자재의 40.7%를 크게 뛰어넘기도 했다. 백화점들은 고급 외제 화장품과 의류등의 매장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내부 구조를 변경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가구당 빚이 작년말보다 52만원 더 늘어나 평균 2000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7월 한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대 도시에서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IMF체제 전후의 소비의식 및 행태'를 비교조사한 결과도 이같은 통계가 사실임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유명상표 선호도'와 '충동구매 성향'을 보면 IMF 직후(98년 2월)에는 18.4%와 33.9%였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21.8%와 47.8%로 급등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금년 2분기 가계지출은 166만2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6만5400원)에 비해 13.5%나 급증했다. 특히 가구당 월부·외상 구입액이 월평균 5만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5.2%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러가지 통계들은 우리 경제가 아직 IMF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 경제·사회현상은 그 체제를 벗어나 망각의 세계로 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금 팔아 외국빚 갚자'던 국민적 의지와 다짐은 간데 없다.

하지만 IMF체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적정소비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만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 우리나라는 최근 과소비탓으로 무역흑자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IMF사태를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만성적인 무역적자구조에 있었음을 생각하면 과소비는 제2의 외환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빚이 많으면 국가도 기업도 가계도 결국 망한다. 또다시 외환위기를 겪고 싶은지 각자에게 다시 자문해봐야 할 때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에너지 절약위해 내복입자" 녹색연합 회원들은 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내복을 입은채 실내온도를 낮추는 대신 내복을 입자는 취지의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벌였다.

1회용품 규제 느슨해졌다

비닐봉투, 나무젓가락,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느슨해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수시로 단속을 벌이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규모가 큰 패스트푸드점 등은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동네 슈퍼마켓과 중소규모 음식점, 도시락 전문점, 재래 옷시장 등에서는 여전히 비닐봉투와 일회용품을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주일동안 행정기관으로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행명령을 받은 업소 85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가 44.7%(3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월말까지 서울시내 규제대상업소 16만2천4백여개 가운데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는 4천4백80여개소이다.

새천년 첫 태양 울릉도 성인봉 7시 24분 '본다'

우리나라에서 새 천년의 첫 태양은 섬에서는 울릉도 성인봉, 육지에서는 울산 울주군 가지산 정상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00년 1월1일 일출시각이 고도 983m의 울릉도 성인봉(오전 7시24분48초)이 국내에서 가장 이르다고 9일 밝혔다. 육지에서는 고도 1,240m의 가지산 정상에서 오전 7시26분16초에,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이 아닌 평지에서는 독도의 일출시각이 오전 7시26분19초로 가장 빠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각급학교 교원,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종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 및 의원들이 제출한 여러가지 아동복지 관련 법안을 종합 심의, 아동학대 방지와 유아 안전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성희롱, 성폭행 등의 아동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씨랜드 화재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교통안전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시론

교육의 황폐화



고진호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최근의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은 우리들 눈앞에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뜨겁고 매운 연기속에서 그을리고, 신음하다 절명한 비극적인 대참사이다. 어린 주검 앞에 선 부모들의 애끊는 목소리, 친구들의 회한의 울음소리가 TV화면을 메우고, 담당기자는 이 나라 청소년 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환락의 거리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흥청거리는 모습은 이 사건이 과거의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거론된 문제가 아니다. 일반인들에게 청소년 문제가 그 심각성에 비해 뇌리에서 쉽게 잊혀지고 마는 것은 청소년 문제가 이미 식상한 주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진부한 문제인식은 진부한 해결책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청소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항상 성인의 관점에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음을 주의깊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 "성인의 시각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위기상황 초래"

흔히 청소년들은 객관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청소년 교육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사회의 성인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 성인들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현실'과 '객관적 사실로써 존재하는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들은 흔히 사실로써의 '교육의 현실'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거나 과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청소년들에게는 일종의 가공의 현실로서 지각되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11일 밤 '학교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어느 TV 토론프로그램에서 한 학생은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 스스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데서부터 참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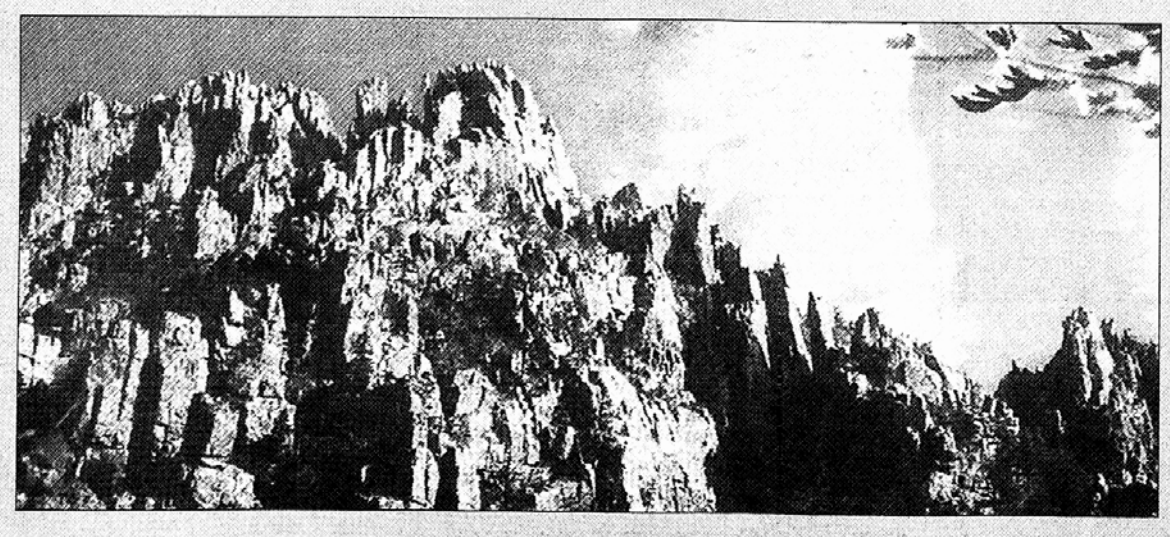
청소년 교육의 문제는 이러한 성인과 청소년의 괴리로부터 잉태한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 생활지도의 차원에서 실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예를 들어보자.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청이나 학교 혹은 담당 교사의 의도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략 '예절교육' '종교교육' '물자절약' '새생활 운동' '봉사활동'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성교육의 내용은 (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청소년의 문제현실에 대한 조망과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문제현실과 위기상황'에 대한 조망과 이해로부터 출발해야지, 성인의 '훈육의 목소리'가 더 커서는 안된다. 인성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 그리고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흔히 인성교육에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개발(開發) 컴플렉스'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발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전인격적 존재로 태어나고 전인격성을 내면적으로 간직하고 있기에, 그릇된 것을 교정하거나, 모자란 것을 보충하고,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개발적 시각은 적합하지 않다.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통합적 인격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의 발견과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성장의 기쁨이, 인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불사판촉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등기료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Tel: 02)732-1522 · Fax:02)737-0697
·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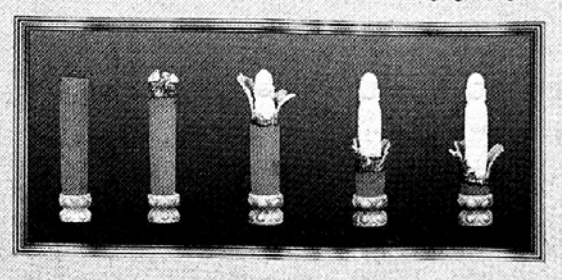
• 제조원 : 금 성 통 상 (전국대리점 모집)
· Tel: 051)324-3731 · Fax:051)324-3733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
행사중「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현상공덕향」
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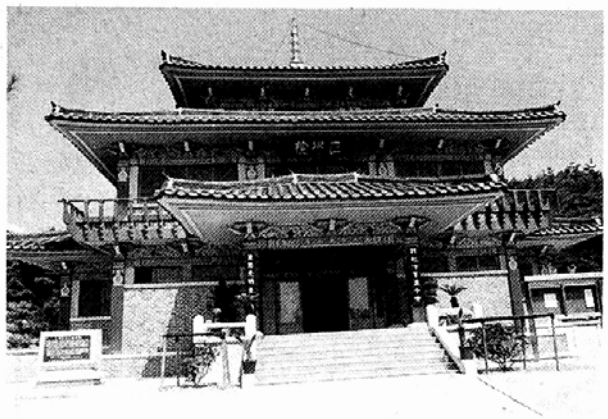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질)
·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게걸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구입처 ·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 대구 : 불광불교용품사 053)421-4768, 마하몰 대구지사 053)768-8008, 대구불교방송 사업팀 053)427-1011 · 부산 : 삼장원 051)646-6255,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08-5655, 대성불교사 051)332-0289, 부다가야 051)865-4383, 부산불교전시관 051)632-7393 · 광주 : 마하몰 광주지사 062)375-9966 · 대전 : 대전불교사 042)257-0318 · 전주 : 전주불교전시관 0652)282-7054 · 창원 : 경남불교전시관 0551)295-8911 · 진주 : 마하몰 진주지사 0591)747-0106 · 밀양 : 부용불교사 0527)352-3756 · 속초 : 광명불교사 0392)631-7907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 및 사찰내 용품점



◇일반인에게도 개방돼 수행과 성찰, 포교의 공간으로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작은 책자 〈좌선으로의 초대〉 〈염불수행〉 〈참선수행〉.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호응이 높다.

상아탑 포교 넘어 대중교화 나선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신행안내서 '불교수행의 길' 법보시

법당개방·지역인 대상 특강도 실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성본스님)이 수행관련 소책자 발간과 쪽지포교준비 등 불교종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며 교내에서 벗어나 일반인에게까지 포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대중의 마음을 열고, 보다 친절하게 불법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 발간한 생활속 수행 지침서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가 일반인과 불교 초심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재 졸업과 입학시즌에 대비해 쪽지포교지 '지혜의 말씀'도 준비하고 있다.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는 올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정각원장 성본스님이 일반인들을 위해 좌선의 방법을 쉽게 설명한 제1권 〈좌선으로의 초대〉를 법보시용으로 발간하면서 시작됐다.

정각원에서 매달 발간하는 정각도량을 통해 법보시용으로 사찰과 단체 등에 보내진 이 책자를 접한 불자들이 다시 친지와 이웃에게 법보시하겠다고 신청하는 등 호응이 확산되고 있는것. 4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형태에 좌선의 방법과 일상생활속에서의 실천법 등을 그림과 함께 담은 〈좌선으로의 초대〉는 지금까지 8천4백여부가 법보시됐다.

9월 합장과 참회, 염불수행의 방법을 정리 발간한 제2권 〈염불수행〉 역시 5천여부가 법보시됐다. 소책자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자, 정각원은 수요를 감당할수 없어 제작최소비용인 1천원을 가격으로 책정해 여시아문, 운주사 등 불교서점에서 시판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참선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제3권 〈참선수행〉도 펴냈다.

정각원은 또 쪽지포교에도 노력을 기울여 홍보용 팜플렛 형태의 〈지혜의 말씀〉 제작을 준비중이다. 이 책자는 곧 돌아올 졸업식과 입학식 등 교내 행사에 대비해 행사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 일반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된다. 정각원은 이같은 문서포교와 더불어 주말과 평일 일반인에게 정각원을 개방하고 있으며, 특강형태의 수행강좌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보다 친근한 불교, 열린 불교 전하기에 매진할 계획이다. 0561)770-2016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⑳



백 창 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책상은 가라, 현장부터 달린다."

대도개발, 대도건설, 대화 등 5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백창기씨(69)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생산과 개발의 최일선에서 사원들과 직접 뛰면서 고객을 맞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뜻이다. 그에게 있어 최고의 경영자상은 책상머리에 앉아 이것저것 지시하는 상명하복의 상관이 아니다. 남보다 한발 앞서 현장을 뛰어야 앞서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과 고정관념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다. 이러한 백회장의 경영철학은 바로 열린경영으로 이어졌다.

일흔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과 조계사를 오가며 젊은 시절 못지 않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평생 지켜온 '현장부터 달린다'는 생활철학이 바탕이 되었다.

적극적인 생활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돈독한 신앙생활은 정신건강의 요체가 됐다. 이와함께 가정과 회사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도 육체와 정신건강을 동시에 아우를수 있는 부수적 요소가

금연·규칙적인 생활로 체력 유지

가정·회사 화목은 정신건강 한몫

되었다. 이 세가지가 조화롭게 순환될 때 나와 남이 모두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백 회장이 젊은 사람 이상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또다른 이유는 금연과 꾸준한 운동이다. 그는 청년시절 하루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을 정도로 '골초'였다. 해병대 장교시절 꽁초를 함부로 버린것이 금연의 계기가 됐다. 버린 꽁초를 한 사병이 주워 피는 것을 보고 불현듯 금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대원들에게 금연을 지시했다.

그후 백회장은 촌각마다 떠오르는 흡연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고 금연에 성공하고 대신 운동을 시작했다. 백회장은 담배를 끊기위해 자신과 싸우면서 '질서'란 철학을 터득했다.

무절제하고 무규칙적인 생활이 지속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 백 회장은 그후부터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생활의 질서를 잡아 나갔다. 기상, 운동, 식사 등 하루의 일과를 항상 정해진 시간에 했다. 이러한 규칙적이고 짜임새 있는 생활은 그가 지금까지 젊은사람 못지않은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생활의 리듬유지가 보약보다 앞선다"라는 백회장의 짧은 한마디에서 그의 건강 비결을 엿볼 수 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중고생 불교영어교실 연다

조계사 매주 일요일 무료강좌

"국제포교사 양성"…초등반도 추진

조계사는 7일부터 불교영어반, 영어듣고 말하기반 등의 무료 불교영어교실을 열고, 영어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 불자들에게 독특한 불교공부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동안 화계사, 무불선원, 법화정사 등에서 일반불자들을 대상으로 영어법회를 개설하기는 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교영어교실을 열기는 조계사가 처음이다.

조계사 홍보실 금은수씨는 "어린이와 청소년불자들의 법회 참여를 유도하고, 영어교육을 통해 실력을 키운 청소년불자를 국제화시대의 포교사로 키워내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교영어교실은 조계사내 외국인안내소에서 활동중인 국제포교사 이추경씨(연세대 강사)와 김석범씨(호야외국어학원 강사)가 자원봉사로 참여해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한다.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Buddhist Tales〉를 공부하는 불교영어반은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실시하며, 회화가 중심이 되는 영어듣고 말하기반은 일요일 오후 12시 30분에 1단계 강좌를, 오후 4시에 2단계 강좌를 연다. 중고생 뿐 아니라 영어로 불교를 배우는 일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불교영어교실 개설에 견인차 역할을 한 외국인안내소 소장 묘현스님은 "국제포교사회에서 현재 사찰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법회교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교실프로그램도 마련해 부처님 말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 1석 2조의 포교효과를 얻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진각종 제천 청소년수련관 개관

수영장·자연학습장등 다양한 수련시설 갖춰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청소년 문화와 포교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대한불교진각종은 9일 제천시 청소년수련관(관장 정덕정사)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청소년포교에 나섰다.

충청북도 제천시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700명 수용규모의 대강당을 비롯 야외강의장, 수상훈련시설, 극기훈련장, 자연학습장 등 다양한 수련시설을 갖추었다. 관장 정덕정사는 "각종 문화교양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포교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443)651-7474

간신

어린이 후원회원 모집

○…조계종포교원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어린이포교 후원을 위한 회원을 모집한다. 일반회원은 연 1만원 이상, 특별회원을 월 1만원 이상 후원해야한다. 후원회비는 낙도 분교, 군법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합회가 발행하는 〈동련〉 〈연꽃〉과 어린이포교자료를 우송하고, 어린이 법회 지도자를 교육하는데 사용된다. (051)808-4569

가정폭력 상담소 개소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가 지난달 개원됐다. 공주시 교동에 위치한 가정폭력 상담소는 부부갈등, 고부갈등, 가족문제 등을 상담하는 한편,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0416)854-3737

우리문화 자강운동 실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는 우리문화를 보존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 인생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2월 4일 오전 10시 한라체육관에서 제2회 우리문화 자강운동을 실시한다. 이날 참가 학교별로 유해환경 추방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풍물패·댄스동아리 운영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풍물패와 댄스동아리를 운영한다. 아동은 사물놀이 기초과정, 인간관계훈련 등을 청소년은 레크댄스, 힙합댄스, 공연관람 등을 배운다.(02)2282-1100

남녀평등 방향 세미나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미래지향적 남녀평등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 여성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이영애교수(단국대 사회학)가 '현대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박숙자박사(국회여성특별위원회)가 '남녀의 평등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발표한다.(02)738-5586

천연옥·수지침 결합…기력회복 효과

■수암 만다라옥침 개발



옥(玉)의 효험에 수지침의 효과를 결합시킨 옥침이 개발됐다.

건강보조기구인 '수암만다라옥침'이 바로 화제의 상품. 두 개의 회전구표면에 각기 약 3백여개의 뾰족한 옥침이 돌출해 있어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생활에 활력과 생기를 북돋운다.

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이수자인 박정민씨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제1740호 이경숙씨 부부가 창안한 이 옥침은 2개의 옥침을 양손에 쥐고 사용할 수도 있고 남녀가 한 개씩 나누어 사용해도 좋다.

스님들의 기력회복에 효과를 높이려고 개발했다는 불자 미술인부부는 특별히 스님들에게는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02)396-8041

說法 개인지도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설법방법론, 강의기법, 화술, 상담기법
●음성학, 태도학, 修辭學,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서예반 강좌 개설

연수안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접수
▶ 회원관리 : 정회원(매월 1회 모임) ※발표회
▶ 장 소 : 본연수원 강의실
▶ 지도법사 : 金 哲 會 박사
※ 출장지도 가능합니다. ※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문의 및 신청 ☎ (02)737-1567, 5925 FAX (02)737-8725

天安靈樂寺 창건낙성 개원
가족·문중 영탑 공원 준공
점안 雲藏 큰스님 大법회



■ 의 전 : 雲藏큰스님 ■ 증명법사 : 大愚스님
■ 주 지 : 秦寬스님 ■ 창건주 : 淸一(조병선)
■ 화 주 : 靈龍(신영용) 淸料 (허두)

천안의 명산 태조산을 등에 업고 백제의
초 도읍지 위례산 성지를 안아 부처님 주처에
天安靈樂寺를 창건하고 자연 조경이 절묘한
3천평 부지에 조성한 가족·문중영탑공원을
조성하여 大 법회를 봉행하오니
동참인연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시고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자성 븐래불

·날 짜 : 불기 2543, 11, 19일 오후 2시
·장 소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51-35
·TEL : (0417)584-6674~6, 584-6335
·FAX : (0417)584-2335
·교 통 : 천안 역, 터미널에서 70,71(입석) 700,710(좌석)버스 입장하차
※점심공양은 天安靈樂寺에서

영탑 사업본부
영탑분양 판매 설치 주문제작
※가족, 문중 영탑분양: 천안 I.C 우회전 12Km 입장
※가족형, 문중형, 일반형, 종교형, 단체형
※정원, 별장, 산소 기타지정 장소 설치

레이키 (REIKI)법을 배우십시오

레이키법은 오랫동안 힘들게 기공 수련을 하지 않고도 단시일내에 氣능력자가 될 수 있는 세계유일의 속성식 氣능력자 양성법입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Attunement)라는 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어튠먼트는 우주에너지(레이키·氣)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명회로를 만드는 작업이며 오직 레이키법에만 있는 氣능력 전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레이키법을 배울 것을 권합니다.

1.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족
2. 다운증후군 환자 가족
3. 식물인간상태 환자 가족
4. 태교와 순산을 바라는 임산부의 남편
5. 간염환자 자신이나 간염환자의 가족 (소모되는 활력의 보충을 위하여)
6. 마약류, 술, 담배를 끊으려는 당사자
7. 약재나 약제, 침에 氣를 넣어 치료효과를 높이려는 의약사
8. 피부관리실 운영자
9. 단식원 운영자,건강상담소운영자
10. 氣수련자와 아바타이수자
11. 기타 만성병환자의 가족
12. 모든 분야의 간병인과 호스피스 병동 봉사자

⊙ 교육기간: 제3단계까지 3일소요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구한국레이키요법연구학회)
전화 : 02)720-5682 /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지도자: 박회준 (우스이레이키마스터·카루나레이키마스터)번역저술가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가을

그리움의 계절인가.

잔잔하게
부서진 파도는
붉은 노을 속으로
가을을 안고 온다.

솜털 구름처럼
하얗게 피어오르는
여린
갈대숲 사이로

가득히 밀려오는
그리움 하나
그대의
투명한 눈망울이

가슴으로 와
보고픔은
그리움으로 남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6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 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드폰 : 018-277-5592

·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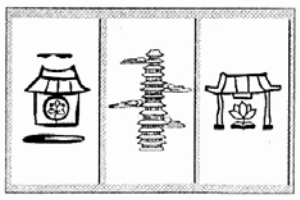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몰.부다피아>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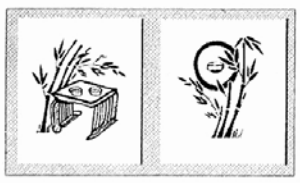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기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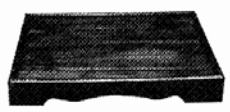
기장 6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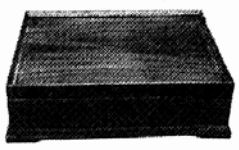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찻 상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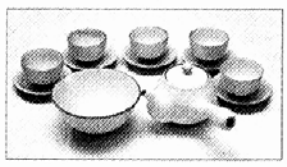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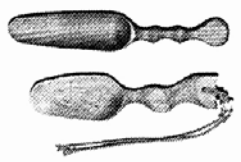
가격:₩495,000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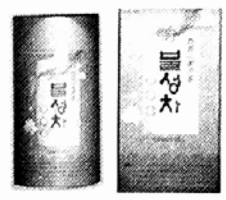
가격:₩120,000

차 시



재질 - 참나무 고목 등
가격:₩1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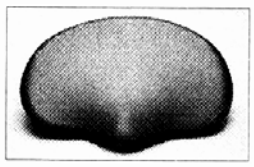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경 상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릅원목
가격:₩85,000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 삼용산인 1998-05009
· 의장등록 142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옥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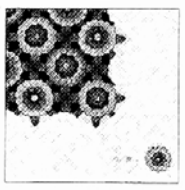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익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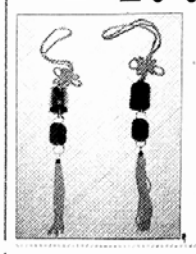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옥액자



(대) 17.8×22.5cm ₩15,000
(중) 3.7×18cm ₩10,000
(소) 7×9cm ₩3,000
· 색상 베이지 분홍, 녹색
· 재질 옥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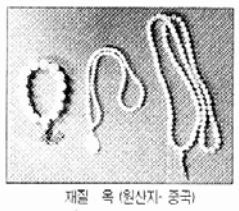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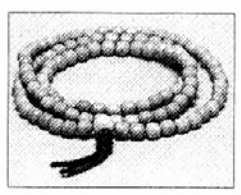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수암옥 염주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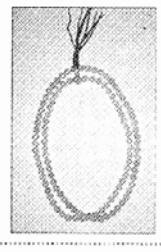
재질 옥 (흰산지- 중국)
가격:₩98,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건강 옥 염주



청옥 · 백옥(小) ₩30,000
청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600,000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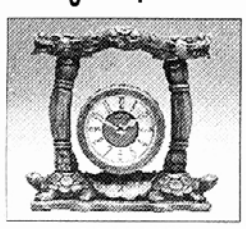
■ 코팅 · 골동품 ₩350,000
■ 개금 ₩580,000

관음보살감로병



가격:₩500,000

용거북시계



가격:₩64,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한국불교총람 CD



가격:₩60,000

달마순금판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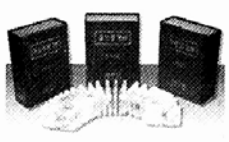
규격 27×33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 가격: ₩120,000
상반신

달마순금판 액자



규격 27×33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 가격: ₩120,000
전신

무비스님 특강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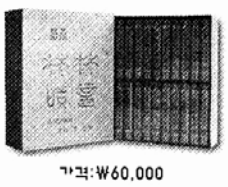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0분
가격: 각 ₩25,000

문구암 스님 범음범패 테잎



가격:₩60,000

청화선사 대법회



비디오 테잎
가격: ₩15,000

부처님 일대기



비디오 테잎 (아동용)
가격: ₩1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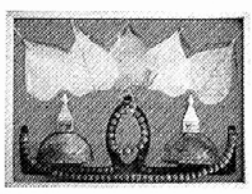
가격:₩9,500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염(오색원),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명품향



가격:₩12,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자연향102

규격 155×85×3cm
가격: ₩4,200

박범훈 작곡집 1

가격: ₩9,500

날개CD

가격: ₩9,500

향나무 열쇠고리

· 인전운장
· 재수대통
· 소원성취
· 달마왕
*3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가격: 각 ₩3,000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쑥엑기스

가격:₩5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오보크린

1세트 3개 ₩18,000

전자파제거장치

가격: ₩9,000(2개 한세트)

연꽃양면자수

규격 25×25cm(받침대 포함)
가격:₩600,000

싸이버에밀레종 봉황청동

재질 합금
좌대 30cm
종높이 15cm
종지름 11cm
가격: ₩143,000

싸이버에밀레종 팔각개금

재질 주석
종높이 17cm
종지름 12cm
가격: ₩200,000

싸이버에밀레종 사각동록

재질 합금
좌대 26cm
종높이 15cm
종지름 11cm
가격: ₩143,000

바라밀 건강칫솔

가격: ₩3,9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향 적 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에밀레종 평면받침

지름 11cm
높이 18cm
가격: ₩63,000

에밀레종 사각받침

지름 15.5cm
높이 25cm
가격: ₩219,000

에밀레종

지름 11.5cm
높이 18.5cm
가격: ₩37,000

학산가족 숫자놀이

아동용CD : 3세 ~ 5세
가격:₩20,000

감잎차

가격:₩35,000

법회안내

18일 동국대서 법문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18일 오후 4시 동국대 정각원 큰스님 초청법회. (02)2260-3016

정토회 일요초청법회



진철스님(통도사 주석) 21일 오전 11시 정토회 일요초청법회 '다양한 꽃들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다' 주제 법회.(02)587-8993

선사상 주제 설법



종호스님(동국대 교수)20일 오후 3시 30분 한국불교연구원 정기법회 '선사상' 주제 법회. (02)3411-6167

불교근본교설 특강

현원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기획실장)12월 첫째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불교근본교설의 이해'. (02)765-9603

수효정사 천수경 강의

최혜명법사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수효정사 〈천수경〉강의. (02)363-9524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1월18일 (목)

■은정희교수 '원효의 선관' 특강=한국불교선학연구원은 오후 7시 '대승기신론소별기에 나타난 원효의 선관'을 주제로 은정희 교수 특강을 실시한다.(02)541-0002

■순직경찰 위령 천혼제=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은 오전 11시 30분 경승법당에서 제9회 호국순직경찰관 위령 천혼제를 봉행한다.(032)654-1548

11월19일 (금)

■초펠스님 초청강좌=대구 연흥사는 오전 11시 초펠스님 초청 티벳의 불교문화 특강을 한다. 오후 7시에는 법왕사에서 강의한다.(053)766-3747

11월20일 (토)

■선정회월례참선 철야정진=선학원 선정회는 저녁8시 안국동선학원에서 21일 새벽4시까지 좌선정진법회를 갖는다. 선학원장 성해스님이 참선지도한다. (02)732-3327

■밀양표충사 성지순례=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밀양표충사로 11월 성지순례를 떠난다. 밤 10시 동대문 이스턴호텔 앞에서 집결한다. (02)772-9517

■조계종 포교사단 전국운영위원회=조계종포교사단은 오후 6시 대전 경원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국단위의 조직을 구성한다.(02)737-7588

11월21일 (일)

■지리산 불교문화유적답사=광주불교교육원은 오전 8시 지리산 실상사, 백장암, 함양 벽송사 등지로 불교문화유적답사를 떠난다. (062)228-9098

■관룡사·용선대 석불 답사=우리문화기행은 오전7시 신라 천년고찰 관룡사와 용선대 석불, 술정리 삼층석탑 등지로 답사를 떠난다.(051)466-4080

■구인사 순례=터사랑은 오전 7시 30분 구인사와 온달산성, 신라적성비 등지로 순례를 떠난다.(02)725-1284

■백양사 순례=여래지 답사회는 오전 7시30분 장성 백양사로 순례를 떠난다. 백양사, 학바위, 영천암, 약사암 등을 둘러본다. (02)3445-0202

11월22일 (월)

■길상사 극락전 탱화봉안=길상사는 창건이후 계속 추진해 온 극락전의 신중탱화와 지장탱화 봉안식을 동안거 결제일인 22일 오전 10시에 갖는다. 동안거 결제법회도 봉행한다. (02)3672-5945

11월23일 (화)



◇마애석불좌상이 아름다운 보문사를 찾아가보자.

■보문사·정수사 성지순례=불교문화연구회는 오전 8시 마애석불좌상이 유명한 석모도 보문사와 대웅전 창살문양이 아름다운 강화도 정수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02)2275-4333

■운문사 테마기행=화요테마기행은 오전 7시30분 운문산 운문사로 테마기행을 떠난다. (02)514-2211

북녘 동포에 '사랑의 옷' 보내기

불교언론인회·민족화합추진위 헌옷 거둬

추운 겨울을 앞두고 북녘의 동포에게 따뜻한 겨울옷을 보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안입는 겨울옷, 작아서 못입게 된 아이들 옷 등 장롱을 뒤져 동참하자.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헌옷을 수집한다. 수집된 헌옷은 불교단체 방북에 참여하는 불교언론인회 임원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02)719-4038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명진스님)도 '북한에 사랑의 옷보내기 사업'을 전개한다. 헌 옷 대신 20일까지 성금을 모금해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할 예정이다. (02)733-2557

게 시 판

알림

▲법당 이름공모=한국불교연구원은 법당 건립을 앞두고, 연구원의 이념과 방향에 부합하는 법당이름을 공모한다.(02)3411-6167

▲무료진료소 운영=자양사회복지관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복지관 3층에서 재가노인, 소년소녀가장, 실직가정 세대를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소를 운영한다. 전화로 접수한다.(02)458-1664

강좌

▲임종간호교육=자비신행회는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임종간호교육(호스피스)을 실시한다. 12월 7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오후 2시 자비신행회 사무실에서 지도한다. 3개월 과정. (062)222-1165

▲단전호흡=대구 법왕사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단전호흡 강좌를 연다.(053)766-3747

▲꽃꽂이·단전호흡=대구 연흥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꽃꽂이 강좌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단전호흡 강좌 및 토요정진법회를 갖는다.(053)311-9937

▲손사랑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수화의 기초과정을 지도하는 손사랑교실을 연다. 강의는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30분.(02)817-8052

▲기공수련=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11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공수련을 실시한다. (02)716-4215

▲기공·서예·영어교실=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 노인을 위한 태극기공체조, 장구교실, 서예, 한문, 영어 등 무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02)2282-1100

▲바둑서당=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3시 어린이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바둑서당을 연다.(02)852-0525

▲장애인컴퓨터 무료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컴퓨터를 배우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무료 컴퓨터교실을 연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윈도우체계, 한글, 통신, 인터넷 등을 지도한다. (02)817-8052

▲직장인 불교교리 강좌=동산반야회는 12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강좌를 연다. 불교교리, 경전공부 등을 지도한다.(02)732-1206

▲논술·글쓰기·독서법=목동청소년수련관은 25, 26, 30일 오전 11시 주부대상 무료 자녀교육특강을 실시한다. 논술지도, 독서지도법, 글쓰기등이 주내용. (02)2646-6815

모집

▲중고pc 및 냉장고=원효학당은 나눠쓰고 돌려쓰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중고pc 및 냉장고를 보시받는다. pc는 팬티엄급 이상의 기종이어야 한다.(02)3411-6167

▲탁아방 보육교사=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탁아방 보육교사를 모집한다.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여야 하며 서류접수한다.(02)571-2988

▲김장 재료용품=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겨울철 무료급식과 재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김장김치 마련을 위해 배추, 무, 양념 등의 물품을 후원받는다.

▲김치·방한복=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김장김치, 쌀, 겨울 방한복 등 무의탁노인을 돕기위한 각종 후원물품을 모집한다.(02)2282-1100

▲김장담그기 후원=백천사회복지관은 자비의 김장 나누기에 사용할 김장재료 후원을 기다린다.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과 현금후원도 가능하다.(053)811-1347

▲경로식당 자원봉사자=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주 1회 경로식당에서 배식과 반찬만들기 등을 도와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42)488-6297

고 침 지난호(245호) 법회안내란의 도원스님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종단소식

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상량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28일 오전 11시 경남 울산지역 불자들의 수행도량이 될 새 법당 상량식법회를 갖는다. 이번 법회에는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사진〉이 참석, 법문한다. (052)244-0884

포교논문 공모 31일마감

포교원(원장 정련)은 10월말로 예정했던 제1회 포교논문 공모마감날짜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 포교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출·재가불자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며 분야는 종단 계층 지역 신도시 방법론 및 실천사례 신도교육 조직활성화 방안 특수포교 외국포교 방안 등이다. 2백자원고지 200매 내외. (02)720-7064

태고종

대각국사 탄신 944돌 다례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인곡)는 중창주 대각국사 탄신 944주년을 기념하는 다례법요식을 5일 선암사 만세루에서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부원장 지암스님 등 종단의 간부와 대중스님 등 5백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다례식에서 인곡 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대각국사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받들어 종단과 나라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각국사가 수행한 25조 금란가사가 일반에 공개됐다.

전태종

23일 천태예술제

총무원 교육부(부장 도원)는 23일 오후 7시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제6회 천태예술제를 개최한다.

진각종

보살십선계 수계불사

교육원(원장 일정)은 8일 서울 총인원 탑주심인당 9일 대구 희락심인당에서 진기53년 삼매야계단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각해 총인이 증명아사리, 도흔종사가 전계아사리, 혜일종사가 갈마아사리, 지광종사가 교수아사리로 봉행된 이번 삼매야계단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는 서울계단에서 270명〈사진〉 대구계단에서 346명 등 총 716명이 수계를 받았다.



관음종

신임이사선출 논의

4일 천안 보열사에서 임시이사회와 종무회의를 열고 2000년 1월로 만기되는 이사의 유임 및 신임이사 선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신임이사 선출은 혜웅종정, 홍파총무원장, 법륜종회의장 지섭총무부장 등 4인 선출위원회에 위임할 것과 혜웅스님의 종정추대로 공석이 된 원로원장은 종헌종법에 따라 추후 추대키로 했다.

대천 종정 열반 1주기

지난해 열반에 든 대천 종정스님의 1주기 다례법회를 23일 논산 관음사에서 봉행한다.

조동종

보살계 수계 연수교육



총무원(원장 학봉)은 4~6일 화성 보문사(주지 혜정)에서 종정 지명스님 등 종도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연수교육〈사진〉을 가졌다. 이번 교육기간동안 사미계와 입실건당식, 보살계 수계식, 법계고시 등이 실시됐다.

라마승 초청 마정수기

옥불(玉佛) 금룡사(주지 법공)는 8일 티벳 성 린포체 등 7명의 라마스님을 초청 마정수기법회를 봉행했다. 행수·행범스님 등과 신도 등 70여명이 마정수기를 받고 불제자로서 진실되게 살 것을 발원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천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2600년전 붓다가 깨달은
무아 연기 중도 는 무엇인가?

완전한 깨달음

해공 지음 / 7,000원



동서양 종교, 철학을 넘나들며
수행인의 길을 걸어온 해공!
그가 만난 위대한 스승들
<마하리쉬> <마하라지>.

미얀마에서 붓다의 실질적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통해 개체적 에고를
초월한 절대적 무아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었던 생생한 체험

국민은행 270-01-0052-893 우체국 102723-0029385 예금주 : 도서출판 보리수
온라인 입금하신 후 전화주시면 책을 우송하여 드립니다.(우송료는 본사 부담)

전국 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보리수 TEL (0342)701-0084

전국 사설포교당 및
사찰 대표자 토론회

▶일 시 : 불기 2543년(99)년 11월 19일(금)
오후 5시

▶장 소 : 불교방송 법당

▶토론주제

1. 사설 포교당 및 사찰 대표자님들의 어려운 문제점
2. 한국불교의 현안사태 토론
3. 전국협의회 구성의 건

연락처 02)703-0108 불교문화센타(신진욱)
032)576-9741 법명사(선일)

(가칭)전국사설포교당 및 사찰대표자회

충북불교문화회관 24일 개관
중부권 사이버포교 시대 연다

3개 채널 인터넷 방송 개국
불교대·7개 연합단체 입주

첨단 사이버 시설을 갖춘 불교회관이 청주에 건립돼 중부권포교의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충북불교문화회관(원장 정일스님)은 24일 오후 3시 개관및 축하법회와 공연, 불화전등 문화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들어간다.

지하2층 지상6층 연건평 1358평 규모인 충북불교문화회관은 총예산 52억원을 들여 회관빌딩에 방송시설및 40여대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첨단 사이버시설을 갖췄다. 이를 통해 불교대학·불교문화센터·어린이집에 지역의 교계 행사내용을 실시간 인터넷 3개채널로 24시간 실황중계할 예정이어서 교계 최초의 인터넷방송을 하게 된다.

또 불교회관에는 65평 법당, 40평 시민선방, 2백평규모의 광명아트홀, 광명어린이집, 광명갤러리, 청주불교대학, 불교문화센터, 전산방송실, 컴퓨터실, 서점, 다원, 어린이 놀이터등이 들어서 종합불교회관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5백석의 광명아트홀은 멀티큐브, 베타콤6대, 스캔조명, 오디오, 프로젝터등 일반방송국 공개홀과 맞먹는 시설로 녹화 및 현장 생중계가 가능토록 방송시설을 갖춰놓은 상태다. 회의실도 동시통역과 화상회의가 가능해 교계의 각종 회의와 다양한 학술행사가 열릴수 있게 했다.



◇충북불교회관은 첨단시설을 갖춰 중부권포교의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부설 광명시민선방은 이영일법사가 지도하며 참선실수와 참선수행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충북교수불자회(회장 성기서)가 운영하는 청주불교대학(학장 정일)의 불교학개론과 영어로 배우는 경전교실등의 강좌가 열린다.

불교문화센터(실장 이성훈)는 어린이와 성인대상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 종이접기, 동화구연, 실내장식, 풍물교실, 매직풍선등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이 개관과 동시에 개강할 예정이다.

또 교수불자회, 대불련, 대불청, 파라미타, 충북여비역불자연합회, 포교사단, 불교총연합회등 7개 청주지역 불교연합단체가 입주할 계획이어서 지역 신행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추진위원장은 "2년전 정일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불사가 완성돼 지역불자들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불교의 중심도량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사부대중이 하나되는 불교의 구심공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0431) 294~6193-99.

청주=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1945년 반일운동 결의로 전원 무기정학을 자청한 오산불교학교 4학년생과 담임교사(중앙), 주모자 현태범 학생(가운뎃줄 오른쪽 네번째)이 한자리에 모였다. 원내는 제보자 김영권씨.

日軍입대 거부·독립운동 결의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6〉

오산불교학교 반일운동

4학년 전원 체포 피해 스스로 무기정학 받아

해방직전인 1945년 5월, 지금의 능인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오산불교학교에서 최고 학년인 4학년 전원이 반일(反日)사건으로 인해 무기정학을 자청한 일이 있다. 해방이 되어 이들은 무사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린 사건이다.

1925년 경북 영천 은해사에 오산불교학교가 설립되었다. 동화사 은해사 기림사 고운사 김용사 등 경북의 5본산이 출자해 중학교과정으로 총독부의 인가를 얻어 세웠다. 한 학년의 정원이 25명으로 전국의 큰절에서 추천을 받아 입학할 수 있어 승적이 입학에 유리한 조건이 됐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복장은 한복차림으로 조석예불때는 반드시 가사와 장삼을 입고 예불을 올렸다. 모든 학교생활이 사미생활 그대로였던 것이다.

1944년 들어 일본은 학생들까지 군에 동원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했다. 그해 여름방학 대구의 일본군 제24부대 학병탈출사건이 일어났다. 주동자는 동화사에 적을 두고 혜화전문 재학중 징병된 권성훈씨로 결국 군위 인각사에서 체포되었다.

바로 이사람이 오산불교학교 반일사건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그해 가을 오산불교학교 학생들은 공부보다 노력동원이 더 많았고, 저녁 기숙사에 돌아오면 자연히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되었다. 이 자리에서 3학년 반일운동의 주동자인 현태범학생은 권성훈씨로부터 배웠다며 '황성옛터' '창덕궁' '나그네설움' 등 당시 유행가를 가르쳤고 동기 학우들이 다함께 배워 부르면서 나라잃은 설움과 한을 달랬다. 그러다가 반일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된다.

△일본군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다른 학교와 연대하여 연락하고 독립운동가들과 연락을 취한다. △영어공부를 중점적으로 하고 미군이 상륙하면 연합군에 협조한다. △배신자는 각오해야 한다 등이었다.

그런데 겨울방학이 가까워질 무렵 동기 배상도학생이 영천읍 헌병보조원 하야시라는 일본인을 기숙사로 데리고 와 함께 하룻밤을 지냈다. 그의 속셈은 3학년 전체를 잡아 넣으면 헌병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4학년이 된 1945년 4월 배상도학생은 징병1기로 일본부대에 입대했고, 반일운동 주동자 현태범학생은 동화사 아래 고향집에서 헌병대에 체포됐다. 이소식이 전해지면서 4학년 전원은 급히 모여 의논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전원이 체포되고 학교도 폐교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학교당국과도 타협해야 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4학년 전원은 스스로 무기정학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사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학교측은 전전긍긍했다. 다른 도리가 없어 무기정학을 하기로 하고 6월중순경 4학년들은 모두 학교를 떠났다. 그러다가 천만다행으로 8.15 해방을 맞았고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복귀할수 있었다.

1946년 오산불교학교는 대구시내로 이전해 학교명도 능인중학교로 바뀌었다. 따라서 무기정학을 자청했던 4학년전원은 능인중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다.

"해방이 됨으로써 우리들은 살아남아 교사 시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타계한 학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건이 밝혀져 국민의 민족정기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생을 교직에 봉직하고 정년퇴임한 당시 은해사 출신으로 반일 4학년생이던 김영권씨(71세·용지서예학원장)는 지금도 회고하면 아찔해진다며 당시 사진을 제공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동화사강원 재개원

승가대 설립 신청…복지관·납골당 추진도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2000년 봄부터 강원을 재개원하여 도제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동화사는 20일까지 조계종 교육원에 80명 정원의 동화사 승가대학 설립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12월경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숙사인 서별당과 심검당을 완공할 예정이다. 동화사 강원은 1915년 부설 불교광명학교로 운영되다 1918년부터 1942년까지, 1960년부터 1989년까지 교육활동을 폈었다.

2000년을 맞는 종합불사계획을 밝힌 동화사는 한국불교연구원을 발족, 복지관운영, 납골당 건립, 장학회설립, 통일약사여래불 회향, 사천왕문 사천왕상 범종조성, 영산전, 요사신축 등 중창불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공주갑사 첫 개산대재

만등불사 예수재 봉행
월인석보 21권 간행

공주 갑사(주지 장곡)는 6.7일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첫 개산대재를 열고 만등불사, 한국사찰문화 전국학술회의, 사찰사진전시회, 축하 열린한마당, 괘불제, 정대불사 및 생전예수재를 지냈다.<관련기사 4면>

특히 갑사는 첫 개산대재를 기념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갑사가 소장하고 있는 보물 582호 월인석보 제21권 영인본을 출간했다.

이와함께 열린 한국사찰문화 전국학술회의에서는 사재동교수(충남대)가 "한국사찰문화의 실상과 그 기능" 이강승교수(충남대)가 "갑사의 역사와 문화재" 김승호교수(동국대)가 "사찰구비전승의 불교적의미" 김진영 교수(우송대)가 "월인석보와 갑사장판 21권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공주=김원우 기자

두송복지관 주민 무료진료

6백50명에 양한방 검진

사회복지법인 늘기쁜 마을 부산 두송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이 7일 지역민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등 650명에게 한방, 안과, 내과, 통증치료실, 심전도 검사, 독감예방 접종등을 실시한 두송복지관 무료진료에는 의사, 한의사, 간로사, 의대학생, 일반 봉사자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오정은 담당 간호사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더욱 보람있는 진료가 되었고 진료를 받은 분들과 봉사자 모두에게 기쁨을 준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범어사 아미타불 봉안
설법전 내년초 낙성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는 10일 설법전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아미타불 점안 봉불식및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성오스님은 법문을 통해 "봉불식을 계기로 각자의 마음 안에 구족해 있는 자성불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층 공양간과 대중 설법공간인 2층 설법전을 갖춘 설법전은 내년초에 완공, 낙성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금수사 순국선열 55위 추모법회

2백여명 보살계 수지

부산 금수사(조실 법홍)는 10일 순국선열 55위 추모법회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 법홍스님을 비롯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계사 청함, 참회, 연비, 전계, 계첩수여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사미계 10명, 보살승계 40명을 비롯 2백여명이 보살계를 수지했다.

천미희 기자

법륜사 유치원 준공

17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법륜사 법륜유치원(원장 보해)이 8일 확장 신축 준공법회를 가졌다.

유치원 3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안양사 조실 성공스님을 비롯 학부모, 원생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새롭게 신축된 법륜유치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84평 규모로 강당, 놀이방을 비롯 문수반, 가섭반 등 7개반이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을 두고 있다. 법륜유치원은 12월 1일부터 2000학년도 원아를 모집하고 불심을 근간으로 한 동심 가꾸기에 주력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주 청소년음악회 열려

경주지역의 5대 종교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작은 음악감상회'가 6일 경주예술극장에서 중·고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감상회는 등국대 경주캠퍼스국악과 박상진교수의 해설로 국악합주, 국악독주, 판소리 '춘향가', 불교무용 '승무', 사물놀이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윤호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코스
◐ 아바타 코스는 7-9월 열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관심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사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회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2000년 불교달력은 감로카렌다가 1 등 입니다

동자승의 세계 — 크기:大·小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 크기:大·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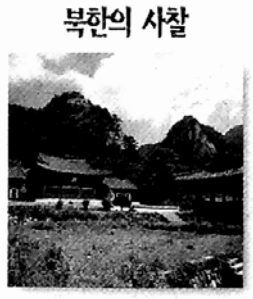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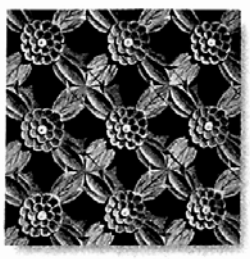
대 불(大佛) — 크기:大·小

산사의 향기 — 크기:大·小

한국의 명찰 — 크기:大·小

한국의 석불 — 크기:大·小

살아있는 달마 — 크기:小

북한의 사찰 — 크기:小

불교전통문살의 미 — 크기:小

금강산의 사계 — 크기:小

나한도 — 크기:小

차량용 미니 달력 — 크기:(11×18cm)


〈사진:안장헌〉
대불, 산사의 향기, 한국의 석불,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한국의 명찰, 불교전통문살의 美는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헌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월간 영상편집장을 지낸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검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사진작가 협의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4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 기:大(30×31cm) 국6절
　　小(26×26.5cm) 사륙12절
■ 매 수: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 주문부수:100부이상(차량용 미니 달력 200부이상)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전화:(02)723-4306·4307·4309 팩스:(02)738-8682

전국 유명불교용품점에 있습니다.

진각복지회, 스리랑카·네팔지부 설립

국제 구호·포교 본격화

진각복지재단(이사장 성초)이 스리랑카와 네팔에 현지 법인 지부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국제구호사업에 나선다.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과 진각복지회 임원진은 이달 25일 두 나라를 차례로 방문, 지부설립에 따른 현판식을 갖고 한국불교 위상제고와 국제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할 실질적인 해외포교의 첫 삽을 뜬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한국국제협력단 민간원조단체(NGO)에 가입한 진각복지회는 이번 지부 설립을 통해 불교계 종단으로는 처음으로 NGO 성격의 해외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 산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해외포교가 그 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해외포교에 뜻을 둔 다른 불교계 단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호 및 복지사업을 통해 한국불교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전망이어서 포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진각종은 지난 96년부터 종단차원에서 진행해온 북한주민 및 재중동포, 탈북자 돕기를 포함한 '한겨레구호사업'과 진각복지회가 실무를 맡게 될 네팔·스리랑카 구호사업을 포함해 대규모의 국제사업을 펼치게 된다.

25일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종단 인사들은 카트만두에서 네팔전통불교회측과 만나 지부 현판식을 갖고 양국 불교교류와 국제협력 및 문화·인적교류, 구호·복지사업 등에 대한 향후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카트만두 블루스타 호텔에서 법회형식으로 진행되며, 진각종이 준비한 의류 등 구호품과 소정의 장학금도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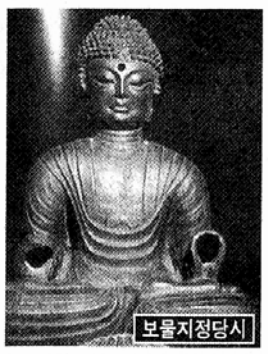
또 28일에는 스리랑카를 방문해 콜롬보에서 지부 현판식을 갖고 학용품 등의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스리랑카와는 지난해 12월 스리랑카 대통령과 이 나라 최대종파인 시암종 대표와 지부 설립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양국 지부의 보다 자세한 향후 사업방향과 내용은 이번 방문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진각복지회는 지부 설립의 목적인 불교교류 및 구호사업의 이미지를 선명히 부각시키기 위해 현판 명칭을 'JOE Sri Lanka(Nepal) Bridge'로 결정하고, 지부에는 종단관계자나 자원봉사자 파견 등을 고려하고 있다. JOE는 'The Joy of Genuine Oneness(하나되는 즐거움)'의 약자다.

한편 진각복지회는 두 나라 관계자들과 만나 합의된 사항은 다음달 초순경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설립되는 두 나라 지부가 안정적인 활동을 펼칠 경우 경제여건이 어려운 다른 동남아국가에도 지부 설립을 검토하는 등 활동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진각복지회 하승현 부장은 "이번 두 나라 지부설립은 일차적으로 복지 및 구호사업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종단은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보물지정당시


현재 모습

◇보물지정당시 양손이 없던 보물 제98호 충주 철불좌상(사진 위)이 현재는 손이 조형되고 도금으로 인해 눈이 매섭게 변하고 가슴에 주름이 잡히는등 원형이 훼손됐다.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 금동 개금
한천사 여래좌상 → 손모양 변경

보물지정 불상 오히려 훼손

감사원 문화재청 특감

국가에 의해 보물로 지정된 불상이 용접으로 훼손되는 등 정부의 문화재 보존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문화재 보호·보존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발굴된 유물의 국가귀속 미조치와 문화재 임의 훼손, 매장문화재 훼손 등 8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가운데 불교문화재인 보물 98호 충주철불좌상은 허가없이 도금을 해 덧칠로 인해 인자했던 눈이 사납게 변하고 없던 주름이 잡히는등 몸매가 비대해졌으며, 보물422호인 선원사 철조여래좌상은 65년 7월 보물지정 당시에는 철조불상이었으나 그후 금동불상으로 개금되었다. 보물 제667호 한천사 철조여래좌상은 본래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모은 형태였으나 지금은 왼손을 펴서 하늘로 향하고 오른손은 펴서 무릎을 덮는 모양으로 변형되는 등 현상변경 허가없이 원형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물 제887호인 〈감자금니대반야바라밀다경〉과 보물 제775호 〈세소자금강반야바라밀경〉의 경우는 소유자가 사망한후 장기간 보존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다. 감사원은 현상변경허가 없이 변경한 이들 보물을 조사해 원형복원시키거나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지정해제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발굴된 유물 가운데 대학박물관 등에 임시보관중인 국가미귀속 유물이 16만 4천여점으로 나타났으며, 금속류 문화재의 경우 보존 및 관리대책 미비로 801점중 49.5%에 해당하는 397점이 부식된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자 기자

뉴스 & 뉴스

선암사 성보박물관 상량식

태고종과 선암사의 숙원사업이었던 선암사 성보박물관 '보장각(寶藏閣)'이 불사추진 6개월만인 지난 4일 상량식을 거행했다. 선암사 일주문과 해우소 중간에 위치한 보장각은 2층 목조건물 양식으로 1층은 수장고, 2층은 전시실로 건축되고 있으며, 건물이 완공되는 내년 5월부터는 선암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보 1천2백여점을 보관, 상설 전시하게 된다. 이경숙 기자

중앙경찰학교 법당개원

법주사(주지 혜광)는 13일 오후 충북 충주시 소재 중앙경찰학교(학교장 김재희 치안감)에서 적보사 개원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주사는 지난 7월30일 경승실을 개원한데 이어, 경찰포교 현장의 최초 독립 법당인 적보사를 개원함에 따라 경찰포교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보사는 35평 2백여명 수용 규모다. 김재경 기자

호국박달사 21일 낙성식

경기도 안양 소재 육군 제1580부대는 21일 오후 2시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을 증명법사로 부처님 점안식 및 호국박달사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지난 8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공사가 진행된 이 법당은 건평 36평, 요사채 16평, 종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300관 규모의 범종과 탱화 등이 추가로 필요해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0343)468-5181, 교환 4610. 김재경 기자

대구BBS 독립채산 운영

대구불교방송(사장 법타)은 11일 진각문화회관에서 개국3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2000년부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법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불교방송은 지역본사들과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산하에 종합예술단과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등 어려운 경제난국속에서도 건실한 발전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백혈병 학생돕기 묵화전

양산불교거사림회(회장 안운환)는 9일부터 13일까지 양산시 현대자동차 엽업소 1층에서 백혈병 학생돕기 기금마련 선묵화전시회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양산초등학교 지보라(4년)양과 허제군구(6년)군에게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경주교도소 42명 수계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 42명이 9일 수계를 받고 불자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성타스님(불국사주지)을 계사로 열린 이날 수계식은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수계제자들은 "무명하여 저지른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불자로서 새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부처님께 발원했다. 김원우 기자

군불교진흥회 새회장 정각스님 선출



사단법인 군불교진흥회는 12일 국방부 호국원광사내 사무국에서 제7차 임시총회를 열고 제8대 신임회장에 동회 이사인 정각스님(전남 군법당건립위원장·사진)을 선출하고 감사에 최우진 법사·유건홍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따라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9개월간 표류하던 군불교진흥회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포교의 최대 지원단체인 군불교진흥회는 지난 2월28일 박상길 전임회장의 사임이후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은데다 사무국의 업무마비와 예산난 등이 겹쳐 존폐위기 마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임기 4년인 박상길 회장의 잔여임기 1년간 직무를 수행할 정각스님은 법인 기금 확보, 조직 정비 및 회원 화합 등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목포 보현정사 주지인 정각스님은 현재 목포교도소 종교협의회장, 법륜종재단이사장을 맡고있다.

"불교 자주권수호-혁신" 사찰 5백여곳 동시법회

서명운동도 전개

6일까지 전국 150여 사찰과 단체가 참여, 불교 자주권 수호와 혁신의 열기를 모아내고 있는 가운데 8일 초하루를 기해 주요 사찰 500여 곳에서 불교자주화 선언 전국 동시법회가 봉행되었다.

서울에서는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능인선원 화계사 석왕사 등의 사찰에서, 지방에서는 교구본사를 비롯한 주요사찰에서 동시에 법회가 열렸다.

한편 '사회정의와 불교자주권 수호를 위한 범불교 서명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백창기·박광서)가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9일 현재 6만여 명을 기록했다. 13일과 14일에는 '불교자주와 혁신을 향한 범불교도 전진대회'가 개최됐다.

13일 오후 3시부터 불교자주와 불교혁신 대중토론회를 시작으로 108배 정진, 촛불행진, 문화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14일 오후 2시부터 전진대회, 실천행사, 수행정진 회향 및 수계법회 등을 통해 불자들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통영미륵산 케이블카 반대"

사암련·시민단체 "호국성지 훼손안된다"

미륵산 개발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대의견과 관광 업계와 시의 개발논리가 찬반 논쟁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반대 시민의 모임(공동대표 선곡스님, 송수웅, 염동훈)은 14일 미륵산 정상에서 시청, 시의회, 시민모임, 지역사회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등이 대거 참여하여 산상 토론회를 열고 개발계획 과정상의 미비점 지적, 진정서 제출, 서명운동 등을 통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통영사암연합회, 산악회 1백여단체, 일반시민 등 5백여명이 동참하고 있는 시민의 모임은 10월 8일 창립돼 케이블카 설치반대 스티커 제작, 광고전단 배포, 대시민 홍보활동과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반대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2만인 서명을 목표로 현재 1만 5천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통영사암연합회 회장 선곡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승병들이 수행했던 청정수행도량이며, 호국성지인 미륵산에 케이블카 설치는 있을 수 없다"며 "용호사, 미래사 등의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적 정서로 시민들의 애환을 함께 해온 미륵산을 관광개발이라는 짧은 안목으로 파괴하려는 시의 개발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개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서울 강남한방병원(원장 이원철)은 11일 개원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에는 송석구 총장을 비롯 현성스님(중앙승가대 총장), 법등스님(조계종 종회의장), 민병천(前 동국대 총장), 서돈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황명수(前 동국대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중근 기자

사찰환경수호 5만여명 서명 범불교대책위, 국회에 제출

조계종 사찰환경수호를 위한 범불교대책위는 11일 만성스님(기획실장)을 대표로 불교도 5만 3천496명의 서명용지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협, 국민회의)에 제출하고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만성스님은 "정부가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법 8조 4항의 폐지함으로써 지자체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찰주변과 수행환경이 급격히 훼손되는 상황이다"며 "사찰환경 보존을 위해 이번회기에 전통사찰보존법등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협 문광위원장은 "문광위 의원들도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원우 기자

동국학원 이사회 열어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10일 동국대 회의실에서 135회 이사회를 열고 불교종합병원계약인준의 건, 징계위원회결성의 건, BK21 참여에 대한 보고 등이 논의됐다. 정관개정의 건은 재적이사 2/3(8명)가 참석치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이사회에는 녹원 정대 현성스님을 비롯 송석구 황명수 서돈각 유주형 등 7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김중근 기자

大韓佛教 總和宗

中央宗會 開催公告

本宗은 第13代 第44次 中央宗會를 다음과 같이 奉行하겠사오니
宗會議員을 비롯 全幹部 大德 큰스님께서는 公私多忙하시더라도
隨喜 同參하시여 宗團發展에 寄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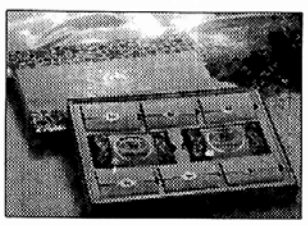
다 음

■日 時 : 佛紀 2543年 11月 24日(음10月 17日)
午前 11時
■場 所 : 總務 會議室
■연락처 : 0346-592-8891

大韓佛教 總和宗
宗會議員 李萬悟 合掌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몰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신라말 무염국사가 구산선문 중에서도 가장 번창했던 성주산문을 열었던 성주사지. 지금은 무염국사 부도비와 3기의 삼층석탑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곡사 상대웅전에서 스님의 지도아래 참선에 든 답사객들.

남혜 무염국사

845년 성주산문 개창

신라 29대 태종무열왕의 8대손이며, 어려서부터 글을 익혀 9세 때에는 '해동신동(海東神童)'이라는 아호를 받았다. 10세에 출가해 설악산 오색석사(五色石寺)의 법성선사 아래서 공부했으며, 이때부터 선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영주 부석사로 옮겨 화엄학을 공부하는 등 선교를 두루 섭렵했다.

845년 성주산문을 개창, 본산으로 삼아 40여년동안 교화에 몰두했으며, 문성·헌안·경문·헌강·정강·진성여왕 등 여섯 왕이 모두 무염국사를 청해 법을 물었을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이 산문은 선종의 입장에서 화엄을 융합하려는 사상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89세에 입적했으며 여업·대통·심광·자인·승랑·현영 등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장곡사

상-하 대웅전 두개 특징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말사로 850년(문성왕 12)에 보조선사가 창건한 사찰. 그 뒤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많은 중건중수를 거쳤으나 자세한 연혁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경사지를 닦아 위아래에 절터를 만들었는데, 아래에는 운학루·대웅전·요사채 등이 있고, 이곳에서 50m 가량 올라간 곳에 다시 대웅전과 응진전이 있다.

대웅전이 둘 있는 것은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장곡사의 특징이다. 상대웅전(보물 제162호)과 하대웅전(보물 제181호)은 각기 동남향과 서남향을 향하고 있어 건축사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상대웅전 안에는 통일신라 때 조성된 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국보 제58호)가 있으며, 하대웅전(보물 제181호) 안에는 금동약사여래좌상(보물 제337호)이 봉안돼 있다.

무량사

김시습부도·초상보존

부여 외산면 만수산 기슭에 자리잡은 무량사 역시 마곡사 말사. 신라말에 범일국사가 창건해 여러 차례의 중건·중수를 거쳤으나 자세한 연대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17세기 초에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전인 극락전과 그 안에 모셔진 아미타삼존불상은 17세기 전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극락전(보물 제356호)과 장중하면서도 단아한 고려시대 오층석탑(보물 제185호)이 자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담한 석등(보물 제233호)도 있다. 절 문앞에는 거대한 당간지주와 김시습(설잠스님)의 부도가 있다. 1493년(성종 24) 김시습이 이곳에서 죽자 승려들이 그의 영각을 절 곁에 짓고 초상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無舌土論' 선법문 들리는듯…

구산선문 참선기행

11월-성주산문

한때 건물 천칸·스님 2천명 달해
무염국사비 옛모습 그대로 간직

광활하고도 적막한 땅. 늦가을 오후 햇살이 환히 비추지만 찬바람을 막을 벽 하나 없이 옛 영화를 역사 속에 묻어둔 곳 성주사지.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 성주사지는 그렇게 오늘을 맞고 있었다. 사지 한가운데를 팔짱을 끼고 오롯이 걷고 있는 연인들. 그들은 이 땅이 그 옛날 선풍(禪風)을 크게 떨친 불교 역사의 큰 축이었음을 알고 있을까.

9천여평의 사지는 답사객들에게는 한눈에 언뜻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서천, 부여, 청양, 홍성을 병풍처럼 두른 성주사지의 역사는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에 있었던 사찰 성주사는 선문구산의 하나인 성주산파의 중심사찰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는 백제 법왕 때 창건된 오합사(烏合寺)가 이 사찰이라는 사실이 1960년부터 수합된 기와조각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신라 문성왕때 당나라에서 귀국한 무염국사(801~888)가 이 절을 중창하고 선종을 일으키자 왕이 성주사라는 이름을 내렸다. (숭암산 성주사 사적)에는 성주사의 규모를 불전 80칸, 행랑 800여칸, 수각(水閣) 7칸, 고사(庫舍) 50여칸으로 기록하였으니 거의 천여칸에 이른 엄청난 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창 때의 성주사는 충청도는 물론 온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절이었고 신라 하대 구산선문에서 가장 번창했던 일문으로 특히 이곳에서 선풍을 떨친 무염국사의 문도는 2천여명에 이르렀으니 수도승들이 공양하느라 쌀을 씻은 뜨물이 성주천을 따라 실리니 흘러내렸다는 말이 전할 정도다.

이처럼 성주사는 성주산파의 총본산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된 뒤 중건되지 못하고 현재 폐사터만이 사적 제307호로 남게 되었다.

성주산문은 무염국사에 의해 개창됐다. 무염국사는 821년(헌덕왕 13)에 중국으로 들어가 마조의 제자인 마곡에게서 법을 전수받아 845년(문성왕 7)에 귀국해 성주산문을 열었다. 무염국사는 육조 혜능 - 마조 도일 - 마곡 보철로 이어지는 법맥을 받았으니 선종의 정맥을 그대로 이은 셈이다. 이 산문은 나말여초에 가장 번창했다.

무염국사는 '말에 얽매이거나 이론에 의지하지 않으며 곧장 심법에 직입한다'는 '무설토론(無說土論 혹은 無舌土論·선과 교의 토론)'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무염국사는 "교(敎)는 문무백관이 그 직책을 지키는 일이고, 선(禪)은 제왕이 팔짱을 끼고 침묵을 지키고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순수한 조사(祖師)의 견지에서 무상(無相) 무위(無爲) 무전(無傳)이라야 선(禪)이다"라고 주장했다.

교학 일색의 당시 불교계에 선의 중요성을 가르친 천책(天頙)이 지은 〈선문보장록〉의 '무설토론'이라는 논설집에는 이같은 무염국사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제목이 말해주듯 선을 무설토(無舌土), 교를 유설토(有舌土)라고 간주한다. 언어에 매이지 말고 선을 통한 무한진여의 세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성주사지에서 옛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최치원이 비문을 지었다는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는 5천여자에 달하는 장문으로 무염국사의 행적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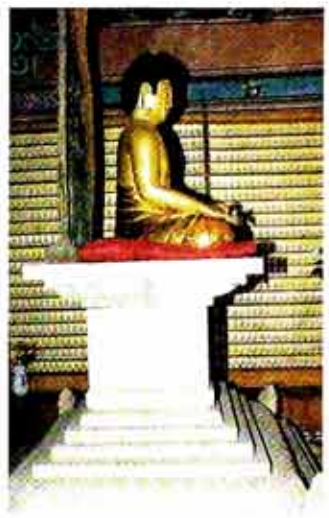
충남 청양 칠갑산에 소재한 장곡사(주지 대진). 주차장에서 내려 올라가는 길은 고즈넉한 고궁 돌담길을 돌아가듯 사색하고 한가로웠다. 그래서 약사도량인가. 하늘과 맞닿은 듯한 맑은 기운. 이곳에서 단 며칠만이라도 머물 수 있다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운치있는 분위기 탓에 참배객들은 부처님 품안에 안긴 느낌을 받았으리라. 상대웅전에서 이곳 스님의 지도로 참선에 들어 무염국사의 무설토의 경지를 더듬어 본다.

장곡사에서 버스로 30분 이동해 찾은 곳은 무량사(주지 승일). 동양 최대의 불좌상인 아미타여래삼존상이 봉안돼 있는 사찰답게 시원한 느낌을 준다. 주지 승일스님이 극락전 앞에서 답사객들에게 사찰 유래와 특징을 곁들인 법문을 해주었다.

"불교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믿음은 맹신이고, 믿음없는 지혜는 사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깃들지 않는 자비는 참자비가 아니고요. 진실로 자기의 생각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명그러니 터만 남은 성주사지를 둘러보며 답사객들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요, 믿음을 통해 지혜를 얻고 지혜로 믿음을 쌓아갈 때 본래 자기와 진실을 말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리라. 믿음과 지혜를 화두로 답사객들은 성주사지에서 잠시 입정에 들었다.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기자 (ybgo@buddhapia.com)



◇장곡사 상대웅전에 있는 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국보 제58호)



◇무염국사의 행장이 기록된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 최치원이 썼다고 전한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상량식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성을 발현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경남 울산 지역 불자님들의 수행 도량이 될 새법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이 터를 잡아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는 뜻은 부처님과 역대조사 그리고 일체가 내 한마음의 나툼임을 일깨워 주시는 대행스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 스님을 모시고 상량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이 뜻깊고 의미있는 법석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속에 깊이 안락하기를 발원합니다.

울산지원 사부대중 삼배



● 일시 : 불기 2543년 11월 28일 11:00
●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 울산지원 : 052)244-0884 / FAX 052)244-0182
불사현장 : 052)282-5077

찾아오시는 길

